2014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현대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 영·유아의 역량강화

■ 일시 : 2014년 4월 26일(토) 9:30~16:00
■ 장소 : 강남대학교 샬롬관 B1 108호
■ 후원 : 교문사 · 공동체 · 양서원 · 육아방송 · 창지사

한국육아지원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본 교재는 교문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봄날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어린이'들과 닮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한국육아지원학회 정기 춘계학술대회에서는『현대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두 번째 시리즈로 '영・유아의 역량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하고자합니다

미래사회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은 인성이 뒷받침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영유아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모색은 학교교육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므로 우리의 큰 책임일 것입니다.

이에 본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영유아의 역량에 관한 기조강연을 기반으로 하여 첫째,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성격의 역할을 의학적으로 재조명하고, 둘째, 영유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뇌과학적 접근 및 그에 따른 지도의 방향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심도 있게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가 『현대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 영・유아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 활동과 토론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한국육아지원학회장 문연심

학술대회 일정표

■ 사회 : 조순옥(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9:30～10:00 **등 록**

10:00～10:10 **개회사**
문연심(한국육아지원학회장,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축사
오선주(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장)

10:10～11:10 **기조강연** – 미래사회와 유아역량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11:10～11:30 **휴식**

11:30～12:20 **주제강연** Ⅰ – 유아교육에 있어서 성격의 역할
김영훈(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2:20～12:40 **정기총회**

12:40～13:50 **점심**(샬롬관 B1 학생식당)
포스터 발표(샬롬관 1층 로비)

13:50～14:40 **Young Scholar Session**
1분과(501호), 2분과(502호), 3분과(503호)

▣ Young Scholar Session

시 간	**1 분과**(샬롬관 501호) 사회 : 곽향림(호원대 교수)	**2 분과**(샬롬관 502호) 사회 : 성소영(안양대 교수)	**3 분과**(샬롬관 503호) 사회 : 정영희(수원여대 교수)
13:50 ~ 14:15	역사적 사고력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이봉자 (경북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해연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문원선 (수원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장)
14:15 ~ 14:40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함영숙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만 2세 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 김민영 (LG이노텍 어린이집 원장)	미국 0세아 보육 시설에서 영아들의 의식/수면 상태 패턴에 대한 보육교사의 민감성 김윤희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14:40~14:50	이동
14:50~15:40	**주제강연** Ⅱ –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영 · 유아역량 이방실(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교수)
15:40~16:00	**종합토론** 정미라(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00~	**폐 회**

목 차

기조강연 미래사회와 유아역량 ········· 11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주제강연 Ⅰ 유아교육에 있어서 성격의 역할 ········· 51
김영훈(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주제강연 Ⅱ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영 · 유아역량 ········· 89
이방실(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Ⅰ)

- 역사적 사고력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 115
  이봉자(경북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125
  함영숙(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Ⅱ)

-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 133
  조해연(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만 2세 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 ········· 141
  김민영(LG 이노텍 어린이집 원장)

〉〉〉 Young Scholar Session (Ⅲ)

-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151
  문원선(수원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장)
- 미국 0세아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의 수면/의식 패턴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 ········· 157
  김윤희(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포스터 발표

1.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이 유아의 유머 이해, 또래 유능성,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 167
   한보람(푸르니 우리은행 어린이집 교사)
   정가윤(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 소집단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사립 유치원장의 경험과 의미 170
이성희(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미선(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윤자(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종심(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3.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174
석성경(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영아 무상보육 정책 이후 강원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 177
김민희(서울의료원 어린이집 교사)
정가윤(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5.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180
김은하(사랑의 어린이집 교사)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 만 5세 누리과정 담당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직무만족도 비교 183
이수영(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장영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7. 만 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 1학년 사회과 교육의 연계성 연구 186
김은미(용인시청상록어린이집 원장)
이순례(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8.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자녀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분석 189
서지원(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193
민선옥(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0. 영아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어머니의 만족도와 요구도 196
박정미(강남어린이집 前교사)
이순례(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 SCAMPER 기법을 적용한 동화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199
송규운(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안나(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2.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202
김영실(시립한보라 어린이집 원장)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207
■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215
■ 제 5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217
■ 연수 이수증

기조강연

미래사회와 유아역량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 기조강연 -

미래사회와 유아역량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유아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가깝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준비하고, 멀게는 대학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자질을 준비하는 존재이다. 유아교육사상가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유아 시기는 씨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때문에 유아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좋은 씨를 뿌릴 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표에서는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최근 교육계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하여 고찰하고, 유아 보육 및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I. 미래사회 전망

미래학자들은 미래 사회의 메가트랜드를 인구변화, 글로벌화, 사회 양극화, 과학 및 정보기술 발달의 가속화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는 김창환 외(2011), 한국정보화진흥원(2010a, 2010b, 2011) 등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하도록 하겠다.

1. 인구변화

인구변화,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전체 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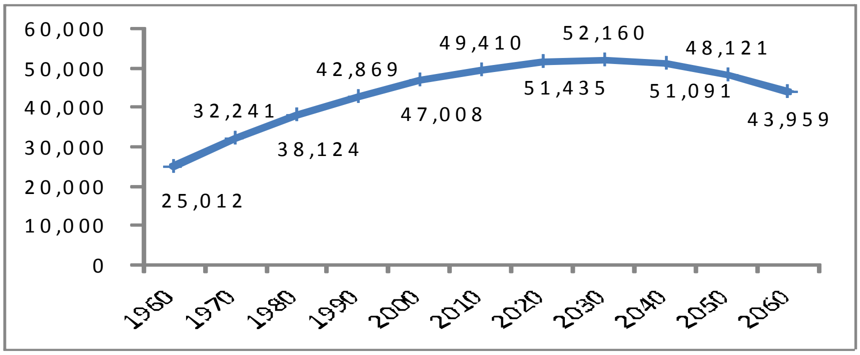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203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49,410천명에서 2030년에는 52,160천명으로 연평균 약 1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부터 2060년 까지는 감소폭이 증가하여 연평균 약 27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이후에는 급감 추세로 변모하여 연평균 약 41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2010~2060) (단위 : 명)

연령별 (전국)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계	49,410,366	51,435,495	52,160,065	51,091,352	48,121,275	43,959,375
0~4세	2,281,552	2,259,138	2,135,698	1,703,665	1,541,480	1,463,949
5~9세	2,495,540	2,283,561	2,219,377	1,919,037	1,573,192	1,500,833
10~14세	3,198,282	2,245,733	2,220,255	2,094,826	1,668,525	1,507,874
15~19세	3,467,179	2,453,985	2,235,732	2,166,305	1,868,817	1,529,010
20~24세	3,209,527	3,225,253	2,258,648	2,229,971	2,101,723	1,672,453
25~29세	3,791,971	3,576,589	2,527,197	2,301,138	2,228,762	1,922,234
30~34세	3,866,366	3,268,009	3,256,807	2,279,346	2,248,426	2,117,372
35~39세	4,261,935	3,767,155	3,524,378	2,488,393	2,266,525	2,195,240
40~44세	4,240,445	3,816,794	3,208,039	3,198,800	2,239,940	2,210,588
45~49세	4,266,781	4,221,025	3,726,926	3,490,939	2,470,003	2,252,080
50~54세	3,885,145	4,210,652	3,799,074	3,203,209	3,203,341	2,248,223
55~59세	2,791,172	4,226,171	4,201,665	3,731,545	3,509,590	2,492,148
60~64세	2,201,981	3,797,334	4,154,823	3,782,854	3,209,899	3,225,827
65~69세	1,846,544	2,658,332	4,085,761	4,118,318	3,694,148	3,501,650
70~74세	1,558,024	1,994,716	3,530,678	3,945,081	3,650,680	3,134,779
75~79세	1,087,310	1,527,129	2,289,334	3,622,876	3,752,571	3,437,226
80세 이상	960,612	1,903,919	2,785,673	4,815,049	6,893,653	7,547,889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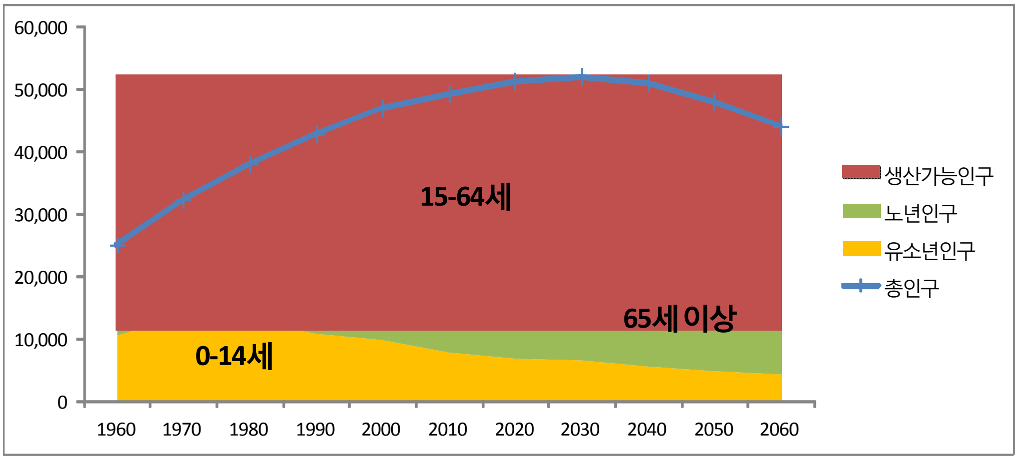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인구 변화 추세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나. 젊은 인구 감소 및 노인 인구 증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0~1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7,975천명(16.1%)에서 2060년에는 4,473천명(10.2%)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노년인구(65세 이상)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5,452천명(11.0%)에서 2060년 17,622천명(40.1%)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인구의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다. 학령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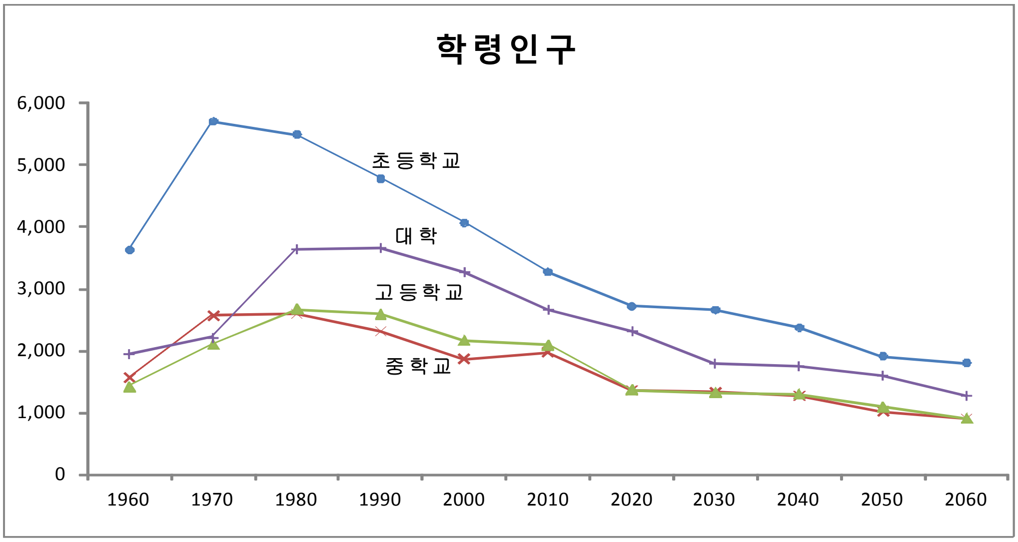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에는 전체 인구의 17.7%를 차지하였으나, 2060년 4.1%로 13.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의 경우, 1970년에는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였으나, 2060년에는 2.1%로 5.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1980년에는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였으나, 2060년에는 2.1%로 4.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교의 경우, 1980년에는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였으나, 2060년에는 2.9%로 6.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까지만 해도 초중등학교 1개 학년이 6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20년 경에는 40만 명 대인 2/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25~2030년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즉, 사회에 진출하는) 인력이 현재보다 35~40%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학령인구의 변화추이

연도	총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령자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1960	25,012	3,629	14.5	1,566	6.3	1,417	5.7	1,941	7.8	726	2.9
1970	32,241	5,711	17.7	2,574	8.0	2,101	6.5	2,218	6.9	991	3.1
1980	38,124	5,499	14.4	2,599	6.8	2,671	7.0	3,632	9.5	1,456	3.8
1990	42,869	4,786	11.2	2,317	5.4	2,595	6.1	3,663	8.5	2,195	5.1
2000	47,008	4,073	8.7	1,869	4.0	2,166	4.6	3,275	7.0	3,395	7.2
2010	49,410	3,276	6.6	1,974	4.0	2,090	4.2	2,672	5.4	5,452	11.0
2020	51,435	2,719	5.3	1,359	2.6	1,370	2.7	2,308	4.5	8,084	15.7
2030	52,160	2,663	5.1	1,333	2.6	1,324	2.5	1,796	3.4	12,691	24.3
2040	51,091	2,378	4.7	1,271	2.5	1,298	2.5	1,751	3.4	16,501	32.3
2050	48,121	1,912	4.0	1,019	2.1	1,092	2.3	1,596	3.3	17,991	37.4
2060	43,959	1,805	4.1	906	2.1	910	2.1	1,264	2.9	17,622	40.1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3〉 학령인구 감소 추세

2. 글로벌화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움직이고 있다. 특정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동, 동아시아의 긴장은 그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깊은 관련성이 있다. 교역(수출과 수입)이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은 더 이상 미국과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으로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위기를 가져 온 것은 글로벌화 된 경제시스템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향후 10년 후에는 세계경제 통합 및 국제 분업, 금융시장의 다각화, 글로벌 노동시장 활성화, 자본이동의 글로벌화, 다국적 생산네트워크 강화, 신흥개발국의 성장(BRICs), 아시아로 부의 이동, 미국 중심의 질서체제 개편(중국 부상) 등 글로벌 시대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창환 외, 2011).

사람의 이동도 활발하여 지고 있다. 해외여행, 유학생, 국제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기술환경의 발전은 이러한 글로벌화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 전화로 시작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SNS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

3. 사회 양극화

경제 부국과 빈국의 격차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큰 난제였고, 지금도 큰 문제이다. 더 우려되는 점은 경제적 양극화가 좁혀지지 않고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나라 안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소득 격차, 지역 격차, 성별 격차 등 다양한 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별(고소득계층 vs. 저소득계층), 지역별(서울 vs. 지방)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난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미래 사회에서 이러한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률*** 등 모든 지표에서 2000년대 들어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도시 2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니계수	0.256	0.251	0.266	0.277	0.279	0.270	0.277	0.281	0.285	0.292	0.294	0.295	0.289
소득5분위배율	3.72	3.68	4.05	4.29	4.34	4.22	4.41	4.55	4.62	4.84	4.88	4.97	4.82
상대적빈곤율	7.1	7.7	9.2	10.1	10.0	10.6	11.4	11.9	11.9	12.6	12.5	13.1	12.5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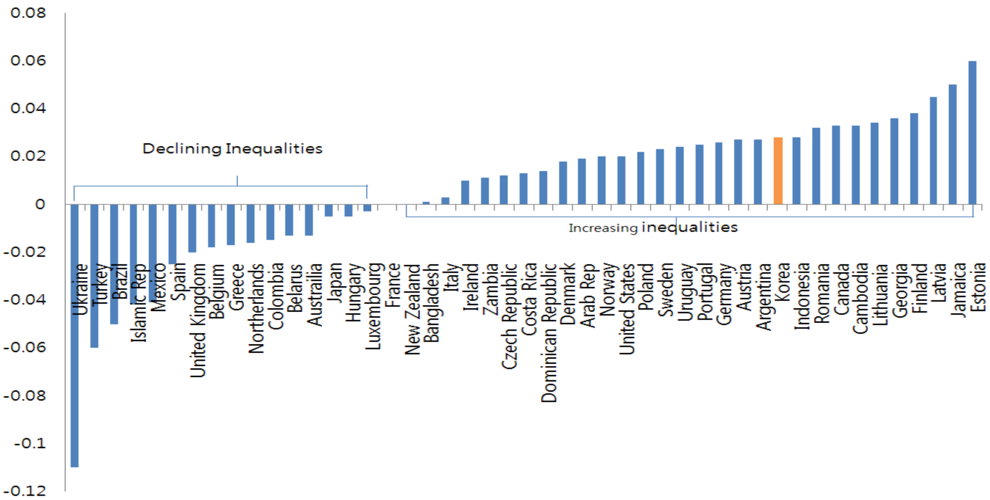
소득 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국가적으로 비교할 경우,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국가, 즉 빈부격차가 증가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를 의미

**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다.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이다.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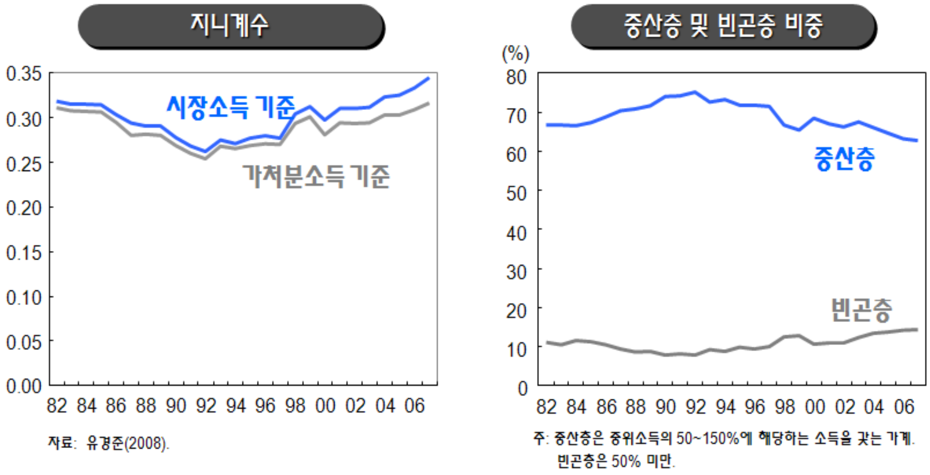
*** 소득이 '소득수준 중간값의 50% 미만' 인 인구의 비율



〈그림 4〉 지니계수

자료 :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출처 : KDI(2010). 미래비전 2040.

지니계수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늘어나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향후 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고용구조의 양극화 등 불평등 문제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중산층 및 빈곤층 비중

출처 : 차문중(2011).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미래.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대한민국에서는 함께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공생 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삶의 질(Life Quality)과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증대하는 것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다.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60년이 지난 지금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성장 모델 만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활발하다. 경제적 성장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사회적 성장은 정체 상태이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수준을 보여주는 각종 사회적 지표는 OECD 국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표 4〉 주요 사회지표

주요 사회 지표	우리나라의 순위	자료원
사회적 신뢰도	OECD 34개 국가 가운데 32위	OECD, Society at a Glance
타인에 대한 신뢰도	OECD 30개 국가 가운데 25위	OECD, Society at a Glance
관용성 지수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8위	OECD, Society at a Glance
부패지수	OECD 34개 국가 가운데 14위	OECD, Society at a Glance
삶의 만족도	OECD 34개 국가 가운데 30위	World Gallup Poll
자살률	OECD 34개 국가 가운데 1위	OECD Health Data

사회의 질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년 OECD에서는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OECD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삶의 질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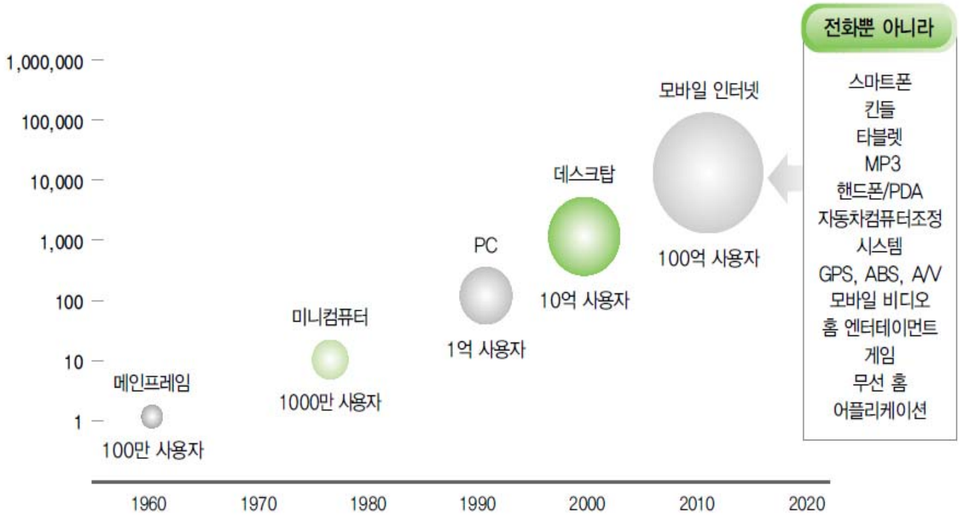
주요 삶의 질 지표		우리나라의 순위	자료원
영역	지표		
소득과 부	가처분소득	OECD 33개 국가 가운데 25위	OECD(2011). How's Life?
	빈곤율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8위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직업	고용률	OECD 36개 국가 가운데 23위	OECD(2011). How's Life?
거주여건	주거만족도	OECD 37개 국가 가운데 33위	OECD(2011). How's Life?
건강	노인건강도	OECD 33개 국가 가운데 31위	OECD(2011). How's Life?
일-삶 병립	근로시간	OECD 30개 국가 가운데 2위	기획재정부(2012). 한국 고용의 현주소.
교육	중등교육이수율 (25~34세)	OECD 34개 국가 가운데 1위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환경	공기의 질	OECD 40개 국가 가운데 31위	OECD(2011). How's Life?
	수질	OECD 40개 국가 가운데 28위	OECD(2011). How's Life?
안전	범죄(살인)율	OECD 40개 국가 가운데 11위	OECD(2011). How's Life?
	안전감	OECD 40개 국가 가운데 13위	OECD(2011). How's Life?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	OECD 34개 국가 가운데 30위	World Gallup Poll

* 조사대상 국가는 OECD 34개 국가와 더불어 일부 옵저버 국가 포함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화,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양극화 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지난 60년 동안 추구하였던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4. 과학 및 정보기술 발달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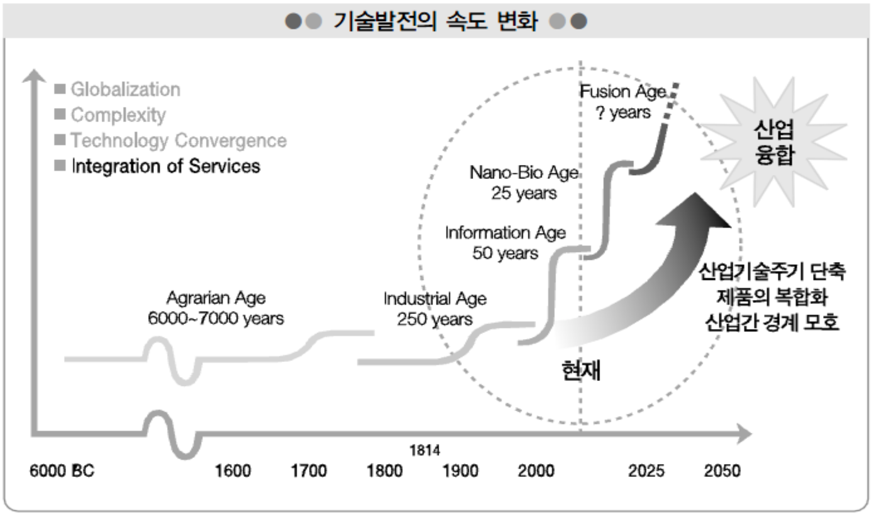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가운데 IT 혁명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컴퓨터 드라이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컴퓨터 데스크탑 사용 시대에서 점차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2020년에는 모바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더욱 개방적이고 네트워크 되고 스마트한 IT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6〉 시간의 경과에 따른 컴퓨팅 드라이버의 성장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미래연구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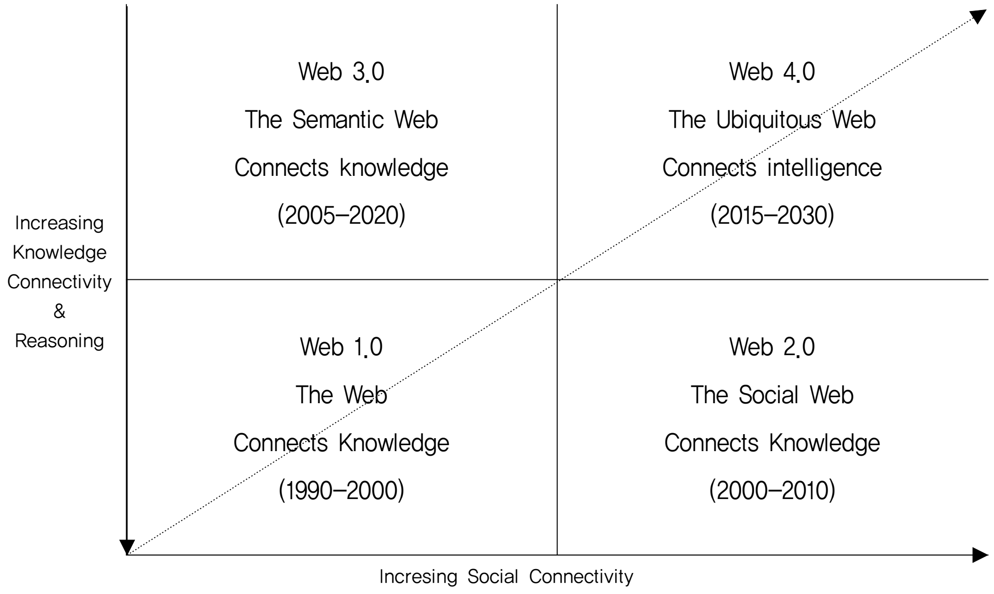
기술발전의 속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정보화 사회에서 나노-바이오 시대로, 2020년대에는 융합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융합이 미래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7〉 기술발전의 속도 변화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b).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ICT 전략.

또한 2020~30년에는 웹 4.0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웹 1.0 시대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웹 2.0 시대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한 웹 3.0 시대를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되고 스마트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웹 4.0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함께 사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 사회생활 혁신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림 8〉 웹 발전 트랜드 변화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b).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ICT 전략.

5.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적 이슈

미래 사회 전망을 기초로 한국 사회의 변화와 교육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저출산의 가장 큰 영향은 학생수 감소이다. 인구 보너스 시대에 누렸던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반대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우려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인적자원의 양 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구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이 교육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의 관심이 양에서 질로 변하면서 교원의 역량이 중요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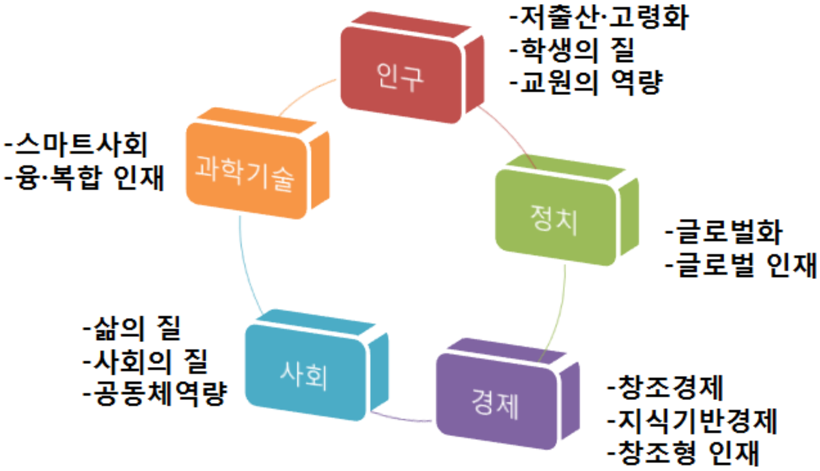
육적 과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더불어 글로벌 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이해교육과 더불어 국제교류협력(Global Cooperation)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래 한국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는 큰 변화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선진화와 글로벌 경제가 심화될 것이고, 산업구조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창조산업, 융합산업이 부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창조형 인재 육성이 핵심 교육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 창의성과 감성,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이 결합된 융합 인재가 미래 핵심 인재로 부각될 전망이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교육에서의 공생발전이 핵심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히 학벌주의 사회에서 학력차별을 없애고 능력주의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한국 사회에서는 또한 질적인 성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높이는 교육, 갈등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 신뢰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 교육, 청소년 시민의식 교육,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것 등이 교육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측면에서 볼 때, 미래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혁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히 Web 4.0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육 4.0 시대가 도래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학습을 하면서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고, 유비쿼터스 교육이 본격화되고, 학생 수준별 1:1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혁명이 예상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 체험중심의 교육,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사의 역할, 교육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 4.0 시대 교육패러다임은 보다 창의적(creative)이고, 스마트(smart)하고, 개방적(open)인 교육 및 학교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림 9〉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적 이슈

II. 역량기반 교육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의 핵심 개념이 ‘지식’에서 ‘역량’으로 바뀌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 스마트 사회, 창의사회 등으로 규정 짓는 21세기 사회에서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역량’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유현숙 외 2002; 이광우 외, 2009; 이근호 외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a, 2010b). 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의 획득과 활용,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하였으나, 21세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이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Rychen/Salganik, 2003: 3).

1. 역량기반 교육은 세계적 추세

가. OECD

역량에 대한 논의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주도하고 있다. 1997년에 OECD 회원 국가들은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프로그램(PISA)을 가동하였다. PISA는 의무교육을 종료한 연령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한 정도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 집중하여 측정하여 왔다. 그러나 학생들이 미래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다양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아래 OECD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이다. DeSeCo 프로젝트는 21세기 학생들이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OECD, 2005).

DeSeCo 프로젝트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12개국이 연구에 참여하여 3가지 핵심역량(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을 도출하였다. OECD-DeSeCo 프로젝트는 이후 OECD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치며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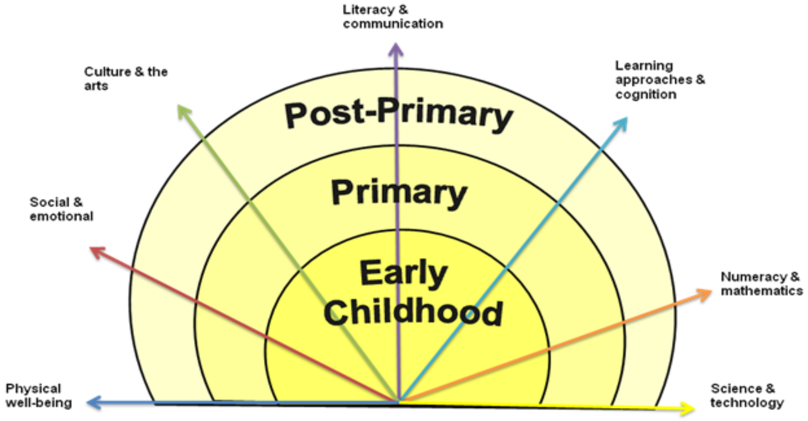
OECD는 자라나는 성장 세대 뿐 아니라 기성세대인 성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보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추진하였고, 2013년에 최초로 성인들의 역량을 파악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은 미국・일본・독일 등 24개 참가국 성인(16~65세, 15만 7천명)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수리력 및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국가 간에 비교하는 조사로 진행되었다(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중등학생과 성인에 이어 대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측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OECD는 2009년부터 AHELO(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학생 역량을 측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AHELO 프로젝트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일반 핵심 역량(generic skills)과 전공역량(domain-specific skills)으로 구분하여 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최정윤 외, 2009). 일반 핵심역량으로는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결력, 글쓰기 등 네 가지가 최종 선정되었고, 전공역량은 공학과 경제학 분야의 역량이 개발되었다.

나. UNESCO

OECD 가 주도하는 역량 측정 프로젝트는 이후 국제 비교 조사 연구 및 OECD 국가들의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3년 PISA 조사에서는 문제해결력이 추가되었고, 2006년에는 ICT 활용 능력이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협동적 문제해결력 조사가 추가될 계획이다. 국제교육협의회(IEA)는 2009년 학생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는 조사(ICCS)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세계 교육 전문가 250여 명은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9년 ATC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기서는 문제해결력과 정보통신기술 이해능력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판단하고 인터넷 기반 협동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류성창 외, 2012).

UNESCO에서도 2015년부터 Learning Metric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중이다. PISA, ICCS, ATC21S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UNESCO 프로젝트는 다면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학생들의 발달 영역과 학습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측정하고 국제 비교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별히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physical, social, emotional)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학생 역량 개발 및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0〉 Model of Learning Metrics

UNESCO Learning Metrics 프로젝트는 그 초점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모여져 있다. 그러나 역량 지표는 유아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UNESCO Learning Metrics 프로젝트의 역량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UNESCO Learning Metrics 프로젝트의 역량 지표

	초등 (Primary)	중등 (Post-Primary)
신체건강 (Physical well being)	• 신체건강 및 위생(Physical health and hygiene) • 음식과 영양(Food and nutrition) •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 성적 건강(Sexual health)	• 건강 및 위생(Health and hygiene) • 성적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 병과 질병 예방(Illness and disease prevention)
사회성 및 정서발달 (Social & Emotional)	• 사회 및 지역 가치(Social and community values) • 시민 가치(Civic values) •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 and well-being)	• 사회의식(Social awareness) • 지도성(Leadership) • 시민참여(Civil engagement) •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Positive view of self and others) • 회복력/투지(Resilience "grit") • 도덕적 및 윤리적 가치(Moral and ethical values) • 사회과학(Social sciences)
문화 및 예술 (Culture & the arts)	• 창의적 예술(Creative arts) • 문화지식(Cultural knowledge)	• 창의적 예술(Creative arts) •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문해 및 의사소통 (literacy & communication)	• 말하기 유창성(Oral fluency) • 언어 이해력(Oral comprehension) •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 •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 • 어휘력(Receptive vocabulary) • 표현력(Expressive vocabulary) • 쓰기 표현/작문(Written expression/composition)	• 말하기 및 듣기(speaking and listening) • 쓰기(Writing) • 읽기(Reading)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인지 (Learning approaches & cognition)	• 지속 및 주의(Persistence and attention) • 협동(Cooperation) • 자율성(Autonomy) • 지식(Knowledge) • 이해(Comprehension) • 적용(Application) •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 협력(Collaboration) • 자기주도(Self-direction) • 학습지향(Learning orientation) • 지속(Persistence) • 문제해결(Problem Solving) • 비판적 의사결정(Critical decision making) • 유연성(Flexibility) • 창조성(Creativity)

수학 (Numeracy & mathematics)	• 수 개념 및 연산(Number concepts and operations) • 기하학 및 패턴(Geometry and patterns) • 수학 적용(Mathematics application)	• 수(Number) • 대수학(Algebra) • 기하학(Geometry) • 일상 계산(Everyday calculations) • 개인적 재무(Personal finance) • 정보를 받은 소비자(Informed consumer) • 자료 및 통계(Data and statistics)
과학 및 기술 (Science & technology)	• 과학적 질문(Scientific inquiry) • 생명과학(Life science) • 물리학(Physical science) • 지구과학(Earth science)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식 및 사용(Awareness and use of digital technology)	• 과학적 접근(Scientific approaches) • 환경의식(Environmental awareness) • 디지털 학습(Digital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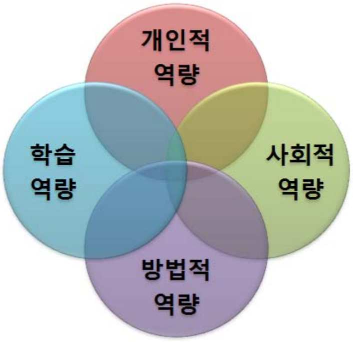
2. 주요 선진국의 교육과정

역량 및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선진 각국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에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들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을 기초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독일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역량(Kompetenz) 및 핵심역량(Schluesselqualifikation)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와 더불어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독일의 교육학자 롯(H. Roth)은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지식역량(Sachkompetenz), 사회적 역량(Sozialkompetenz), 개인적 역량(Selbstkompetenz)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oth, 1971). 독일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핵심역량을 교과역량(Fachkompetenz), 정치적 역량(Politische Kompetenz), 인간적 역량(Humane Kompetenz)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Deutscher Bildungsrat, 1974). 독일교육부장관협의회는 핵심 역량으로 교과역량(Fachkompetez), 개인 역량(Personalkompetenz), 사회적 역량(Sozialkompetenz), 방법 및 학습역량(Methoden- und Lernkompetenz)을 제시하였다(KMK, 2000). 독일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핵심역량은 이후 OECD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70년대부터 논의된 핵심역량은 실제로 독일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독일 브레멘 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이광우 외, 2009).



〈그림 11〉 브레멘 주의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 단계의 네 가지 행동역량

출처 : Padgogische Leitideen Rahmenplan fur die Primarstufe, Bremen

ㅇ 개인적 역량 : 학습자가 가진 잠재력의 발현
ㅇ 사회적 역량 :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역량
ㅇ 방법적 역량 : 어떤 문제에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
ㅇ 학습 역량 : 지식 획득에 필요한 기초 역량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03년 이후 OECD의 DeSeCo 프로젝트가 제안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으며, 2007년에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New Zealand Curriculum) 총론을 발표하였다(최승현 외, 2011).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편을 시도하였다. 교육과정을 5개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으로 새로이 구축하였다.

교육적 가치		핵심역량
• 탁월성 • 혁신 · 탐구 · 호기심 • 다양성 • 공평 • 공동체와 참여 • 생태적 지속 가능성 • 성실 • 존중	+	• 사고하기 • 언어 · 상징 · 텍스트 활용하기 • 자기 관리하기 • 타인과 관계 맺기 • 참여와 공헌하기

○ 캐나다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다. 퀘벡 주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기능의 개발에 기여하며, 기본적인(fundamental) 학습과 더불어 기능적인(functional)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광우 외, 2009; 홍원표 외, 2010). 퀘벡 주 교육과정에 포함된 역량 요소는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하위요소
범교과적 역량	지적 역량
	방법론적 역량
	개인적 · 사회적 역량
	의사소통 관련 역량
포괄적 학습영역	건강과 참살이
	개인적 · 직업적 계획
	환경의식 및 소비자 권리와 책임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성과 공동체 삶

주요 선진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역량들이 주요 역량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각국의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역량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핀란드	영국	미국	한국
창의력	○	○	○	○	○	○	○
문제해결능력		○	○	○	○	○	○
의사소통능력	○	○	○	○	○	○	
대인관계능력	○	○	○	○	○	○	
정보처리능력		○	○	○	○	○	
자기관리능력	○	○	○	○	○	○	○
시민의식	○	○	○	○	○	○	○
기초학습능력	○		○	○	○	○	○
직업준비능력			○	○	○	○	○
상황대처능력	○			○	○	○	
심미적 감수성				○			
다문화 이해	○	○	○	○	○	○	○
환경의식	○	○	○		○		

자료 : 이광우 외 (2008)

III. 미래사회 변화와 역량기반 유아교육

1. 왜 역량기반 유아교육인가?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볼 때,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량 기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은 이미 역량 기반 교육에 착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량 기반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유아 시기는 모든 교육의 뿌리 단계이기 때문에 역량 기반 교육을 유아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최근의 교육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서 역량 기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인구동태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14년 현재 유아 단계인 어린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0년 고졸자 수는 417,046명으로 2014년 고졸자 633,114명 보다 2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김창환, 2013). 또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035년에는 현재보다 30~40% 정도 인력 공급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35년에는 인력수요가 공급을 초월하여 청년층 실업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좋은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대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서 학벌주의 사회에서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미래 교육환경 변화

	2014년	2030년	2035년
학생수(고졸자)	633,114명	417,046명	
인력수급	공급 〉 수요	공급 = 수요	공급 〈 수요
학벌사회/능력사회	학벌 〉 능력	학벌 = 능력	학벌 〈 능력
입시경쟁	매우 강함	점차 완화	완화
수단주의적 교육가치관	매우 강함	점차 완화	완화

출처 : KDI(2010). 미래비전 204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미래 교육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입시중심의 지식교육이 미래 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사회 패러다임에 적합한 역량 중심 교육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임을 예고하여 주고 있다.

나.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

우리 정부도 역량기반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학생들과 성인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국제비교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중등학생 성취역량조사(PISA), 중등학생 시민역량조사(ICCS), 대학생역량조사(AHELO), 성인역량조사(PIAAC) 등 국제비교 조사에 참여하여 우리 학생들과 성인들의 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역량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능력중심사회를 건설하고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역량(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기업에서 역량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등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초중등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유아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경제사회적 요구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나,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육의 경우 그러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졸업생들의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졸자들의 경우 협동심,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현실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2009년도에 김동일 외는 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가치관 형성 및 태도 등 7가지를 선정하고 핵심역량이 어느 정도 양성되는지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길러지고 있으나, 가치관 및 태도,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 등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외, 2009). 경제사회적 요구에 교육이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역량 교육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학의 변화

대학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에서 2008년부터 대학생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시작한 이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대학들도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의 역량을 명시하여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교육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목표하고 있는 역량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역량 요소가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적 역량(창의적 사고력, 융복합 사고력), 시민(민주시민)적 역량, 협동역량, 전문역량(전문지식), 인성(전인적 인성, 도덕성, 봉사정신), 리더십, 글로벌 역량(글로벌 마인드, 외국어 능력), 학술역량(학업능력), 정보화 역량, 대인관계역량(공동체 의식), 문화역량, 의사소통역량, 문제해결역량, 사고력(지적 호기심, 비판적 사고) 등. 대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역량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대학교육 관점에서의 역량

대학생 역량	역량 요소
지적 역량(학술역량)	• 창조적 역량 • 사고 역량 • 학업 능력
진로역량	• 문제해결능력 • 정보화 역량
대인관계역량	• 의사소통능력 • 협동 역량 • 전인적 역량(인성)
시민역량	• 민주시민역량 • 문화역량
글로벌역량	• 글로벌 마인드 • 외국어 능력

마. 학부모의 요구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지식교육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인성, 창의성 등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성, 도덕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향후 중시해야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진로교육, 특기적성 교육이라고 답하였다(이강주 외, 2013).

〈표 10〉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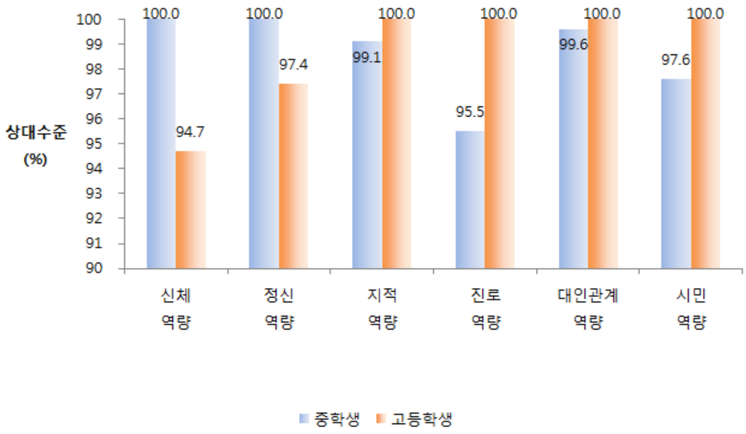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
창의성교육	25(14.8)	18(15.9)	17(13.0)
인성교육	118(69.8)	64(56.6)	58(44.3)
진로교육	4(2.4)	12(10.6)	27(20.6)
특기적성교육	6(3.6)	6(5.3)	13(9.9)
민주시민교육	8(4.7)	4(3.5)	9(6.9)
성교육	3(1.8)	6(5.3)	3(2.3)
환경교육	3(1.8)	1(0.9)	1(0.8)
국어교육	1(0.6)	1(0.9)	2(1.5)
외국어교육	0(0.0)	0(0.0)	1(0.8)
수학교육	1(0.6)	0(0.0)	0(0.0)
과학교육	0(0.0)	0(0.0)	0(0.0)
예체능교육	0(0.0)	0(0.0)	0(0.0)
한자교육	0(0.0)	0(0.0)	0(0.0)

바. 한국 학생들의 역량 수준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역량 수준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조사하였다. 역량을 개인적 차원의 역량과 사회적 차원의 역량으로 구분하고, 신체역량, 정신역량, 지적역량, 진로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 등 6가지를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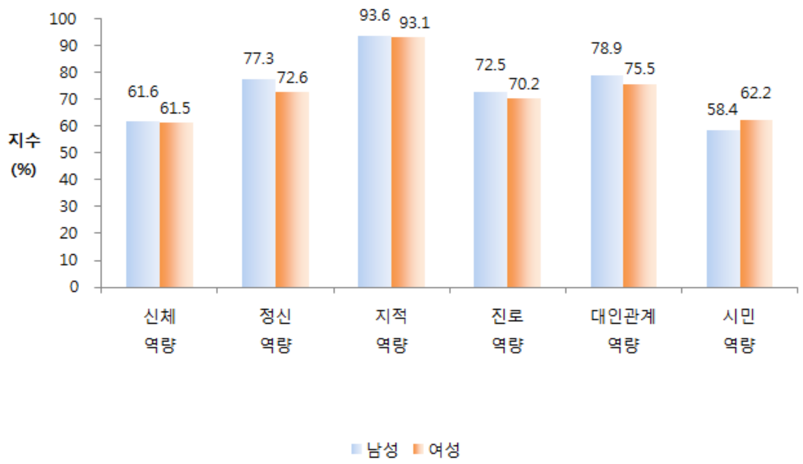
〈그림 12〉 학생역량지수 개념모형

진단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의 지적 역량 수준은 높으나 정신역량, 진로역량, 대인관계역량 수준은 보통이고, 신체역량과 시민역량 수준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높으나, 신체역량과 정신역량 측면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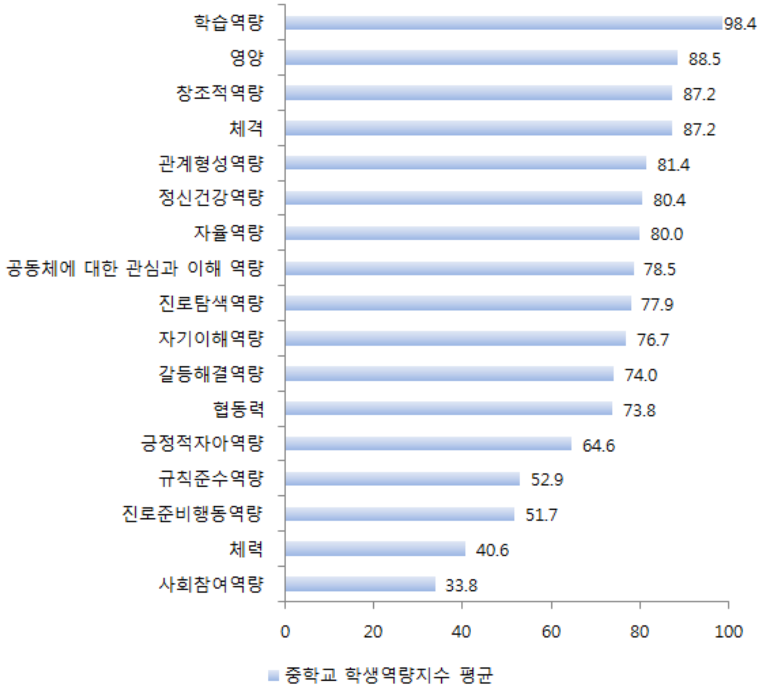
〈그림 13〉 2013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역량지수 비교

중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지적역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역량과 시민역량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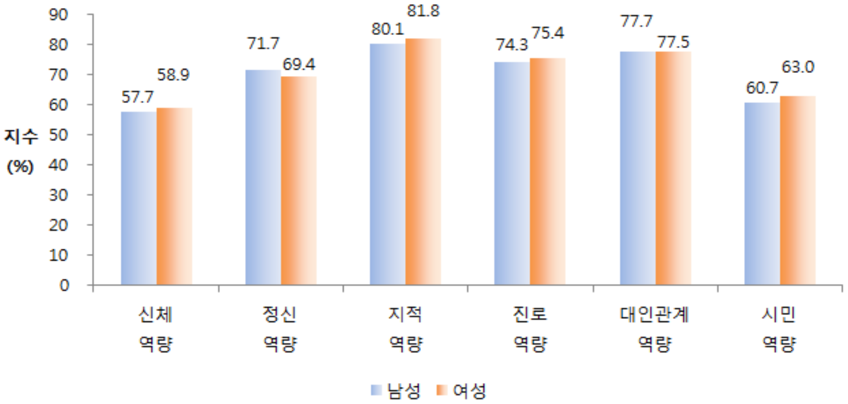
〈그림 14〉 중학생 역량지수

세부 역량별로 살펴보면, 학습역량, 영양, 창조적 역량, 체격은 높은 수준이나, 사회참여 역량, 체력, 진로준비행동, 규칙준수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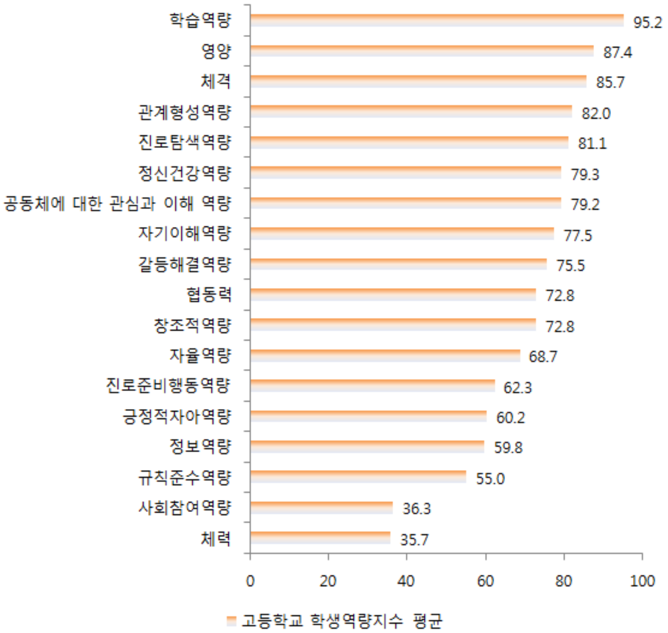
〈그림 15〉 중학교 학생역량지수(소영역)

고등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지적역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역량과 시민역량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고등학생 성별 대영역별 지수 비교

세부 역량별로 살펴보면, 학습역량, 영양, 체격은 높은 수준이나, 체력, 사회참여역량, 규칙준수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고등학교 학생역량지수 (소영역)

2. 역량기반 유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다. 누리과정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역량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국제 및 국내 트렌드 및 핵심역량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우수 교육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누리과정을 살펴보면서 역량 기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누리과정의 배경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데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누리과정 해설서, 8).

나. 누리교육과정의 구성방향

-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만 3~5세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 목적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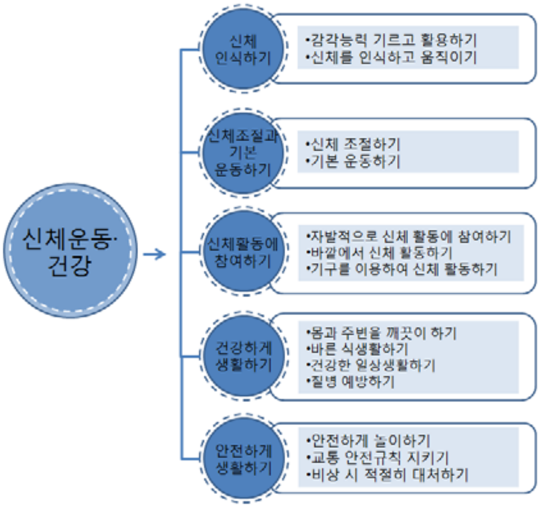
라. 목표

-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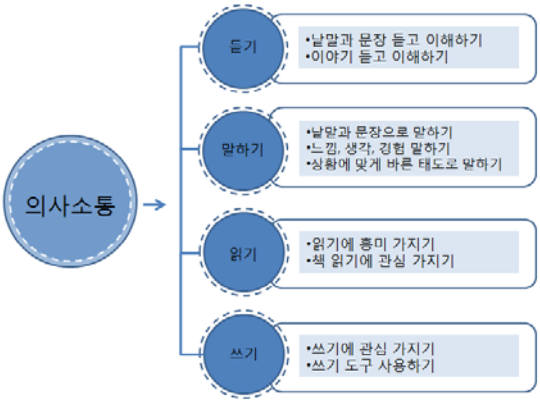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마.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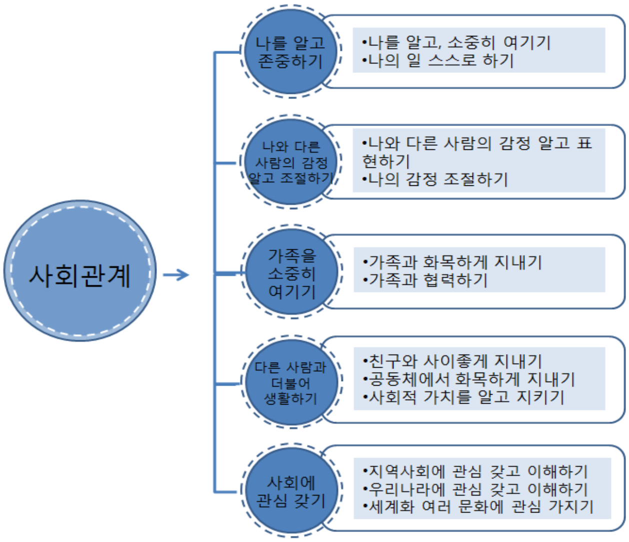
○ 신체운동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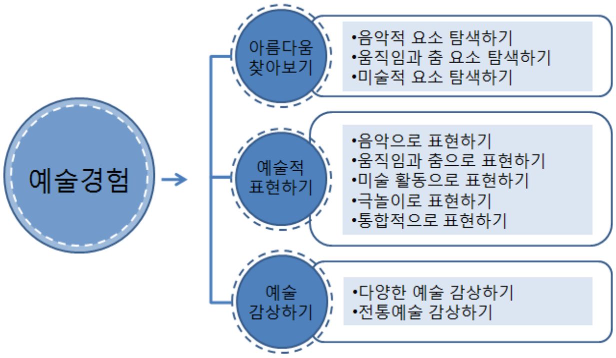
○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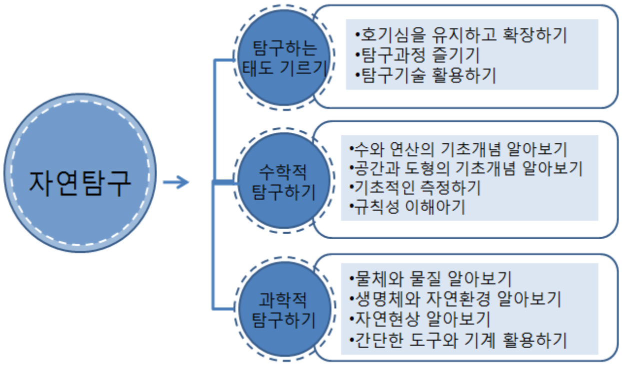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 탐구



바. 사례

여기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주시 교육청의 '메래 핵심역량', 대구시 교육청의 '유아역량'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 광주시 교육청 – 미래 핵심역량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교육력을 제고하는 핵심 과제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3년부터 학교교육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력, 정보활용능력, 생태 · 인문학적 감수성, 자기주도적 학습력, 소통능력, 시민의식, 기초학습능력 등 9가지 역량을 미래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력을 단순히 성취도로 평가하기 않고, 참된 교육성취, 즉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 흐름에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구시 교육청 – 유아역량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1월 대구유아교육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역량기반 유아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위한 유아교육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건강 · 체력 중심의 신체적 역량, 긍정 · 도전 중심의 정서적 역량, 소통 · 배려 중심의 사회적 역량, 정직 · 자율 중심의 도덕적 역량, 통합 · 창조 중심의 지적 역량 등 5대 역량, 10대 가치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르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11〉 2014 대구 유아역량

역량군	가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체적 역량	건강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안전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관리한다.	건강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체관리 능력을 기른다.
	체력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 한다.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알고 운동하는 습관을 기른다.	단체 스포츠를 통해 협동과 경쟁을 경험 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한다.	운동하는 습관과 단체 스포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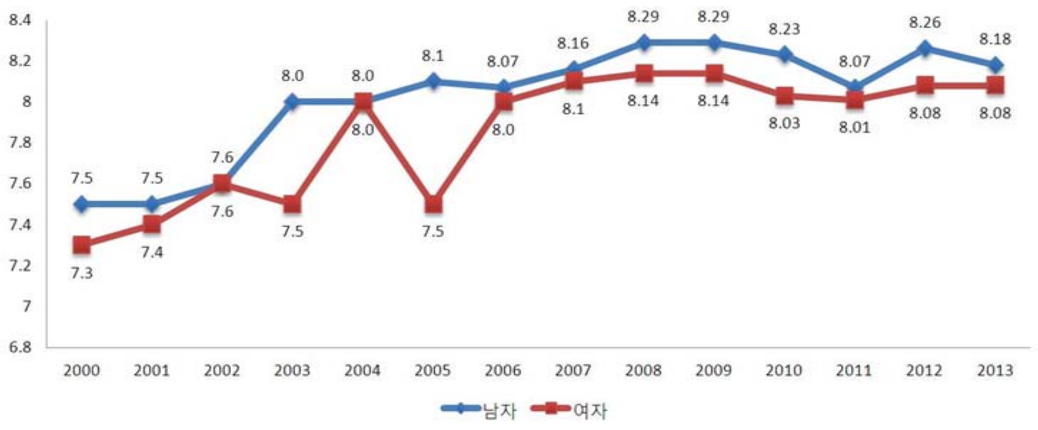
역량군	가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서적 역량	긍정	자신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가진다.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주변 사람과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안다.	나에서 우리로 시야를 확장하여 폭넓게 수용하고 신뢰하는 개방성을 기른다.
	도전	주변 일을 호기심을 가지고 해 본다.	흥미있는 일에 자신있는 태도로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사회적 역량	소통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즐겁게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고 협동할 줄 안다.	대립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배려	가족,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관심을 가진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 하고 가진 것을 나누려고 노력한다.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민 의식을 기른다.
도덕적 역량	정직	솔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자신과 남을 속이지 않는 말과 행동을 일상생활 에서 실천한다.	정직한 삶의 태도를 습관화 하고 친구도 동참하도록 권유한다.	정직한 삶의 가치를 알고 신뢰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자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 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바른 생활습관을 기른다.	가정과 사회규범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고 성실 하게 행동한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다양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지적 역량	통합	주변 사물을 연결하여 생각한다.	학습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서로 관련지어 생각한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탐색한다.	다양한 현상과 복잡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여 해결한다.
	창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즐긴다.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창조적 능력을 기른다.

3. 역량 기반 유아교육의 과제

미래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때,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유아기는 인생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역량을 갖추는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량기반 유아교육 및 보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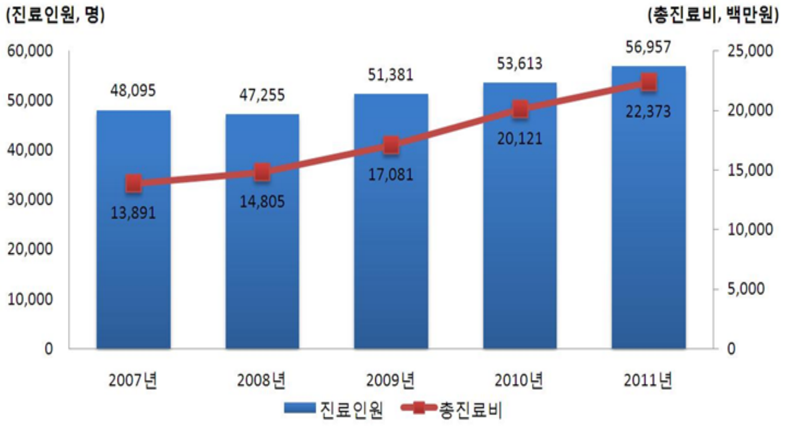
첫째, 기초역량을 다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일평생 동안 필요한 역량들을 유아 때부터 다진다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아기 때 갖추어야 할 기초역량은 무엇보다 튼튼한 몸과 튼튼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신체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을 개발할 때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을 볼 때, 신체적 역량과 정신적 역량 개발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체력을 사례로 살펴볼 때, 우리 학생들의 체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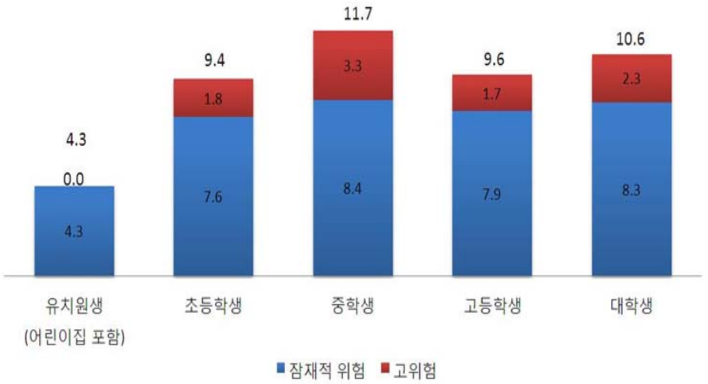
〈그림 18〉 중고등학생들의 체력 (오래달리기)

정신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지기 보다는 나빠지는 경향들이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 장애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소아 · 청소년 주의력결핍 장애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추이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아,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 중독률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20〉 2011년 학령별 인터넷 중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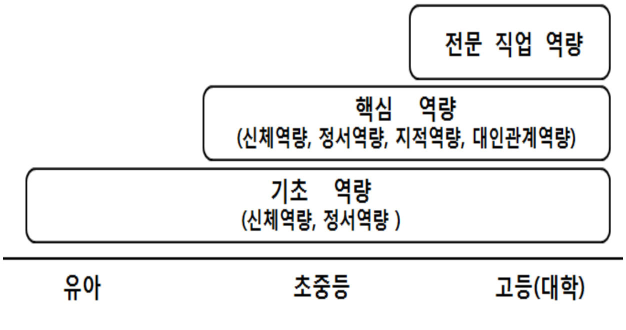
둘째, 공동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개인적 성취와 학습역량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였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역량은 뛰어나나, 다른 역량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고 협력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인성과 사회성 교육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 역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취약 역량을 발견하고 교육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유아 역량 점검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지원 학회 차원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원에서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아 역량 검진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유아역량 검진표 (학회 수준, 기관 수준, 개별 학생 수준)

대영역	소영역	상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신체 역량	운동					
	체격					
	영양					
정신 역량	정신건강역량					
	긍정적 자아역량					
지적 역량	창조적 역량					
	학습역량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역량					
	협동력					
	갈등해결역량					

넷째, 유아 단계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유보통합'과 더불어 '유・보・초 연계'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향후 초중등 교육과정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리모델링되어 개발되면 이러한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역량의 연계적 관점

다섯째, '유아 역량'이 잘 개발되기 위해서는 '육아 역량'이 중요하다. 유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량 개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학부모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학부모 교육 역량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홍렬(2006). 메가트랜드, 미래, 그리고 교육.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교육부 · 고용노동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 국제성인역량(PIAAC) 보고서.

김기헌 외(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외(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외(2010).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동일 외(2009). 대학 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Vol. 10, No. 2, pp. 195-214.

김창환(1997). 코메니우스의 유아교육 사상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17권 2호.

김창환(2013). 신규인력 공급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김창환 외(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김창환 외(2012). 한국의 핵심 교육지표 · 지수 개발 연구(I): 교육정의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외(2013). 한국의 핵심 교육지표 · 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외(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한국교육개발원.

나정(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 한국교육개발원.

대국광역시교육청(2014). 대구유아교육계획.

류성창 외(2012). 역량 중심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2010). 2020 미래교육보고서. 경향미디어.

유현숙 외(2002).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이강주 외(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이광우 외(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광우 외(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외(2012).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의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삼식 외(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2011). 인구변동과 교육. 미래 교육 쟁점 발굴 토론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이재열(2011). 한국사회의 트랜드를 읽는다. 미래 교육 쟁점 발굴 토론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장명림(2011a).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한국유아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장명림(2011b). 만5세 공통과정의 추진 배경과 과제.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유아교육 현안. 제 35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및 연수 자료집.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 영유아교육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조사 결과. FIP-2008-0013(통권 제 110호, 2008.7.15).
조셉 나이 외(2010). 2020 대한민국, 다음 십 년을 상상하라!. 랜덤하우스.
차문중(2011).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미래. 미래 교육 쟁점 발굴 토론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최승현 외(2011).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정윤 외(2009)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Ⅰ) - OECD AHELO 사업 참여를 위한 실천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1).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현황과 과제. 2011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엄.
한국정보화진흥원(2010a).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랜드.
한국정보화진흥원(2010b).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ICT 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미래연구 백서.
홍원표 외(2010).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 연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naniadou, K./ Claro, M.(2009). *21st Century Skills and Competences for New Millennium Learners in OECD Countrie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41
Campbell, F.A., Ramey, C.T., Pungello, E.P., Sparling, J., & Miller-Johnson, S.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Young adult outcomes from the Abecedarian projec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 42-57.
Deutscher Bildungsrat(1974). *Zur Neuordnung der Sekundarstufe II*. Stuttgart.
Heckman, J. J., Masterov, D. V.(2007). *The Productivity Argument for Investing Young Children*.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2005).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IEA(2010). *Initial Findings from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KDI(2010). 미래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 발전 전략.
KMK(2000). *Vereinbarung zur Gestaltung der Gymnasialen Oberstufe in der Sekundarstufe II*.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OECD(각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2002). *Definition and Selection for Competences (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 Strategy Paper*.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OECD(2006). *Starting Strong(II).*

OECD(2009). *Pension at a Glance.*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OECD(2011). *How's Life?*

OECD(2011).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한국어 번역본). 한국개발연구원.

Padgogische Leitideen Rahmenplan fur die Primarstufe(2004).

Roth, H.(1971). *Paedagogische Anthropologie. Band 2. Entwicklung und Erziehung.* Hannover.

Rutherford, J.(2004). *Key Competencies in the New Zealand Curriculum: A snapshot of consultation.*

Rychen, D. S./ Salganik, L. H.(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Hogrefe & Huber.

Rychen, D. S./ Salganik, L. H.(2003). *Key Competencies-For a Successful Life and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 Huber.

Rychen, D. S./ Salganik, L. H./ McLaughlin, M. E.(Ed.)(2003). *Contribution to the Second DeSeCo Symposium.* Neuchatel.

Trilling, B/ Fadel, C, 한국교육개발원 역(2012). 21세기 핵심 역량.

Weikart, D.(1964). *Perry Preschool Project Progress Report.*

주제강연 Ⅰ

유아교육에 있어서 성격의 역할

김영훈(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유아교육에 있어서 성격의 역할

김영훈(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

기질이란 일종의 행동 스타일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가 반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질은 뇌의 정보처리 방식이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의 기질을 알고 있다면 아이를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질의 형성에는 이성의 뇌인 대뇌피질, 감정의 뇌인 변연계, 본능의 뇌인 뇌간까지 모두 관여하지만 변연계의 민감도가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위험에 처했을 때 작동하는 편도체의 반응 정도에 따라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극이 강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 기질에 있어서 좌우뇌의 차이가 있는데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는 긍정심과 연결되어 있는 좌측 전두엽이 발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예민한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우측 전두엽이 발달한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루이스 슈미트 교수 팀에 의하면 순한 아기들은 뇌의 좌측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는 반면 화를 잘 내고 까다로운 아기들은 우측 전두엽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DRD4 유전자도 달랐다. 이 유전자는 뇌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로 스릴 추구, 집중력 부족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좌측 전두엽이 더 활성화된 아기들 중 DRD4 유전자가 긴 아기들은 얌전하고 달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측 전두엽이 더 많이 활성화된 아기들 중 DRD4 유전자가 긴 아기들은 가장 달래기 힘들고 성장하면서 집중력 문제로 고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1) 어떻게,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여부에 따른 활동수준, 2) 먹고 자는 것이나 배뇨하는 것의 규칙성, 3) 새로운 음식, 장난감이나 사람에

게 접근하는가 회피하는가 여부, 4) 바뀐 환경에 대한 적응성, 5) 얼마나 힘차게 반응하는가와 같은 반응의 강도, 6)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자극의 강한 정도인 반응민감도, 7) 유쾌한, 즐거운, 다정한 혹은 반대로 불쾌하고 짜증을 내는 것과 같은 기분의 질, 8) 별 관계가 없는 자극에 의해 쉽게 행동이 방해 받는지 여부에 따른 주의산만도, 9) 방해를 받아도 얼마나 오랜 동안 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따른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있으며, 이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기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순한 아이(easy child)

순한 아이는 신체의 리듬이 규칙적이어서 잠자고, 먹는 것이 순조롭다. 새로운 음식도 잘 먹고, 낯선 사람에게도 잘 다가가고, 커서 학교생활도 잘 적응한다. 낯선 상황에도 스스로 접근하고 새로운 환경에도 쉽게 적응하며 변화에 대한 반응의 강도도 그리 높지 않다. 욕구가 좌절되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으며, 규칙을 배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대개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표현이 많다. 통계적으로는 40%의 아이들이 순한 아이이다. 부모는 순한 아이를 키울 때 적은 노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있고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순한 아이도 환경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 행동을 보인다. 순한 아이는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별로 떼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요구가 무시되기도 하고 부모가 더 까다로운 아이에게만 신경을 쓸 가능성도 있다. 또 순한 아이는 자기주장이 강하지 못하고 쉽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순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데 익숙해져 자기 결정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아이의 자율성을 확대 시켜주고, 자기 결정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까다로운 아이(difficult child)

까다로운 아이는 먹고 자는 것이 불규칙하다.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낯선 상황에서는 쉽게 위축이 되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작은 변화에도 강하게 반응한다. 욕구가 좌절되면 심하게 울거나 떼를 쓰며, 이를 달래기가 쉽지 않다. 평소에도 칭얼대는 등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친다. 전체 아이들의 10% 정도가 까다로운 아이이다.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부모의 힘이 많이 든다. 까다로운 아이를 부모의 스타일에 억

지로 맞추려고 하는 경우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는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말썽을 부리는 것에 화를 내기도 하며, 지나친 반항에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아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까다로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주 확실하며 자기 결정력도 빠르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아이는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먼저 아이의 요구와 바라는 것을 인정해 준 다음 현재 상황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 후에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3) 느린 아이(slow to warm up child)

느린 아이는 먹고 자는 것이 규칙적이다. 긍정적인 감정표현이 있지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순한 면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움츠려 들며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언뜻 보기에는 까다로운 아이와 비슷한 것 같지만, 변화에 대한 반응의 강도는 약하다. 활동성이 낮고 반응시간이 느리다. 느린 아이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신중하기 때문에 실수는 잘 않는다. 전체 아이들의 15% 정도가 느린 아이이다. 부모는 밥 먹기나 옷 입기 등 일상적인 행동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화를 내기가 쉽다. 또한 부모는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자기 아이가 너무 발달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한다. 느린 아이는 유아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자라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킨다. 특히 낯선 상황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성급한 부모는 아이에게 빨리 적응하기를 강요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 적응속도가 더 느려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부모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시키려면 부모 뜻대로 빨리 따라오지 못한다. 강요할수록 아이는 더욱 거부적이 된다. 느린 아이는 변화를 겪을 때 서서히, 반복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시간제한을 두지 말고, 부모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느린 아이는 신중해서 익숙해지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곧 잘하기 때문이다.

(4) 분류하기 어려운 아이

모든 아이들이 이런 세 집단 중 하나에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기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35%의 아이들은 세 가지 기질 어느 것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기질을 이해하는데 명심하여야 하는 것은 기질은 좋은 기질이나 나쁜 기질로 나누

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질이 다양하므로, 부모는 아이의 기질을 알아서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 양육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느린 아이인데 부모가 까다롭게 군다면, 아이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키우지 못하면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다. 아이의 기질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할 경우, 아이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떨어진다. 아이의 기질을 인정하고 기질의 장점을 살려 주면서 조화로운 성격으로 발전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숙고형 아이 vs. 충동형 아이

유아 시기의 아이는 크게 숙고형과 충동형으로 나눈다. 숙고형인지 충동형인지의 판단은 아이의 반응 시간과 오답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반응 시간이 평균보다 느리고 오답수가 평균보다 적은 아이는 숙고형, 반응시간이 평균보다 빠르고 오답수가 평균보다 많으면 충동형이다. 따라서 숙고형은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실수를 잘 범하지 않는 반면, 충동형은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실수를 범하기 쉽다. 실제로 숙고형 아이와 충동형 아이는 판단하는 방법, 생활하는 방법, 놀이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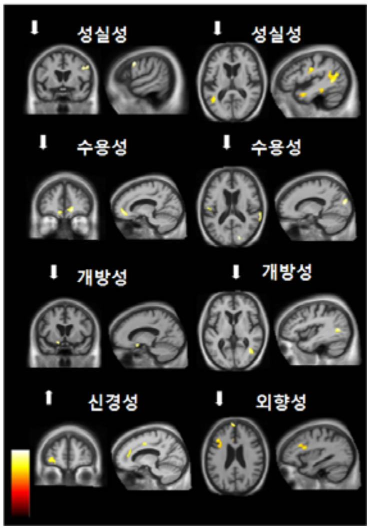
- 숙고형 아이는 충동형 아이보다 기억 과제나 읽기 과제 성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추리 과제, 인지 과제, 학습 과제에서도 우수하다.
- 숙고형 아이는 자기의 생각이 적절한지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를 잘 하지만, 정보가 많은 만큼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숙고형 아이는 친구와의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며, 낯선 환경을 불안해하고,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충동형 아이는 실외활동이나 단체놀이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 놀이를 할 때 숙고형 아이는 모험적이거나 위험한 놀이를 싫어하지만, 충동형 아이는 모험적이거나 전신의 움직임을 이용한 놀이를 즐긴다.
- 블록놀이를 하는 경우 숙고형 아이는 놀이 시작 시간은 늦지만 일단 시작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반면, 충동형 아이는 바로 놀이를 시작하지만 몇 개의 블록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단순한 내용의 작품을 만든다.

- 일정 시간 동안 그림을 보여준 후 질문을 하면 숙고형 아이는 그림 속에 나오는 사물을 잘 기억해 내지만, 그림의 주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충동형 아이는 그림 속의 사물은 많이 기억해 내지 못하지만, 그림의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도 숙고형 아이는 충동형 아이보다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선호하여 일단 시작한 게임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집중력이나 인내력도 강하다. 반면 충동형 아이는 난이도가 있는 과제 수행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학습무기력에 빠져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욕구나 인내력이 약화될 수 있다.
- 숙고형 아이는 과제를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충동형 아이는 세세한 부분보다는 과제를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보려고 한다.
- 숙고형 아이는 충동형 아이보다 조직적으로 반응한다. 그림을 고르는 과제에서 숙고형 아이는 먼저 두 개의 선택 그림을 비교해서 차이를 발견한 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견본 그림을 보는데, 충동형 아이는 견본 그림과 선택 그림을 대충 비교해서 반응해버린다. 또한 숙고형 아이는 비교를 할 때 차이점에 주목하는 반면, 충동형 아이는 닮은 점에 주목한다.
- 숙고형 아이는 과제가 주어지면 자기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과제의 난이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자기의 달성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한다. 그러나 충동형 아이는 과제의 난이도를 과소평가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반응을 한다.
- 확산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반응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충동형 아이가 더 잘한다.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단어를 떠올리는 연상 테스트나 물건의 이용방법을 열거하는 용도 테스트에서는 충동형 아이가 숙고형 아이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이며, 반응의 다양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이와 같이 자유롭고 유연한 발상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는 일반적으로 숙고형 아이보다 충동형 아이가 우수하다.

충동형 아이는 충동형 아이로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환경에 의하여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 설카인드 등의 연구에서는 일본은 충동형 아이가 숙고형 아이가 되는 시기가 8세경이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10세경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아이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아이들보다 약 2년 정도 빠르게 성격이 변화한다는 뜻이며, 이는 신중함, 침착함, 정확성에 가치를 두는 일본 사회의 정서와 교육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대개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감에 따라 아이에게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처하는 행동의 모델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기도 아이에게 신중함을 요구하는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서 충동형 아이가 신중형 아이로 변화하는 것이다. 숙고형 아이는 숙고형 아이대로 충동형 아이는 충동형 아이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자기주장이 허용되고 인정되면, 정서가 안정되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자기통제력이 길러진다. 집중력과 인내력이 요구되는 학교에서는 충동형 아이는 자신감의 상실이나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충동형 아이는 사물에 대한 독특한 시각이나 정보처리방법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장점을 인정하여 충동형 아이의 개성이나 특성에 맞는 교육적 배려를 강구해야 한다.

5대 성격요인



아이의 성격을 만드는 요인 중에는 기질과 같은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어릴 때 경험, 부모와의 관계, 가족구조, 학교생활, 친구관계, 질병 등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구성하는 5대 요인이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수다스러움과 활동성을 반영하는 외향성, 독창성과 예술성을 반영하는 개방성, 협동과 신뢰를 반영하는 수용성, 주의깊음과 빈틈없음을 반영하는 성실성, 걱정과 불안정을 반영하는 신경성이 그것이다. 아이 때 보이는 5대 성격요인은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성인이 되서 결혼, 자녀, 이혼, 주거와 직업 이동 그리고 건강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1) 외향성

외향성은 아이가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친구와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새 친구를 얼마나 쉽게 사귀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는 하지만, 아이가 친구관계를 잘 유지하는지 여부는 외향성이 아니라 수용성이다. 외향성이 높은 아이도 수용성이 낮으면 좋은 친구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외향성이 높은 아이는 게임이나 놀이를 하면 신나게 놀기는 하지만, 다른 아이와 크게 싸우기도 한다. 수용성이 낮으면서 외향성이 높은 아이는 거리낌 없이 다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친구를 무시하기도 하며,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런 행동을 즐기기도 한다. 외향성이 높은 아이는 외부지향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다른 아이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아이는 자기가 한 행동을 자랑하고 널리 알리고 다니며, 일단 일을 저지른 후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수습을 하는 스타일이다.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흥미가 많고 다양해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한꺼번에 여러 활동을 하며, 뭐든지 하겠다고 덤빈다. 외부 자극에 금세 반응하며, 실수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다. 외향성이 낮은 아이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몰두하며, 자기 마음에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린다. 아이는 아주 침착해서, 외적인 자극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할 일을 하고, 과제를 한 가지 맡으면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과제를 하는 이유와, 과제의 내용, 과제의 성과를 알고 미리 예측한 후 행동할 만큼 신중하다. 아이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며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2) 개방성

개방성이 높은 아이는 미래의 사건처럼 오감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보다는 가능성을 추구하며, 추상적, 미래지향적, 창조적인 특성을 보인다. 아이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에 쉽게 싫증을 느끼며,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한다. 새로운 시도를 즐기고,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을 좋아한다. 개방성이 높은 아이는 평소 소란스럽고, 참견하기를 좋아하며, 행동이 부산하다. 참을성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당장 사내라고 떼를 쓰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또한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 교사가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방성이 높은 아이는 수업 시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 공부하다가, 온갖 상상의 나래에 빠지기도 한다. 아이는 내일 당장 시험이 있어도 읽고 싶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아이는 모방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남과 다른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를 즐긴다. 개방성이 낮은 아이는 쉽게 화내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장 가지지 못해도 참을 수 있다. 개방성이 낮은 아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는 정보에 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실제와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어서 세부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고 꼼꼼하다. 개방성이 낮은 아이는 현실을 잘 수용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잘 수행한다. 관례에 따르기를 좋아하고, 일을 처리할 때 절차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을 잘 보는 대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아이는 경험한 것을 끄집어내어 적용하려고 하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3) 수용성

수용성이 높은 아이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다른 아이의 칭찬이나 인정에 크게 기뻐한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부모의 태도나 미소, 요구에 대해서 잘 반응하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아이는 좋고 나쁨이 중요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려한다. 수용성이 낮은 아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때때로 냉정하다 싶을 만큼 원칙을 내세운다. 아이의 관심은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에 집중되어 있으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을 좋아한다.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도 분명하고 간단하게 직선적으로 하려고 한다. 아이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더 집착하며,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부모의 칭찬에 대해서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4) 성실성

성실성이 높은 아이는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경향을 보이며, 퍼즐 맞추기처럼 인내력이 필요한 놀이를 잘하고 성취감을 즐긴다. 아이는 짜여진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고, 지시에 잘 따르며, 빠른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자기 의지대로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며, 정리정돈을 잘하고 일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한다. 미리 기준을 세워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라고 하면 당황한다. 가지고 갈 준비물도 미리 챙겨 놓아야 안심한다. 성실성이 낮은 아이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즐긴다. 아이는 누가 시키거나 명령을 해서 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지 않다가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다. 갑자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순발력 있게 일을 처리한다. 누가 약속을 어겨도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고 여유 있게 넘긴다. 일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마감 시간을 넘겨 주위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성실성이 낮은 아이는 조금만 과제가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해버리곤 한다. 아이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만 뒷마무리에 약하다.

(5) 신경성

신경성이 높은 아이는 수줍음을 많이 타고 겁이 많은 편이다. 새로운 것을 접하면 일단 경계하고 긴장하게 되며, 이런 긴장이 해소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이는 일상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신경성은 부정적인 감정 시스템의 반응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신경성이 낮은 아이는 외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과 자기 내부의 일 모두가 잘 돌아간다고 느낀다. 아이는 현재에 만족한다.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여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아이는 매사에 낙관적이기 때문에 공부에 집착하지 않는다. 아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성격은 전두엽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질을 담당하는 변연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부모는 변연계가 제대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사다. 아이와 스킨십과 감정교류는 변연계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안정화시키기도 한다. 아이가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야 한다.

양뇌를 모두 사용하라

뇌 속에서 기질과 성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좋은 머리나 나쁜 머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뇌의 감수성기에 맞춰 잘 만들어진 건강한 신경회로가 있을 뿐이다. 생각건대, 머리 좋은 아이란 한번 본 책을 줄줄 외우는 아이가 아니라, 상황에 맞

춰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한 것을 구별하고, 친구들과 잘 소통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아이이다. 아이의 감정, 이성, 집중력, 기억력 등이 뇌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최고의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행동도 풍부한 감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아이는 자기의 기질, 성격,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좋은 머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아이의 뇌를 파악하고 뇌를 잘 쓰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두뇌성격은 크게 좌뇌적인 아이와 우뇌적인 아이, 이성적인 아이와 감성적인 아이로 나눈다. 이렇게 두뇌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이다. 초등학교 전에는 주로 우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우뇌성향이 높아지지만 초등학교 시기에는 언어의 뇌인 좌뇌가 주로 발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두뇌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이 때부터 아이의 두뇌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의 성격적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좌뇌적인 아이는 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영역을 나눠 각각 우뇌와 좌뇌라고 하였을 때, 비교적 우뇌보다는 좌뇌의 활성도가 높은 아이이다. 이 아이들의 기질은 특징은 성실성이 높고, 개방성이 낮으며, 외향성이 낮은 편이다. 좌뇌적인 아이는 과제를 할 때 끝까지 밀어붙이며,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고집도 있고, 한번 성공한 적이 있는 확실한 방법을 지속한다. 이루고자 하는 야망도 있고,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한다. 필요하면 희생도 감수하고, 끈기와 참을성도 많다. 성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좌뇌적인 아이는 많이 경험해봐서 익숙한 것을 선호하며, 안정된 환경이나 조직을 좋아한다. 호기심이 적으며, 감정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꼼꼼하고 세밀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잘 짜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고 공부한다. 이는 개방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좌뇌적인 아이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몰두하며, 자기 마음에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린다. 아주 침착해서, 외적인 자극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할 일을 하고, 과제를 한 가지 맡으면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과제를 하는 이유와 과제의 내용, 과제의 성과를 알고 미리 예측한 후 행동할 만큼 신중하다. 아이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며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외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뇌적인 아이는 개방성이 높고, 성실성이 낮으며, 외향성은 높다. 우뇌적

인 아이는 자극적인 모험을 추구하며, 낯선 장소나 상황을 탐색하는 것을 통해 흥분을 느낀다. 정형화된 지루한 과제는 견디기 힘들어하며, 변화를 추구한다. 새로운 생각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열광적으로 몰두한다. 직관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을 다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보상의 뇌가 발달해 돈을 좋아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기도 한다. 개방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뇌적인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종종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 끈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쉽게 마음이 바뀐다. 위축되거나 피곤한 상황이 오면 쉽게 포기한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구가 부족해서 현재에 만족하고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별로 없다. 현실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보상이 중단되면 바로 행동을 그만둔다. 성실성이 부족해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동들이다. 우뇌적인 아이는 외부 지향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다른 아이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아이는 자기가 한 행동을 자랑하고 널리 알리고 다니며, 일단 일을 저지른 후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습을 하는 스타일이다.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흥미가 많고 다양해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한꺼번에 여러 활동을 하며, 뭐든지 하겠다고 덤빈다. 외부 자극에 금세 반응하며, 실수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다. 보상이나 칭찬에 예민하다. 외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의 성격을 말할 때 흔히 "저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야", 혹은 "그 사람 참 감성적이더군."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두뇌성격을 따질 때도 이성적인 아이, 감성적인 아이를 나누어 이야기한다. 좌뇌적인 아이, 우뇌적인 아이는 뇌의 오른쪽과 왼쪽 중 어느 쪽이 더 활성화되는지로 판단한 것이라면, 이성적인 아이와 감성적인 아이는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대뇌겉질이 활성화되느냐, 뇌 안쪽 변연계가 활성화되느냐로 나눈다. 이성적인 아이는 이성의 뇌인 대뇌겉질의 활성도가 높은 아이이고, 감성적인 아이는 감성의 뇌에 속하는 변연계의 활성도가 높은 아이이다.

두뇌성격에 따르면 이성좌뇌형 아이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양적인 것을 중요시한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조직적이고 단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상세하게 챙긴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전체적이고 직관적이며 통합하고 합성한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유대감이 있고 느낌에 따라 판단하며 운동감각적이고 감정적이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뇌 기능을 좌뇌, 우뇌로 나누는 것은 너무 이분

법적인 사고이다. 인간의 뇌에는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위가 있어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양뇌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뇌과학자들은 좌뇌와 우뇌를 모두 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좌뇌는 정보를 쪼개어서 분석하고 우뇌는 그것을 통합하여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이성좌뇌형 아이

이성좌뇌형 아이는 이성적이어서 감정을 자각하는 것이 느리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행동하기 어려워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성실성이 높지만 개방성이나 외향성은 낮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자기 정리와 단련을 통해 자신만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며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던지 먼저 자기의 내면세계를 정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비로소 다른 일을 추진하고 행동한다. 그만큼 아이는 자기의 내면세계를 중요시하고, 그 세계의 질서와 규칙을 강조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일을 계획적이고 충실하게 하며 성실하다. 계획표대로 실천하고 비록 공부의 목적을 몰라도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두뇌성격이다. 아이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며 반복 학습을 좋아한다.

이성좌뇌형 아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성격테스트의 성격형은 다음과 같다.

- 에니어그램 : 제1유형 원칙형 아이, 제5유형 관찰형 아이, 제6유형 안전형 아이
- MBTI : 세상의 소금형(ISTJ), 과학자형(INTJ), 비판적 분석가형(INTP), 차분한 방관자형(ISTP), 임금님뒷편의 권력형(ISFJ)
- TCI : 꼼꼼한 아이: 낮은 새로움 추구, 높은 위험 회피, 낮은 보상 의존
  독립적인 아이 : 낮은 새로움 추구, 낮은 위험 회피, 낮은 보상 의존

감성좌뇌형 아이

감성좌뇌형 아이는 과제도 잘 해결하고 말도 잘하며,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주도한다. 시간 낭비를 싫어하고 급한 일이라도 단계적으로 시간을 맞추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을 좋아한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성실성은 높지만 개방성이나 수용성은 낮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규칙적이고, 규범을 잘 따르는 편이지만 활동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맡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완수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어떤 난관이나 방해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일찍부터 스스로 책임감을 알게 된다. 자립적이고 자기의 의무를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에는 칭찬을 받으려는 강한 욕구도 같이 깔려있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사회에 소속되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학교를 다닐 때에도 다음날 학교가방을 미리 정리해 놓는 등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강하다. 학교에서도 규칙적이고 정돈을 잘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쉽다.

감성좌뇌형 아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성격테스트의 성격형은 다음과 같다.

• 에니어그램 : 제 8유형 보호통제형 아이, 제 3유형 성취형 아이
• MBTI : 지도자형(ENTJ), 사업가형(ESTJ), 스파크형(ENFP), 사교적인 유형(ESFP),
• TCI : 신뢰로운 아이: 낮은 새로움 추구, 낮은 위험 회피, 높은 보상 의존
  조심성 많은 아이: 낮은 새로움 추구, 높은 위험 회피, 높은 보상 의존

이성우뇌형 아이

이성우뇌형 아이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다. 아이에게는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궁금한 것투성이다. 궁금한 것은 하루 종일 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질문을 해댄다. 또한 자기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존재라서 남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자신에게는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규칙을 지키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개방성과 외향성은 높지만 성실성은 낮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거나 가져야 한다. 아이는 이것저것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고, 진득하니 한곳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다, 고집도 세고, 엉뚱한 생각에 골몰하기 때문에,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게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커서 전문직에서 활동하게 되면 비로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 많다.

이성우뇌형 아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성격테스트의 성격형은 다음과 같다.

• 에니어그램 : 제 7유형 낙관형 아이
• MBTI : 발명가형(ENTP) 수완좋은 활동가형(ESTP)
• TCI : 열정적인 아이 : 높은 새로움 추구, 낮은 위험 회피, 높은 보상 의존
모험적인 아이 : 높은 새로움 추구, 낮은 위험 회피, 낮은 보상 의존

감성우뇌형 아이

감성우뇌형 아이는 작은 것에도 눈물을 흘리고 우수에 잠기는 일도 많다. TV드라마나 영화 내용이 조금만 슬퍼도 금방 눈물을 흘린다. 책을 읽을 때도 스스로 줄거리를 만들고 자세한 이야기를 꾸민다. 그래서 책의 줄거리를 말해보라고 하면 책에 없는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이는 백일몽을 많이 꿈꾼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개방성과 수용성이 높고 성실성은 낮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살피지 못하며, 인간관계에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눈길을 끈다. 다른 아이와도 잘 지내고 금방 친해진다. 감정이입을 잘하며 표현이 풍부하고 부모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

감성우뇌형 아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성격테스트의 성격형은 다음과 같다.

• 에니어그램: 제 4유형 낭만형 아이, 제2유형 조력자형 아이, 제 9유형 조율형 아이
• MBTI : 예언자형(INFJ), 잔다르크형(INFP), 친선도모형(ESFJ), 언변능숙형(ENFJ), 성인군자형(ISFP)
• TCI : 예민한 아이 : 높은 새로움 추구, 높은 위험 회피, 높은 보상 의존
폭발적인 아이 : 높은 새로움 추구, 높은 위험 회피, 낮은 보상 의존

아이의 두뇌성격 체크리스트

각 두뇌성격 체크리스트에서 ‘예’라고 대답한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이 아이의 두뇌성격에 해당한다.

이성좌뇌형 아이 체크리스트(유아용)

1.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가?
2. 놀이를 시작하는 시간은 느리지만 놀이에 오랫동안 몰두하는가?
3. 친구와 오랫동안 사귀는가?
4.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는가?
5.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인가?
6. 낯을 가리는 편인가?
7. 표정이 풍부하지 않은가?
8.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가?
9. 또래 아이와 같이 노는 것을 싫어하는가?
10. 물건들을 잘 모으는가?
11. 유치원에서 집중을 잘하는 편인가?
12. 책임감이 강하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정확히 해내는가?
13. 농담보다는 진지한 것을 좋아하는가?
14. 계획표나 시간표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15. 또래 아이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가?
16. 화가 나도 참는 편인가?
17.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편인가?
18. 보육교사나 친구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인가?
19. 위험이 따르는 좋아하지 않는가?
20. 시간을 잘 지키는가?

감성좌뇌형 아이 체크리스트(유아용)

1. 유치원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가?
2. 자신감이 있고 활기가 있는가?
3.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가?
4. 성취지향적인가?
5. 경쟁심이 강하며, 늘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6.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편인가?
7.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가?
8. 남들에게 꾸며서라도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가?
9. 목표를 세우기 좋아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가?
10. 종종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놓치는가?
11. 다른 사람의 비난을 잘 참지 못하는 편인가?
12. 친구를 주위에 모으는 편인가?
13. 다른 아이들을 이끄는 편인가?
14. 남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는가?
15. 욱하고 감정적일 때가 있는가?
16. 부모나 보육교사에게도 고집을 부려 힘들게 하는가?
17. 종종 흥분하고 쉽게 화가 나는가?
18. 자연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좋아하는가?
19. 말이나 행동이 굼뜬 친구를 보면 답답해서 참지 못하는가?
20. 솔직하고 직선적인가?

이성우뇌형 아이 체크리스트(유아용)

1.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가?
2. 명랑하고 낙천적인가?
3. 장난을 잘 치고 산만한가?
4. 풍부한 상상의 세계를 갖고 있는가?
5. 한 군데 가만히 앉아 있거나 지루한 것은 참지 못하는가?
6. 꿈은 많지만 치밀하게 추구하지는 않는가?
7.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갖지 않고는 못 배기는가?
8.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가?
9. 쉽게 좋아하고 쉽게 싫증내는 편인가?
10. 스타의식이 있고, 자기도취적인 면이 있는가?
11. 호기심이 많고 끼가 많은가?
12. 우스갯소리를 잘 하고, 재미있는 일로 친구의 관심을 받는가?
13. 어른들에게 애교를 잘 부리는가?
14. 자신감이 넘치며, 일을 빨리 처리하는가?
15. 야단을 맞아도 조금만 지나면 빨리 잊어버리는가?
16. 새로운 물건을 사 주면 금방 싫증내는가?
17.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이 부족한가?
18. 충동적이고 잘 어지르며 부주의하게 행동하는가?
19. 쉽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가?
20. 독립적인 듯 하지만 곧 의존적이 되어 도와달라고 하는가?

감성우뇌형 아이 체크리스트(유아용)

1.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걱정하며 돌봐주고 싶어하는가?
2. 친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장난감이나 과자를 잘 주는가?
3. 즉흥적인 편인가?
4.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부러 명랑하게 행동하는가?
5.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6. 융통성이 많은가?
7. 부모나 교사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가?
8.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즐기는가?
9.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편인가?
10. 이야기나 춤추기, 노래하기, 그림 그리기 등을 좋아하는가?
11. 물건을 고르는데 까다롭고, 아름다운 것을 수집하려고 하는가?
12. 여리고 섬세하며 감수성이 풍부한가?
13. 상상력이 풍부하며, 새로운 것 만들기를 좋아하는가?
14.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는가?
15. 아이답지 않게 죽음이나 비극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16. 과제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17. 부모에게 안기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좋아하는가?
18. TV나 컴퓨터에 매달려 지내거나 집안에서 빈둥거리는가?
19. 계획이나 일정에 얽매이지 않는가?
20. 무언가 선택할 때는 친구나 어른들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편인가?

두뇌성격별 교육 지침

이성좌뇌형 아이 :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는 감성을 키워주자

잘 먹지 않고 입맛이 까다롭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약 10개월 무렵,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잘 먹지 않는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 자라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고집하며,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컵이나 식기를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또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는다. 특히 피곤하거나 배가 고픈 경우 새로운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달라고 떼를 쓴다. 부모는 평소에는 아이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아이가 기분이 좋고 건강할 때는 새로운 음식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자. 또한 아이가 고기를 싫어한다면 콩이나 치즈를 먹게 하고, 채소와 과일을 싫어한다면 비타민을 보충 해주자. 부모가 아이의 식사 문제로 과도하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한 방식을 고집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강박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보이기 쉽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엄마가 차로 유치원에 데려다주면, 동일한 동요를 듣고 유치원에 가야만 한다. 만약 다른 동요를 들려주거나 아빠가 운전을 하면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자지러지게 울곤 한다. 이런 강박적인 태도는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환경의 변화를 힘들어하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날마다의 일상 활동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짜주어라. 불필요한 변화를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아이를 준비시키자.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아이를 짧게, 그리고 자주 노출 시켜본다.

반항을 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들지 않을 때가 있다. 부모는 아이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 주어야 하지만,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아이에게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 자칫 극단적인 반항을 야기하게 되고, 아이의 반항에 대해 부모도 흥분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기 쉽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모가 급하게 바꾸라고 강요하면 바로 반발해버린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생각을 바꾸려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욕을 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들은 것은 반드시 한 번쯤 말해보고 싶어 한다. 욕도 예외가 아니다. 친구나 TV에서 들은 것을 흉내 내는 정도라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못 들은 척 적당히 넘겨도 괜찮다. 유행어를 따라 하는 것처럼 욕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너무 놀라 걱정스런 표정을 짓거나 꾸중을 하면, 이런 부모의 반응을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해 욕하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 또는 반항심으로 욕을 더 할 수도 있다. 아이가 처음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네가 욕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렇지만 욕하는 것이 습관이 될까봐 나는 걱정이다."와 같이 이 '나 전달법'을 이용해 가르친다. 이 방법으로 부모나 주변사람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이후부터는 아이가 욕을 하든 나쁜 표현을 쓰든 일절 무시하자.

처음에는 거부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처음에는 불편해 한다. 그래서 할 것인지 물어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싫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의 두뇌성격을 잘 이해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초기에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에 놀라기 보다는 아이의 속마음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하고 싶지만 처음이라 낯설어서 일단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가기를 싫어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일반 아이에 비해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되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릴 때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경우,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모와 아이 사이에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는 36개월 이후에 부모와 분리시키거나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에게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주고, 새로운 환경을 미리 많이 노출하여야 한다. 아이가 엄마와의 분리를 두려워한다면 잘 타이르고 '엄마사진'과 같은 시각적인 기념물을 아이의 가방에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스로 복종을 한다

아이를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부모는 아이가 자립하려고 하면 불안해한다. 그

래서 이성좌뇌형 아이의 경우는 부모에게 스스로 복종을 한다. 지배적인 부모는 아이가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아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부모의 요구대로 행동하길 바란다. 그러면 아이는 항상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그것이 아이의 역할이고, 아이는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지배적인 부모는 아이 안에서 겁을 내는 성질을 찾아내어 큰 소리로 비난한다. 불안을 느낀 아이는 안심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한다. 불안을 피할 수 있다면 불쾌해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복종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아이에게 너무 지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친구나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한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친구나 낯선 사람 앞에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긴장을 해서 말을 잘 못한다. 이는 언뜻 보면 언어 문제 같지만 알고 보면 사회성 문제일 수도 있다.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주려면 우선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부터 해야 한다. 가족 간에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에 관심을 갖고 존중해주며 이웃이나 또래들과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해준다.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편안하게 거절하는 방법, 서로 돕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나간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전하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 하는 아이가 있다. 이럴 때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경험한 것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이성좌뇌형 아이는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들과 잘 어울려 노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는 활발한 아이도 있고, 자기가 꼭 대장을 하고 다른 아이를 리드하려는 아이도 있다. 아이는 그런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놀곤 한다. 그러나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법,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 거절하는 법,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법 같은 단순한 기술들은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르칠 수 없다. 감정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는 법은 가르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의 호감을 사는 방법이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달래고 위로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일대일 접촉을 통해 활발한 감정 교류를 하여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한다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물건을 빼앗기고, 심지어 얻어맞기까지 한다면 아무리 이성적인 부모라도 참기 힘들다. 그래서 같이 때리라고 폭력을 부추기거나, 친구하고 잘 놀지 않으면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아이는 자기의 무의식적인 공격성이나 분노, 좌절, 공포 등을 배출할 누군가를 찾는다. 이에 비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저항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다. 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 자신감과 자긍심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에게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역시 자긍심이 생기면 자기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평소에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아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경쟁을 두려워 한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아이하고만 어울려 논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다. 다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많거나 적은 아이하고만 놀다보면 이런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는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아이와 노는 아이는 친구들에게 대등한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기보다 어린 아이하고만 노는 아이도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거나, 의견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에게는 자기 주장을 쉽게 내세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린 아이하고만 놀려고 하는 것이다. 우선 또래 친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런 다음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주어야 한다.

혼자서만 논다

늘 혼자 놀고 혼자 행동하는 아이가 있다. 늘 친구를 그리워하지만 친구를 만들기 힘든 아이이다. 이성좌뇌형 아이의 부모는 지레 겁을 먹고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따라 혼자 놀거나 또는 여럿이 노는 시기가 다르다. 따라서 내 아이에게 단짝 친구가 없다고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은 단지 함께 노는 것에 불과하고 우정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놀이를 많이 알고 있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힘이 세거나,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좀 더 인기가 있는 것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정이 싹트고 마음에 맞는 단짝 친구가 생기므로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 혹시 아이가 자아존중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존적인 성향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 호감이 생기기 쉽지 않으며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도 같이 놀기에 편한 상대는 아니다.

감성좌뇌형 아이: 책임감 있고 자립적 아이, 부모 격려가 '영양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성좌뇌형 아이가 울고 싶어하면 울게 내버려두어라. 아이는 대개 1,2분 정도는 더 크게 운다. 그러나 자기의 아픔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내버려두면 아이는 울음을 그친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게 된다. 아이에게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게 해주는 것이 무조건 막는 것보다 더 낫고, 자유롭게 표현하여야 더 빨리 진정된다. 아이에게 제대로 감정을 느끼게 해주면 자아가 발달하며 긍정심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울음을 많이 참으면 긴장감, 불안,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 "너 아프구나"라고만 말해 주어도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 아이가 기쁨, 슬픔, 고통까지 모든 감정을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격렬하게 표현 한다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유치원에 갈 때마다 울고 떼쓰며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과거에 부모 자신이 아이 떼놓기를 불안해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내색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부모의 눈빛이나 행동에서 불안을 읽는다. 부모의 불안이 전염되면 아이

는 자기가 유치원에 간 사이 엄마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당연히 유치원에 가기 싫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편해야 아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하자. 잠깐 갔다 온다고 말해놓고 1~2시간 후에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부모를 믿지 못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이와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가 재미있는 곳이란 것을 알려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자주 화를 낸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부모에게 자주 화를 낸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엄마가 간섭을 할 때면 쉽게 짜증을 낸다. 부모는 아이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짜증을 잘 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장학습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한 날 저녁에 공부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되도록 아이가 집중력이 좋을 때 공부하도록 하며, 저녁에는 쉬운 활동을 하고 일찍 자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이가 어리다면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데 초점을 맞추자. 부모는 아이가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시간, 낮잠 시간, 잠자리에 들 시간 등에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과도하게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아이가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을 때는 재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 앞으로 일어날 일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있는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서 아이에게 준비를 하게 하자.

바라는 걸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요구 한다

감성좌뇌형 아이가 음식점 등에서 떼를 쓰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이다. 기질적인 산만함도 문제가 되고, 부모의 관심 끌기도 한몫을 하며, 음식점에서의 적절한 행동을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야 한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하여야 하며, 사전에 아이가 이해하도록 미리 설명하고 가르쳐주면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된다. 일단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했다면 규칙을 어겼을 때는 다른 사람 앞이라고 해서 슬그머니 그만두면 안 된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이를 따로 불러내 벌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모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공

장소에서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이에게 너무 오랜 시간 얌전하게 있기를 강요하면 안 된다.

떼를 쓴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떼를 쓸 때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강렬함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다. 아기가 12개월 전까지는 아기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주어도 크게 버릇없는 아이로 키운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아기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기의 안정감 형성이나 애착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나면 달라져야 한다. 일단 떼쓰기가 시작되면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차분한 어조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기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 떼쓰기에는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정해 무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아이에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행동을 일단 무시하자. 혹시 아이가 물건을 부수거나 주위 사람을 때리려한다면 아이의 손발을 잡아 제지하고 조용한 장소로 격리하여야 한다, 아이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초반에 아이를 제압하고, 적절하게 제지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 한다

아이들은 대부분 일이 잘 안되면 부모 탓을 한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이런 부모 탓을 더 심하게 하는 편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낙담하여 쉽게 다른 사람, 주로 부모를 비난하고 탓한다. 이때는 신경질적이고, 불평이 많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심각해 보이고 말이나 행동이 공격적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아이의 불평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부모가 더 개입하게 된다. 아이의 기분은 타고난 기질 때문이지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아이의 기대나 요구를 재점검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칭찬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거짓말을 한다

아이는 만 2~3세부터 거짓말을 시작한다. 거짓말은 거의 모든 아이들의 행동발달 과정에서 예상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면 큰 문제가 된다. 거짓말이 아이에게 습관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달려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능하면 빨리, 아이를 앉혀놓고 정직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스스로 1~2분의 시간을 갖고 아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본 후 아이의 나이와 정직함에 대한 아이의 이해 정도를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 거짓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자. 부모는 가혹한 벌을 준다고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폭력을 휘두른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원할 때 일부러 말썽을 피우기도 한다. 아이에게는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사랑 받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는 모른 척 무시하고 아이가 좋은 행동을 할 때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칭찬하고 격려해준다. 가끔씩 아이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아이의 상한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은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가족내 어려움의 반영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부모가 폭력적이면 아이 뇌의 구조와 신경전달물질이 폭력적인 세상에 적응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하위뇌가 과잉경계, 과잉공격이나 두려움, 또는 과잉방어를 하는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떼를 쓸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안아주고 달래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자상한 반응을 보여주면 아이의 뇌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분노를 조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친구들과 싸운다

감성좌뇌형 아이는 자기의 감정이 매우 고조되면 주위 친구를 때리는 경우도 있다. 아이는 만 3세가 되기 전에는 친구를 때릴 수 있지만, 만 3세가 지나면서 스스로 감정조절을 하기 때문에 친구를 때리는 행동은 줄어든다. 그러나 아이는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차례를 지키지 않거나, 게임의 룰을 자기 위주로 해석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잘 있는 동생을 건드리기도 하고, 친구에게 자기 장난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며,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여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대개 심심할 때, 졸릴 때, 짜증 날 때 심술을 부린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컨디션을 미리 파악하여야 하며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장 못하게 하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형제간에 싸운다

형제간의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이다. 끈기가 없는 아이,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은 아이, 좌절감과 분노를 강하게 표현하는 아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다. 동생이 있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두 아이를 비교하거나 동생을 편애하는 것이다. 동생의 기질이 더 키우기 편안하다고 해서 동생을 눈에 띄게 칭찬하고 형을 야단친다면 형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시기심이 발동할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형제간의 싸움에서는 야단을 치거나 형제끼리 같이 놀도록 유도하지만 대게는 효과가 없다. 부모가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겨우 해결할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면서 아이가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고 사회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유치원에 가기 싫어한다

학기 초에는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단순히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고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나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 밥을 잘 먹지 않거나, 표정이 어둡고 행동이 느려지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오줌을 싸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심한 경우 감기나 중이염, 장염, 비염 등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는 아이도 있다. 이러한 증상은 애착이나 부모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변화된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부모와 떨어져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집이 아닌 낯선 곳에 몇 시간씩 있어야 하고, 늘 내 맘대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규칙이란 것에 적응하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흔히 유치원에 가기 꺼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해소가 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성우뇌형 아이 : 산만한 아이한테 공부의 가치를 알게 하려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앞뒤를 생각지 않고 행동한다. 아이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는 스스로도 깜짝 놀라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미소나 낄낄거리는 웃음으로 대신하

기도 한다. 아이 스스로도 잘못을 알고 있으며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는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사과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취학전 아이들은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따로 아이에게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주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함으로써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반응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사왔더라도 '다음 주부터 가지고 놀 수 있어' 처럼 기다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감정이 격해질 때나, 피곤하고 흥분될 때는 평소보다 충동조절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상황을 예측하여 역할놀이 등을 통하여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산만하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주위가 산만하거나 과잉행동 등 기질적인 문제가 비교적 많다. 산만한 아이들은 단체활동에서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도 있어서 비교적 눈에 잘 띄고 교사에게 혼나는 일도 많다. 부모는 체계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챙겨야 하는데 매일 아이의 준비물을 체크하여야 한다. 산만한 아이는 자기 물건을 유치원에 두고 오는 일이 흔한데, 부모가 유치원에 함께 가서 가져오도록 해 그날 일어난 일은 그날 해결하는 버릇을 들이자.

이성우뇌형 아이의 행동이 어설프더라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말자. 모든 것을 챙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뭐든지 미리 해주다보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주변이 시끄럽거나 부모가 수다스럽거나 집안이 어수선해도 아이가 산만해질 수 있다. 부모의 요구가 아이의 능력에 벅찰 정도로 과도하여도 산만해진다.

위험한 일을 한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매우 빠르게 아무 곳으로나 돌아다닌다. 아기 때에는 소파 윗부분으로 기어 다니고, 책장에 올라가려 하며, 밖에 나가서는 위험한 곳만 기어오르려고 한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갑자기 달려 나가기 일쑤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다치는 일도 많아서 침대에서 떨어지고 돌에 머리를 찧어 상처가 자주 생긴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규칙이나 규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부모는 강하게 아이에게 규칙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더 반항하며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부모는 아이가 미리미리 다치지 않도록 예측하고 대비하여

야 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와 사이가 나쁘다

부모와 아이의 사이가 좋아야 제대로 된 훈육이 가능하다. 부모와 아이의 사이가 좋으면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큰 반발심 없이 따르려고 노력할 것이고, 부모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과도한 기대,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성급함, 아이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훈육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 아이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우뇌형 아이가 조금씩이나마 나아진다면 더 나아지도록 준비물을 잘 챙겼을 때, 마지못해 하는 과제라도 앉아서 끙끙대는 아이의 모습을 아낌없이 칭찬해주어라. 칭찬받는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받을 일을 찾아낼 것이다.

잠자는 것이 불규칙하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비교적 잠자는 것이 불규칙하다. 따라서 아이가 안심하고 편히 잘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아이를 안심시킬 수 있는 부모의 말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를 부모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들려줘도 좋다. 엄마 옷 등 엄마 냄새가 나는 물건을 옆에 놓아주면 아이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침실을 아이가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 아이가 좀 더 크면 함께 침실을 꾸미고 침구와 베개, 벽에 붙이는 그림 등을 고르게 한다.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먹고, 자는 것을 강요하지 말자. 이성우뇌형 아이는 밤중 수유를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밤중수유를 중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천천히 횟수를 줄여가는 방법을 써야 하며, 노리개젖꼭지를 준비하여 보챌 때 물려주면 된다. 또 밤에 얌전하게 자기보다는 몸을 뒤척이고 움직이며 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침대에 아이 혼자 재우는 것은 위험하다.

잠이 별로 없다

취침시간이 되어도 눈을 반짝이고 있는 이성우뇌형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같은 취침의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부모가 신체접촉과 함께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잠이 온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마엽이 활성화되면서 침대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고 싶은 운동 충동이 억제된다. 우리 몸은 어둠 속

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므로 취침 시간에는 전등 밝기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차분한 음악을 틀어 긴장을 풀어준다. 취침 두 시간 전부터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주지 않는다. 초콜릿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먹이지 않는다. 아이가 배고파하면 바나나처럼 뇌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해 잠이 오게 만드는 탄수화물 음식을 준다. 스킨십은 엔도르핀과 특히 졸음을 오게 하는 옥시토신 분비를 활발하게 할 뿐 아니라 각성, 체온, 신진대사, 호르몬 농도, 효소 생산, 심장박동, 호흡,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재미있는 것만 추구한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재미있는 것에 푹 빠지는 경향이 있다. 아이는 조금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면 그 과제나 장난감을 포기하고는 쉬우면서도 단기간에 재미를 주는 과제나 장난감에 몰입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기 쉽다. 이성우뇌형 아이에게는 어떤 일을 끝마치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과제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진행해야 아이가 싫증을 내지 않고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다. 또 어려운 과제는 몇 부분으로 잘라서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이루어 낸 조그마한 성취에도 그 과정과 노력에 대해 충분히 칭찬해 주라. 아이에게 재미와 임무 완수가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좋다.

심심해한다

이성우뇌형 아이가 심심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놀이터, 유치원, 스포츠센터, 학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아이들은 지속적인 지시를 원하며 지시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다. 부모의 잘못된 믿음도 한몫을 한다. 부모는 아이가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양질의 시간으로 채워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지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우뇌형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시간을 갖는 여유를 가져야 창의력이 발달할 수 있다. 아이가 심심해하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좋다. 근처 실내 놀이터나 야외공원 등에 자주 가는 것도 좋다. 주말이면 정기적으로 놀이공원이나 과학전시관 등에 데려가서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름 실컷 놀

고 나면 동생을 건드리거나 공부하면 짜증을 부리는 일이 줄어든다. 또한 차분하게 지내며 조금 심심해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주변을 어지르는 일이 많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놀이의 끝은 정리하는 것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자. 다음 단계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의 놀이를 끝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고 논 놀잇감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자. 이성우뇌형 아이가 어지르기를 잘한다면 부모의 생활습관을 점검해 보자. 집 안이 늘 어수선하다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정리 정돈을 배울 기회가 없다. 부모가 솔선수범해 정리 정돈하는 습관을 보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모가 대신 치워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갖고 놀고 싶은 놀잇감이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없어 아이 스스로 불편하고 속상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물건이나 놀잇감을 직접 찾게 한 후 아이와 함께 이것저것 뒤섞여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본다.

거짓말을 한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허구와 사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아이의 시각으로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는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한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지어내는지 감탄할 정도이다. “지영아, 너 이 닦았니?”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성우뇌형 아이는 무심결에 "예!"하고 대답하곤 한다. 그러나 나중에 아이의 대답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부모가 화가 나서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는 사태를 무마하려고 충동적으로 거짓말하게 된다.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갖도록 장려하자. 8세가 지나면 정직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나이이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우선 아이의 기분을 파악해보자. 부모가 화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친구를 돕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다고 설득하여야 한다.

대소변가리기가 늦다

이성우뇌형 아이는 흔히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오줌을 바지에 싸는 일이 많다.

배변하려는 것에 따르는 신체적 암시를 인식하고, 대소변을 조절하는 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24개월 혹은 더 어린 유아들은 때때로 바지에 오줌을 쌀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배변훈련에서 숙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오줌을 싼다면, 부모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아이를 혼내거나 처벌한다면 아이는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자존감도 손상된다. 이성우뇌형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는 부모라면 아이에게 대소변 가리기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동생이 태어나거나 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를 피해 훈련을 시켜야 하며 다른 아이가 대소변가리는 것을 관찰하게 하고, 아이가 충분히 준비된 경우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며 시도하여야 한다.

감성우뇌형 아이 : 표현 풍부한 아이한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정에 심하게 지배받는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상실감이나 실망감을 느끼면 심하게 고통스러워한다. 부모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아이는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면 아이의 고통은 심해진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부모의 불안한 표정이나 초조한 목소리, 긴장된 몸짓을 금방 알아챈다. 부모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자기주장을 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감성우뇌형 아이에게 타임아웃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물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등 응급상황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타임아웃을 오래 하면 아이는 버려진 느낌을 받거나 공포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상황이 정리된 후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갖고 아이의 잘못보다는 그 뒤에 숨은 감정을 찾아내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도움을 요청한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사소한 문제에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때 잔소리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아이에게 미리 이야기 하라. 지금 힘들어하니까 도와주지만 혼자 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바란다고. 아이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 보면 결국 과잉보호로 이어지고 아이는 부모에게 더 의존적이 된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주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초반에 아이가 힘들어할 때만 조금씩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가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일을 조금씩 나누더라도 혼자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

어야 한다. 또한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결과보다는 그 노력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칭찬해 주어라. 아이는 칭찬에 민감하다.

남의 눈치만 살핀다

감성우뇌형 아이들 중에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놀이터와 같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장소에서는 다소 위축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겁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놀 친구를 찾고 있으며 자기를 놀이로 이끌어 줄 친구만 있다면 금방 놀이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놀이에 참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감성우뇌형 아이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는 부모의 안색을 살피곤 한다. 부모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항상 자기의 체험보다 부모의 승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기쁘고 행복하기는 어렵다.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모가 받아들여야만 안도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감정이 좋고 싫음의 양극단을 자주 왕복한다. 조금 좋다거나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완전히 좋다거나 아니면 거의 극단적으로 완전히 망했다라고 느끼곤 한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은 때때로 극단적으로 떼쓰기, 반항, 흥분으로 표현되곤 한다. 또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말을 막 하는데, 간혹 부모나 어른에게도 무례하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는 아이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의 변화를 감안하여 아이가 감정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훈육하여야 한다.

우울하다

감성우뇌형 아이 중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겉보기에는 부지런하고 눈치도 빠르고 어른스럽게 보이고 어리광이 없는 아이이다. 우울증이 있는 아이는 어리광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광을 부리는 일이 없다.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고 나아가 부모를 투정을 받아주는 아이도 있다. 부모가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감성우뇌형 아이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부모를 돌보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에 대한 불안감에서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부모가 자신의 정서적 문제 때문에 아이를 자신의 감정적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경우 아이의 우울증은 심화된다. 부모는 아이를 감정적으로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고집을 부리거나 반항한다

감성우뇌형 아이에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일을 맡기면 못하겠고 한다. 부모는 이런 아이의 태도에 화가 나서 반박하거나 아이를 설득하려 든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는 아이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아이는 앞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기보다는 하기 싫다고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는 반항을 하게 된다. 감성우뇌형 아이들 중에 느린 기질을 가진 아이는 부모가 시간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 주면 고집과 반항은 많이 줄어든다.

규칙을 어기려 한다

감성우뇌형 아이도 규칙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는 혼자서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도움을 얻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어려운 방식을 싫어하고 뭐든지 쉽고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부모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정해 놓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가 편하게 지내려고 규칙을 조금씩 시험해 보고 어기려고 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고 때때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해 주어야 한다.

거짓말을 한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있지 않은 사실을 정말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보통 만 3~5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거짓말은 커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아직 현실과 공상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은 성장하면서 없어진다. 그러나 누가 들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 교사한테 칭찬받은 일이 없는데도 칭찬받았다고 하고, 친한 친구가 없는데도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 등 허풍을 떠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허풍스런 거짓말에는 무관심이 최선이다. 다만 평소에 아이의 행동을 살펴 관심을 보이고 칭찬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한 거짓말,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은 단호하게 야단쳐야 한다.

자기주장을 하지 못한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유치원에서 짓궂은 친구가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가져가도 별 저항 없이 다른 장난감을 찾아서 가지고 논다. 무엇을 가지고 놀아도 금세 적응할 수 있기에, 장난감을 빼앗아 간 친구한테 싸움을 걸거나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다. 간혹 공격적인 아이들이 건드리거나 밀쳐도 조금 당황하지만 짜증을 내거나 울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주장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유치원에서 아이가 가진 장난감을 다른 친구가 빼앗으려 하면 장난감을 꽉 쥐고 '내 거야, 건드리지 마'라고 해야 한다. 또 친구가 괴롭히면 '그러지마, 나 화낼 거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교사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

감성우뇌형 아이가 기쁨에 겨워서 열광할 때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이는 격한 감정을 위험하다고 생각해 감정토로를 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아이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게 하라.

'싫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

부모는 형제끼리 싸움을 하면 몹시 화를 낸다. 그 때문에 감성우뇌형 아이는 모든 공격적인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어렵다. 자연스러운 감정은 없어지고 허용되는 감정, 가져야 할 감정,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으로 지내다보면 자아도 위협받게 된다. 놀고 싶지도 않는데 자못 재미있다는 듯 놀고, 집안일을 돕고 싶지도 않은데 즐거운 듯 돕고,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한다. 부모가 무엇을 요구해도 결코 싫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형제의 행동을 좋게 해석하고,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더 편하다. 게다가 싫다고 거절하면 어쩐지 자신이 무기력해진다. 따라서 부모는 형제의 싸움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자기 탓을 하며 죄의식을 느낀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가족이 아프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모가 싸우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여긴다. 아이는 성인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고 나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할 때도 부모가 자기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부모가 자기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함부로 대

하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소유하지 않아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소유욕이 강한 부모나 지배적인 부모는 아이를 지배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지배적인 부모는 심부름을 해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꾸짖는다. 심부름하는 태도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이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마라.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평소에 느리게 행동하기 때문에 활발하고 거친 아이들이 많은 유치원에서는 다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활동적인 아이들이 아이를 툭툭 건드리거나 같이 놀자고 끌고 다녀 아이가 힘들어하면 좀 더 조용하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유치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또한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를 사귀도록 돕는다면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하기에 더 쉬울 것이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부모가 바쁘거나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인 경우 스스로 알아서 놀거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애어른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려다 보니 자기의 필요나 욕구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다. 부모는 어련히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더 문제가 많고 손이 가는 아이에게로 관심을 옮겨가기 일쑤이다. 아이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부모는 아이의 필요에 대해 자주 물어보고 정기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영훈 저. 〈두뇌성격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

대니얼 네틀 저. 〈성격의 탄생〉

제롬 케이건 저. 〈성격의 발견〉

Carey WB. Normal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oral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Carey WB, Crocker AC, Elias ER, Feldman HM, Coleman WL, editors. Developmental-Behavioral Pediatrics. 4th ed. Philadelphia: Elsevier, 2013:87-93.

주제강연 Ⅱ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영 · 유아역량

이방실(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교수)

한국육아지원학회 2014 춘계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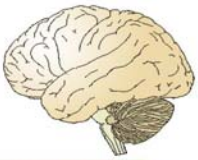
“현대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Ⅱ” : 영·유아 역량강화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영·유아역량

2014년 4월 26일

이방실 (가천대 세살마을연구원)

목 차



- 들어가는 말
-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영·유아역량 이해하기
- 영·유아역량을 강화하는 뇌기반 교육원리
- 뇌기반 교육원리 적용한 영·유아프로그램 사례
- 나가는 말

2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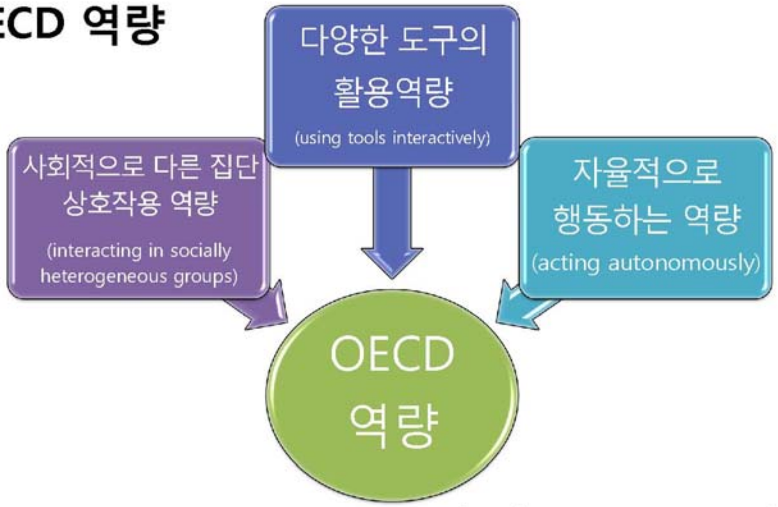
역량(competency)의 개념

기술(skill)과 구분	•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의 복합체이며 능력(abilities) 보다 광범위하고 충분한 개념(정미라, 2007)
능력(ability), 지능과 구분	• 역량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경험,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삶에서 요구되는 능력

따라서, 역량은 12세기 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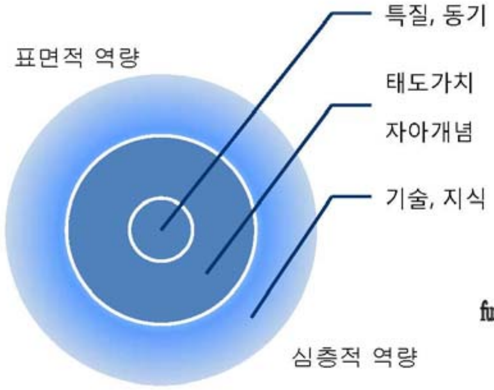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OECD 역량



OECD(2005). DeSeCo project 중에서

역량의 구조



Spencer & Spencer(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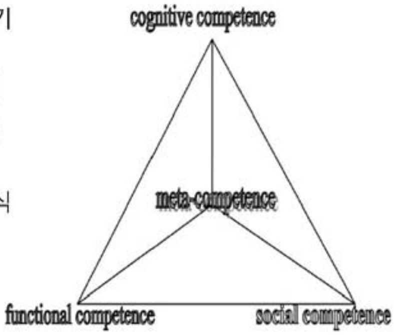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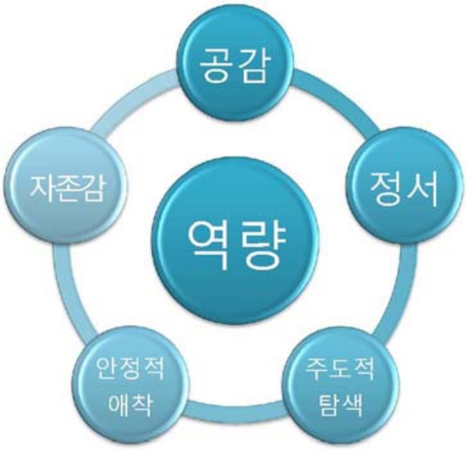


Figure 2. Holistic model of compe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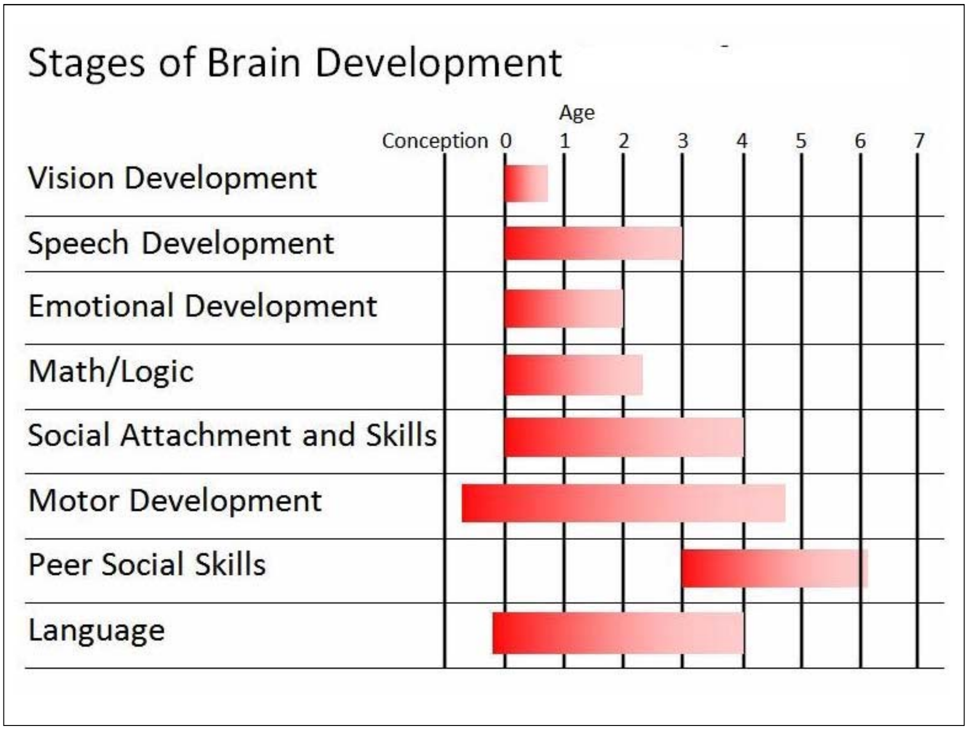
Le Deist & Winterton, 2005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영• 유아역량 이해하기



- 심층적 역량
- 성향관련 역량
- 포괄적 역량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 '뇌를 이해하는 것'은 영유아 역량강화 매우 중요
뇌과학
교육
생애 초기
뇌발달 이해
뇌기반 교육원리
뇌발달에 적합한
유아역량 강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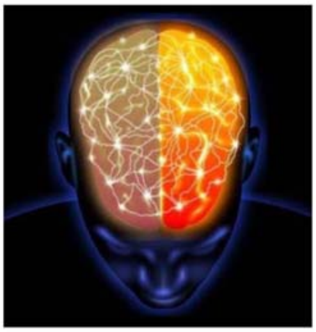

Stages of Brain Development
Age
Conception
0
1
2
3
4
5
6
7
Vision Development
Speech Development
Emotional Development
Math/Logic
Social Attachment and Skills
Motor Development
Peer Social Skills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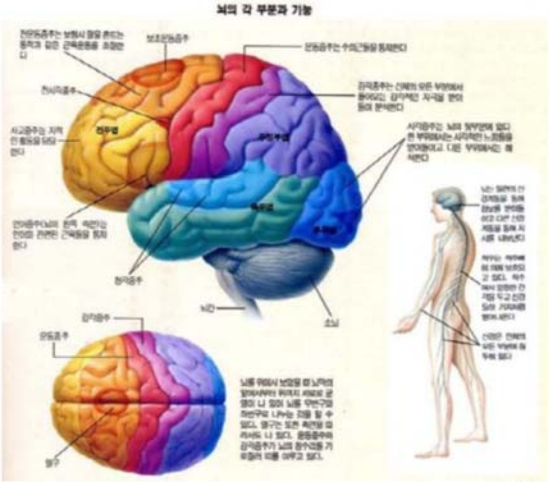
영• 유아역량을 강화하는 뇌기반 교육원리

- 통합의 원리 : 뇌기관은 병렬적으로 정보를 처리
- 개별화의 원리 : 뇌발달은 개인차가 뚜렷
- 주도성의 원리 : 뇌는 개인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기억
- 오감의 원리 : 뇌는 다양한 감각 자극 경험을 기억
- 움직임의 원리 : 감각운동적 활동이 뇌발달의 기초
- 정서의 원리 : 정서가 뇌작용에 중요한 요소
- 반복의 원리 : 뇌신경회로는 반복 경험으로 견고해 짐
- 거울뉴런의 원리 : 뇌는 거울뉴런으로 사회적 학습을 시도
- 상호작용의 원리: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
- 상징의 원리 : 뇌는 언어, 기호, 움직임 등으로 개념을 상징화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통합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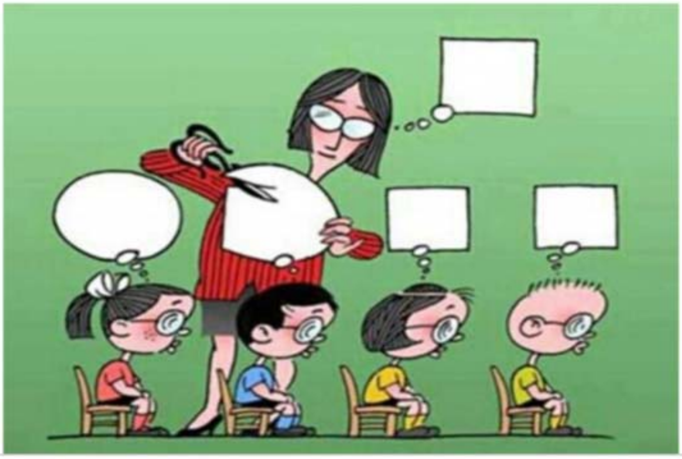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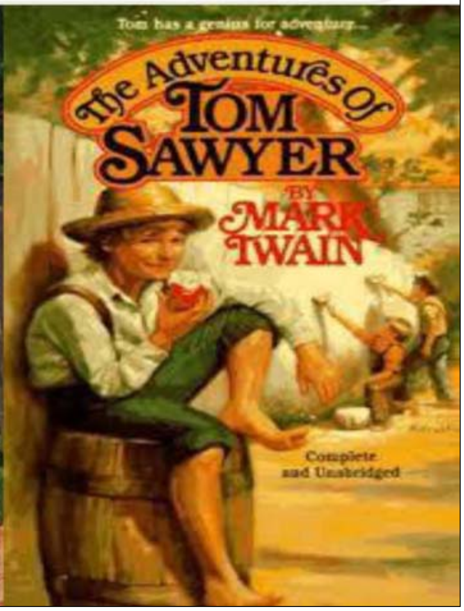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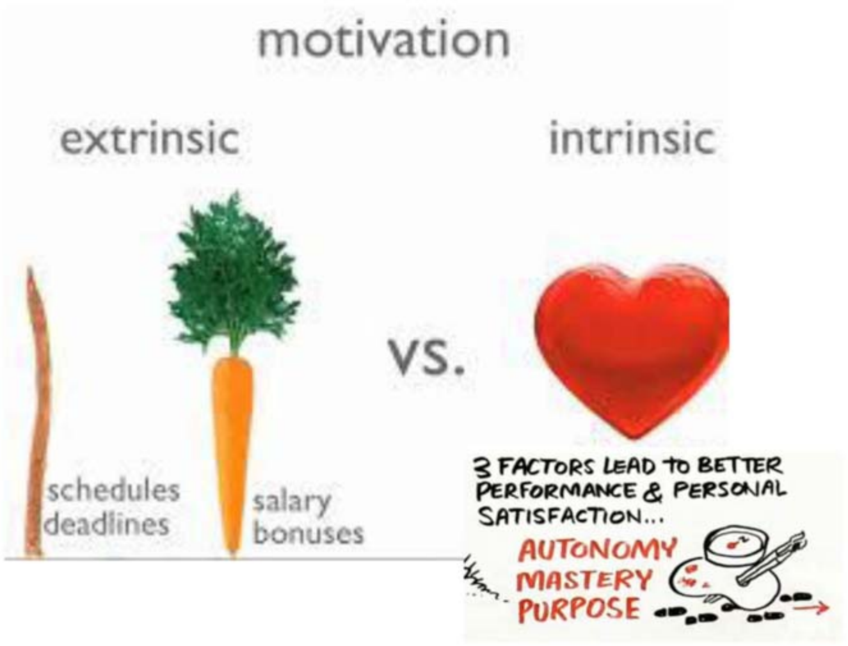
개별화의 원리



11

주도성의 원리 : 톰 소여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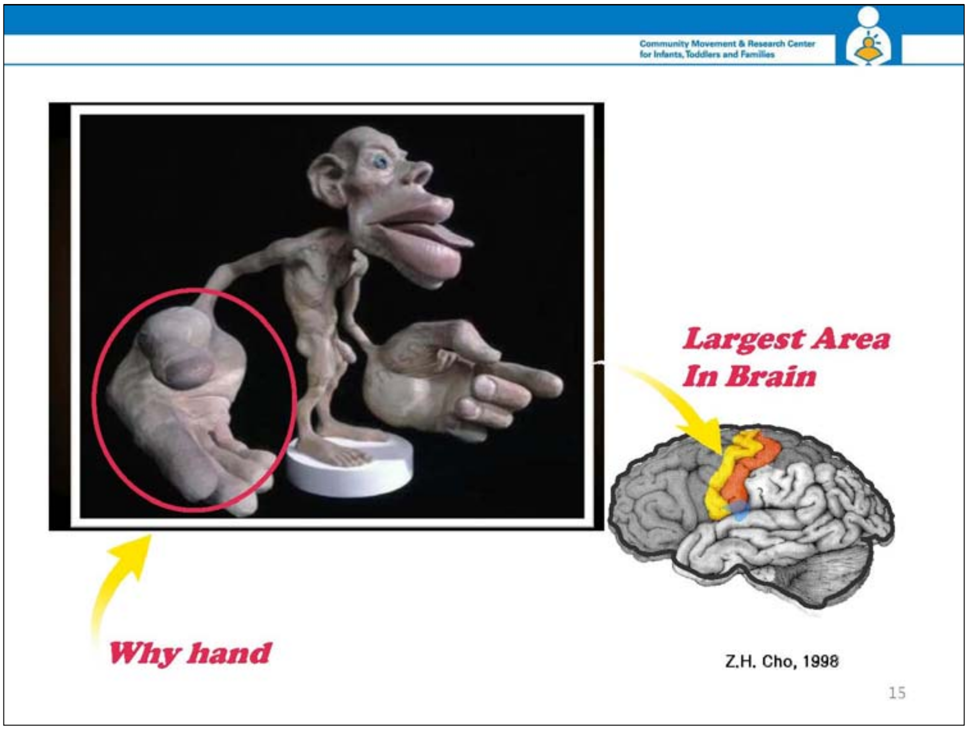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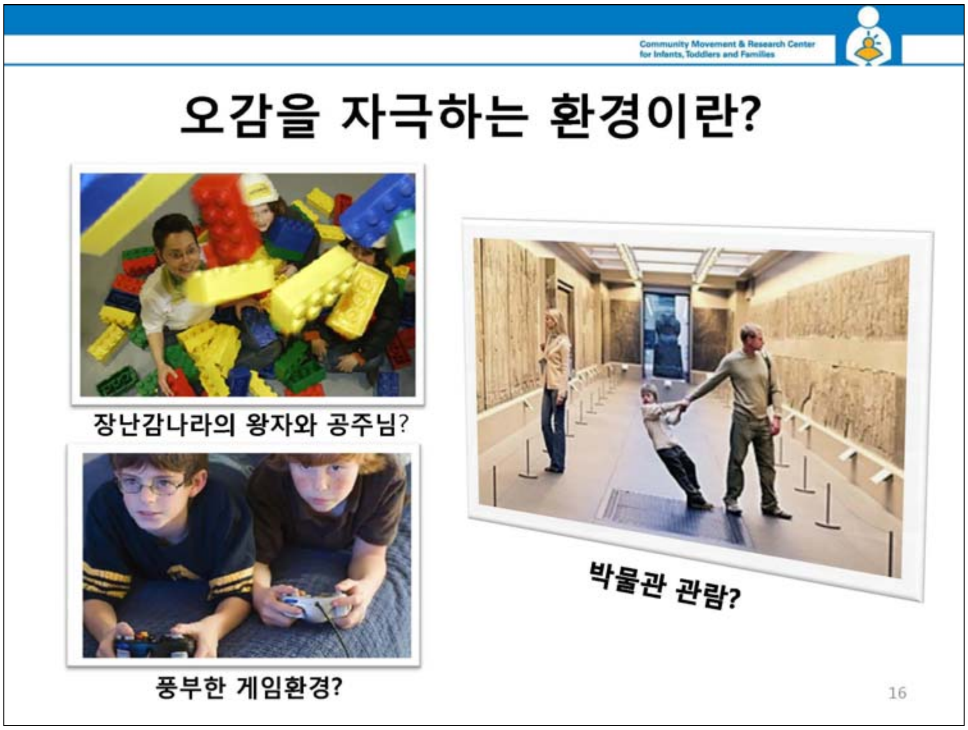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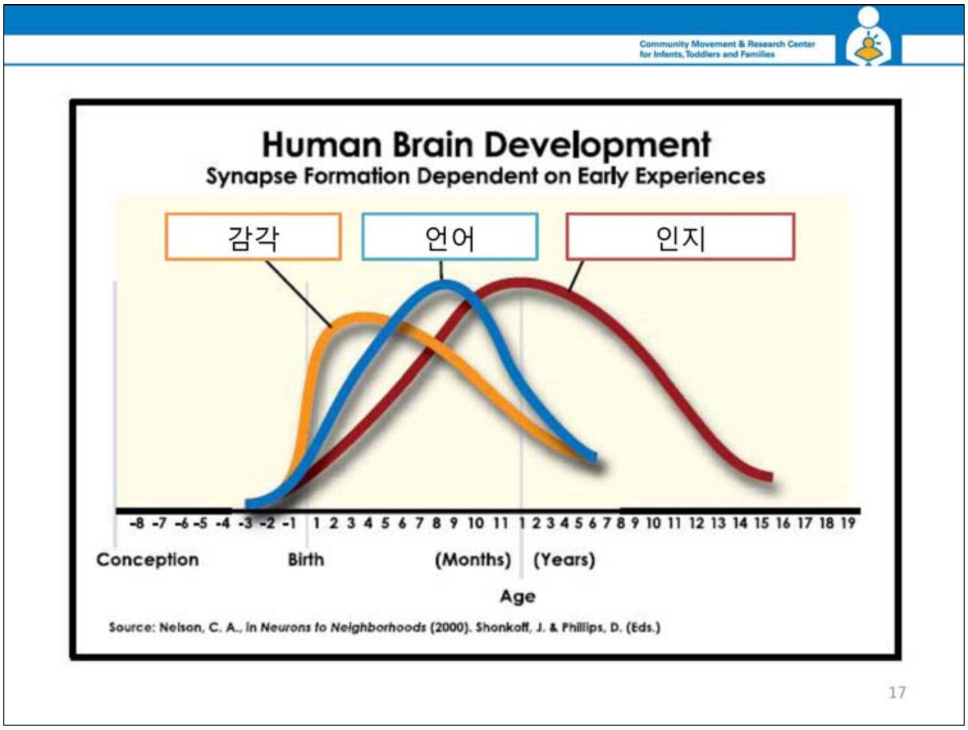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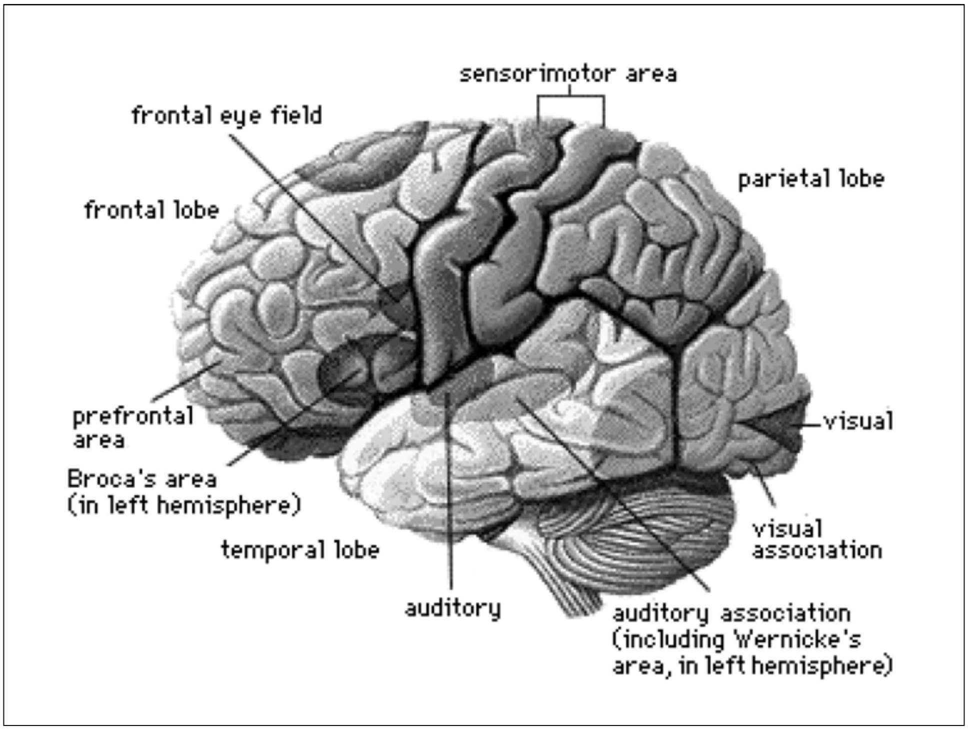
오감의 원리

14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Largest Area
In Brain
Why hand
Z.H. Cho, 199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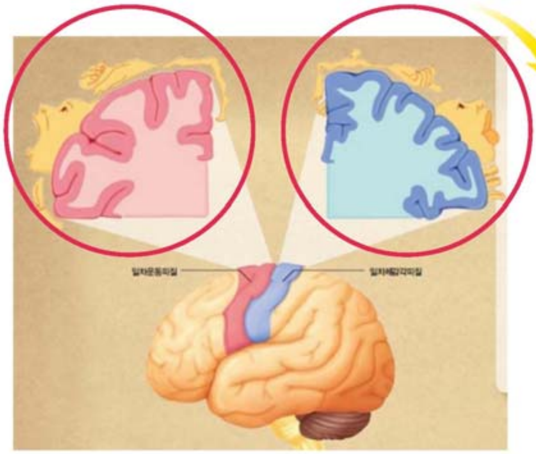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오감을 자극하는 환경이란?
장난감나라의 왕자와 공주님?
풍부한 게임환경?
박물관 관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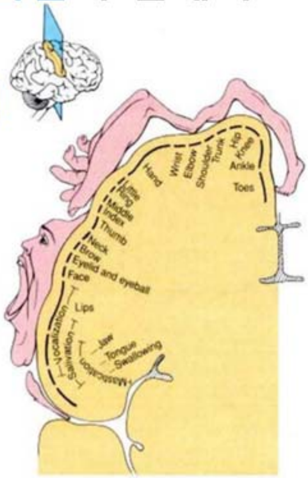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Human Brain Development
Synapse Formation Dependent on Early Experiences
감각
언어
인지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Conception
Birth
(Months)
(Years)
Age
Source: Nelson, C. A., in Neurons to Neighborhoods (2000). Shonkoff, J. & Phillips, D. (Eds.)
17


sensorimotor area
frontal eye field
parietal lobe
frontal lobe
prefrontal area
visual
Broca's area (in left hemisphere)
visual association
temporal lobe
auditory
auditory association (including Wernicke's area, in left hemispher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운동피질의 신체지도　감각피질의 신체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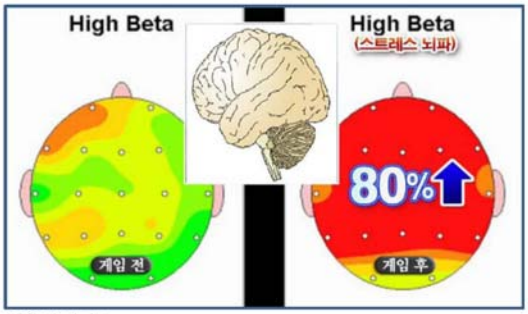
(b) Motor cortex in right cerebral hemisphere

*출처 : http://editthis.info/psy3241/Wilder_Penfield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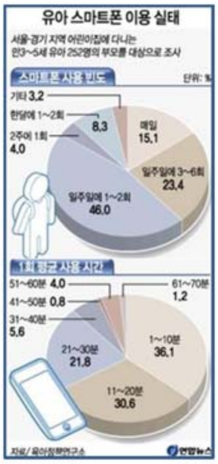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게임 중 일 때 아이들의 뇌는?



출처 : KBS 뉴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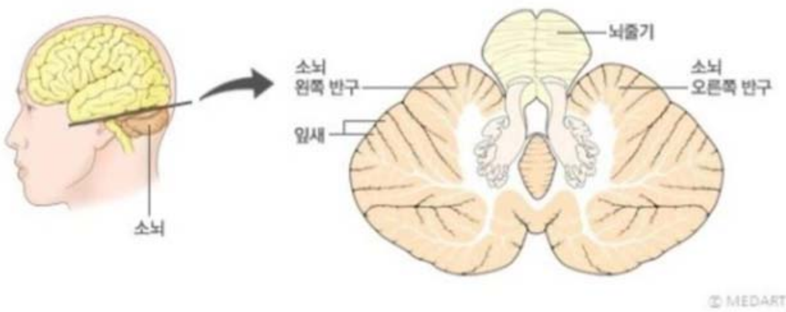
• 인지기능이 나빠지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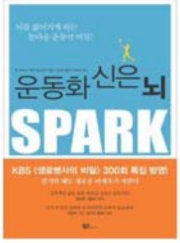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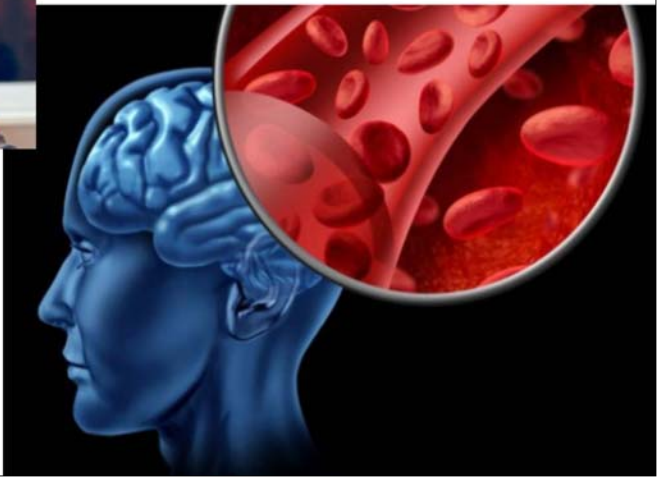
움직임의 원리

소뇌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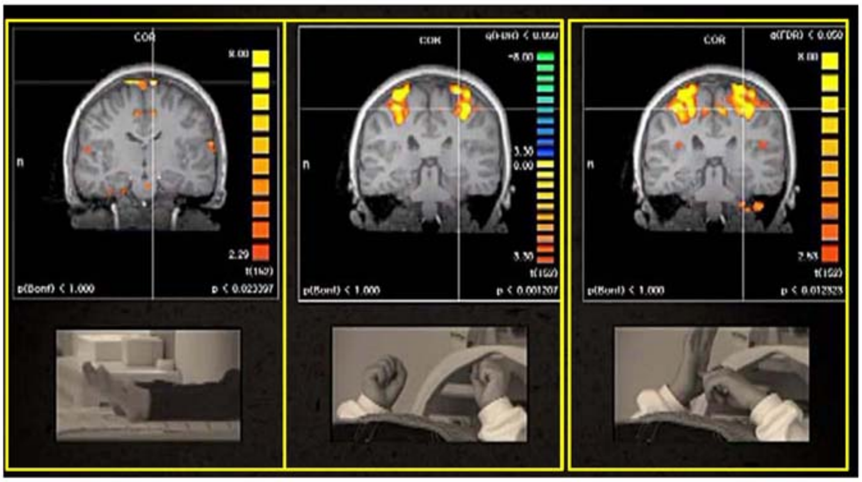
운동과 뇌 혈류량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소근육 운동이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



출처 :가천대학교 뇌과학 연구소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정서의 원리 : 웃음, 칭찬, 음악, 스킨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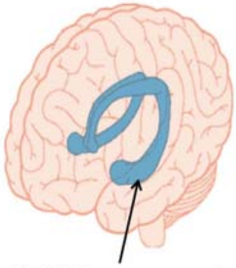
25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스트레스의 영향

- 수태한 어미원숭이가 스트레스에 노출
  → 새끼원숭이의 치상회의 신경발생이 감소함
  (Coe et al., 2003)

치상회(dentate gyrus)
대뇌변연계 해마 내부에
위치하며 기억력 관련기능



해마(Hippocampus)
- 기억관련 기능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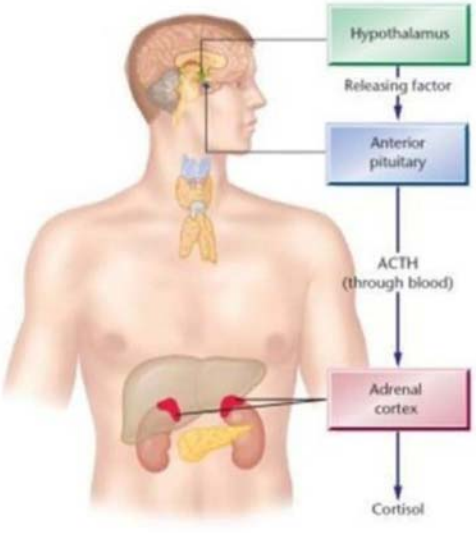
스트레스의 영향

- **임신 중 어머니의 스트레스**
  - 영아의 머리크기와 HPA 반응간에 관계 있음이 나타남
- **태내 또는 생애초기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한 영아**
  (Glover, 1997; Watamura, 2007)
  - 전체 뇌 용량이 더 작음
  - 피질이 더 작고 뇌실은 더 큰 경향
  - HPA 자극 → 코티졸 과잉분비 → 해마 크기 손상과 관계

27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스트레스와 정서



반복의 원리 : 심화 / 반복

1수준
- 여러 가지 종이 탐색하기
- 종이 찢어보기
- 종이 뭉쳐 던지기

2수준
- 여러 방법으로 종이 찢기
- 종이뭉치 바구니에 던져 넣기
- 종이뭉치 물감도장 찍어보기

3수준
- 종이를 작게 찢기
- 가위로 종이 자르기
- 자르고 찢은 종이로 구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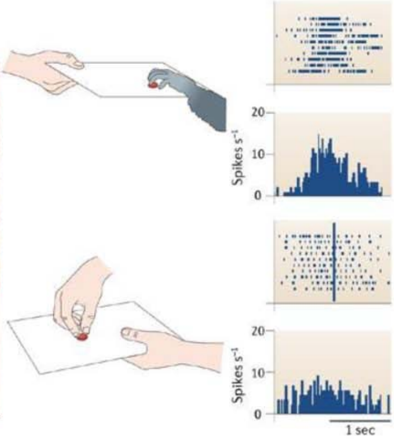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단순반복이 아닌 심화,확장 반복

지난 시간에 했던 종이찢기를 이제야 해봤어요. 색종이를 찢어서
바닥에 늘어놓고는 ' 토끼야 잘봐, 나 스케이트 탄다 ' 하면서 뛰고 넘어지고 .. 색종이 눈을 내려주니 완전 너무 신나합니다. ㅋㅋ

2012. 3. 8 까페 게시글 中

거울뉴런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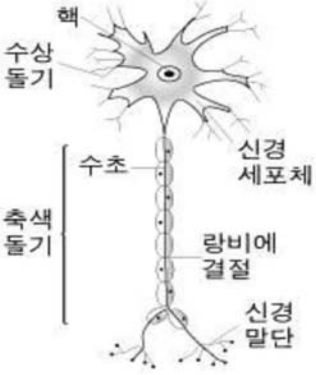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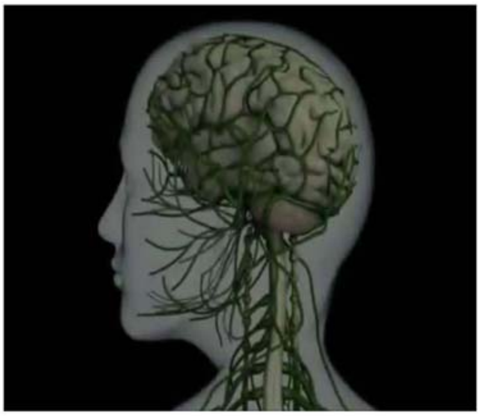
거울 신경세포(mirror neuron)

Copyright © 2006 Nature Publishing Group
Nature Reviews | Neuroscienc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뉴런(신경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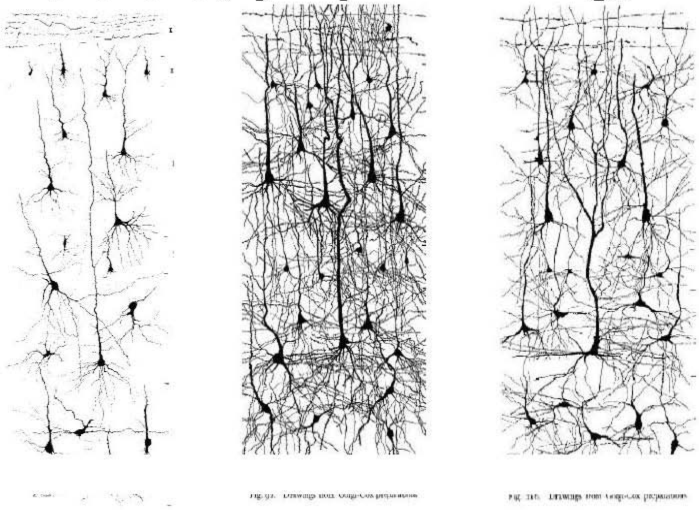


신생아의 뇌
⇒ 가장 많은 수의 뉴런
(인지적 잠재력)

뇌 발달의 Key: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처리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가지치기(Synaptic Pruning)



Birth 2 years 6 Years

33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상호작용의 원리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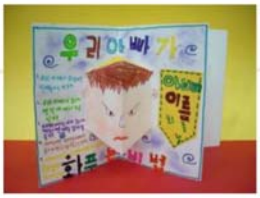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상호작용과 뇌의 학습경험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징의 원리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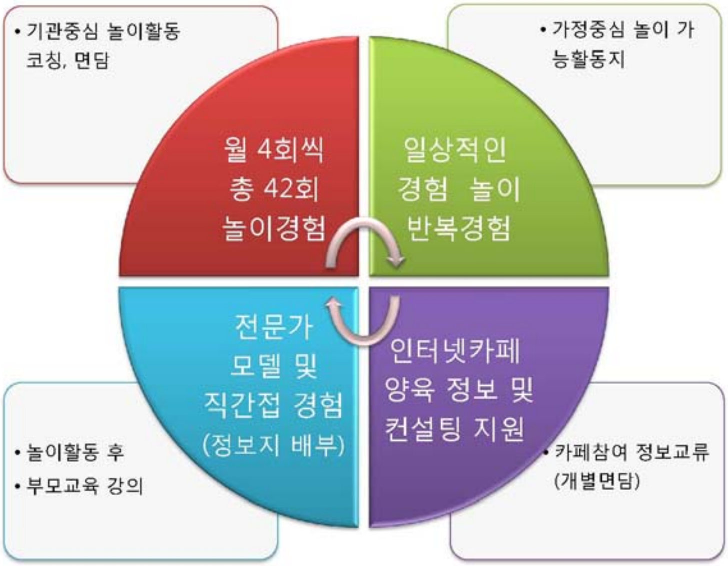
뇌기반 교육원리 적용한 영·유아프로그램 사례

활동 구성
- 10개월간 총 42개 놀이활동
- 1차시 2개 놀이활동 – 총 21회
- 그룹 – 8명 내외(리더교사 1인, 보조교사 2인)

활동 진행
- 놀이재료 탐색 및 놀이 방법에 대한 모델링
-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코칭
- 영아의 개별적 요구와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활동 마무리
- 놀이활동의 뇌발달적 의미 설명
- 뇌발달에 기초한 여러가지 육아정보 및 기술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정미라,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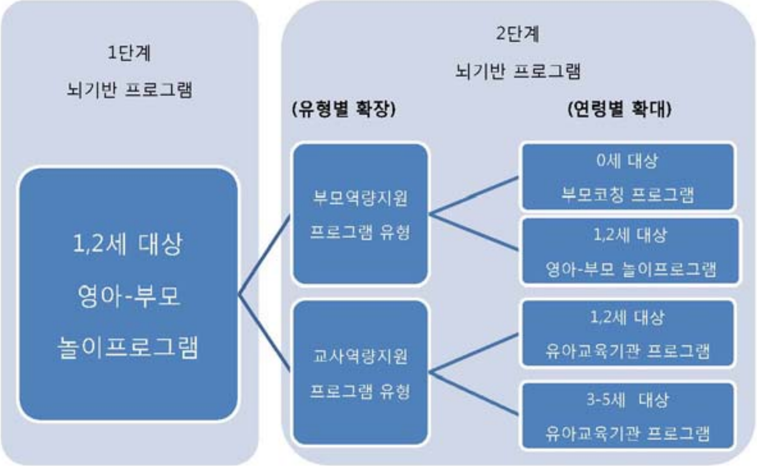
정미라, (2012)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뇌기반 교육원리가 적용된 아기놀이책 출판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뇌기반 프로그램을 확장한 부모 및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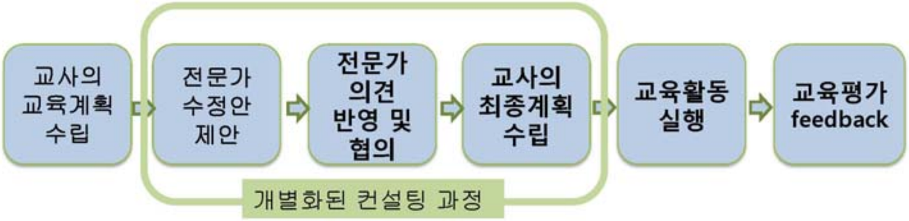


세부과제 1 :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 대상 : 0,1세 영아-부모(130가정)
  중형 연구센터를 통한 대상모집 및 데이터 관리
- 프로그램 운영 : 개별 가정방문 1: 1 양육코칭
  뇌기반 놀이활동 및 상담제공, 소집단 놀이
- 프로그램 투입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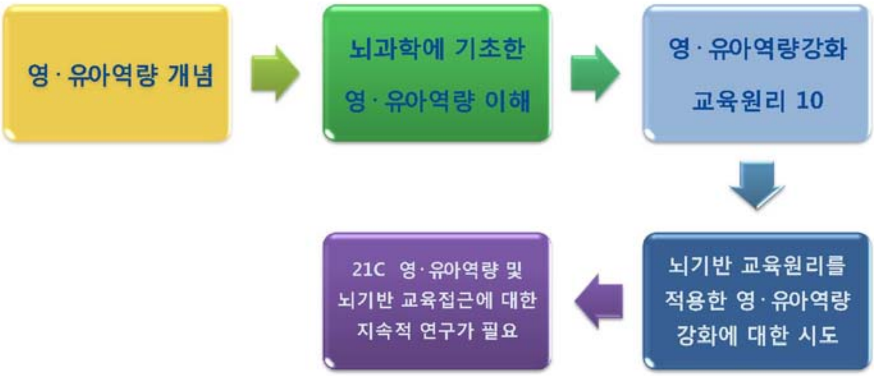
세부과제 2 :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연구대상 : 만1-2세 영아 630명 / 만3-5세 유아 1,800명
  만1-5세 교사 150명
- 프로그램 운영 : 개별화된 교사컨설팅(전문가 확산)
  집단교육, 소규모연구회, 사례발표
- 교사 컨설팅 과정 : 자율적 상호 피이드백 컨설팅 중시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나가는 말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나가는 말

부모의 노력

역량강화

만족지연
자기통제력

안정적 애착관계

교사의 노력

Community Movement & Research Center for Infants, Toddlers and Families

감사합니다

Young Scholar Session (Ⅰ)

❑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이봉자(경북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함영숙(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이봉자(경북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상 모든 것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정보와 맥락을 제공한다. 역사를 통한 전후관계 조망은 모든 학습의 선행조건이며 나아가 유아들이 인간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얻는데도 필수적이므로 순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인 실체를 가지게 된다(Dewey, 1966). 오늘날 유아들은 급속히 변화되는 정보통신문화 속에서 디지털 키즈(digital kids)로 자라고 있다.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오늘이 재생되고 과거도 계속적으로 회고 할 수 있는 다시간성에 직면하였으며, 역사적 이슈와 팩션(faction) 사극 등 실제와 허구의 역사를 동시에 접하게 되었다. 이는 개인의 역사적 감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아기부터 형성된다는 견해(구난희, 2006)와 연계해 볼 때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사고의 발현을 위해 유아들에게 역사적 탐구활동을 제공해야 한다(Levestik & Barton, 2005).

그동안 역사는 유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이명희, 2006; 이혜림, 2008; 장희경, 2007; Hallam, 1970; Peel, 1965)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학 관련 교육가들(Barton, 2002; Cooper, 1995; Hidi, 1990; Levestik, 2005; Maxim, 2004; Melendez, Beck, & Fletcher, 2000; Seefeldt, Dastle, & Falconer, 2009)에 의하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해 유아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2history@hanmail.net

들은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역사적 주제 탐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회과학 분야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리학, 경제학과 함께 유아기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이은화 · 김영옥, 2000). 그러나 유아교육현장 교사들은 역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권경숙 · 배지희 · 곽승주, 2010). 유아역사교육의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유아역사교육과 관련된 직전교육 및 현직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문혜련 · 하경용, 2009; 윤정아, 1998)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역사내용의 비중과 적정화의 문제를 들어 교사교육 실시와 역사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기를 희망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명희, 2006; 이혜림, 2008; 장희경, 2007).

역사는 과거 시 · 공간 속에서 인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실들의 기록을 토대로 역사가가 탐구활동을 통해 해석한 결과이며 역사가의 계속되는 새로운 탐색과 발굴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텍스트이다(김원수, 2004; 양호환, 2003; Sunal, 1990; Wenton, 1999; Wineburg, 1991). 그러므로 유아역사교육은 거시사(macro history)중심의 암기에 치중했던 전통적인 역사교육을 지양하며 과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역사적 사고력(historical thinking) 증진을 위한 역사교육이 바람직하다.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역사교육내용에 대해 연구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핵심개념에 근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한종, 2010; 최완기, 2001; Banks, 1974; Sansom, 1997; Seefeldt, 1997). 예컨대 생활주제 '우리 유치원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유치원이 처음 세워진 때와 그 당시 존재한 사람들, 시설과 물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시간, 과거) 지금도 사용하는지, 다른 것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변화, 연속성, 인과관계) 사진, 편지, 서류, 이야기 등 과거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여 궁금증을 탐구하며(역사가의 탐구방법) 역사적 주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방법 중의 하나가 탐구학습방법이다(Maxim, 2004; NCH, 1995). 이는 유아가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역사자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역사하기(doing history) 교수전략으로 역사가의 탐구과정을 활용하는 것이다(Hexter, 1979; Levstik & Bartton, 2005; Maxim, 2004; NCH, 1995; VanSledright, 2002).

지금까지 유아 대상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역사내용을 통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의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강상 · 윤덕순, 2008; 김혜진, 2005;

유혜자, 2008)와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유아의 발달(김경낭, 2012; 류혜숙・김명화, 2009, 2011; 정지현, 2010)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역사적 주요 인물, 장소 및 사건의 주제를 단편적으로 적용하였거나 역사적 사고력 구성요소의 일부만을 연구에 도입하는 등 역사적 사고력 증진의 결과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유치원의 연간 교육과정 속에서 역사적 사고력 증진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 체계적인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아교육기관에 적용하여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1.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1)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어떠한가?
   2)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가?
   3)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은 어떠한가?
   4)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의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한가?

2.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1)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연대기 파악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역사적 탐구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3)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역사적 상상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4)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역사적 판단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Ⅱ.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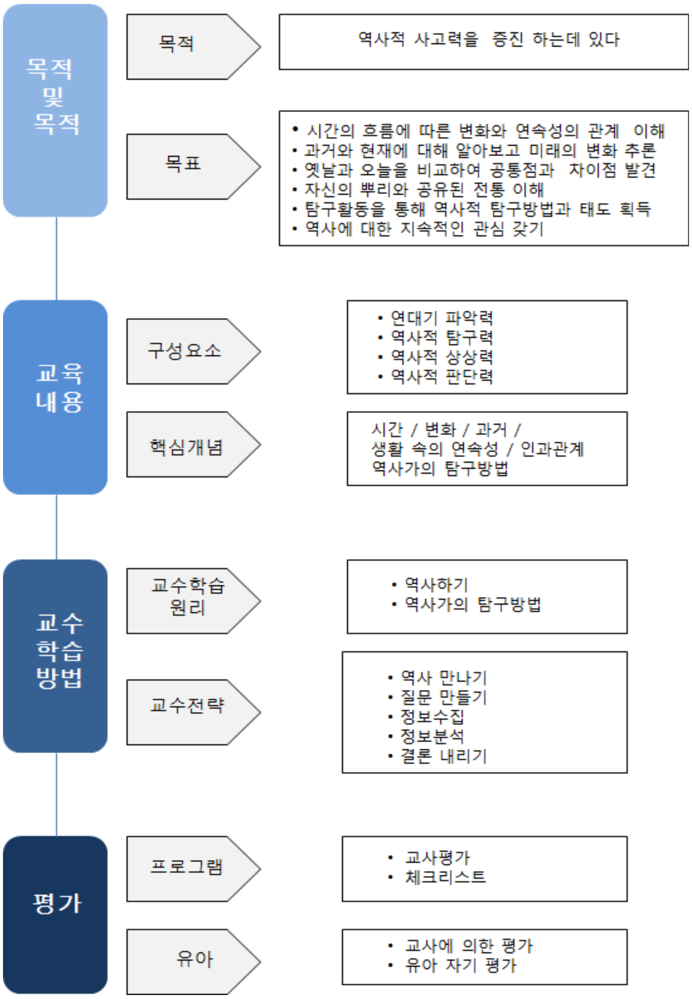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하여 국내·외 역사교육과 유아역사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분석하여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요소 선정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유아교사의 요구를 조사하고자 유치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분석과 현장교사의 요구분석에 나타난 시사점을 통해 1차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고 1차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여 협의에서 도출된 내용은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예비 연구는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4주 동안 실시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차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였으며 2차 전문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과거를 찾아서, 역사의 시작은 나로부터, 세상 모든 것에는 역사가 있어, 나는 역사학자, 역사이해하기와 역사하기의 5단계 교수전략인 역사만나기, 질문 만들기, 정보수집, 정보분석, 결론내리기를 통해 역사핵심개념, 역사적 사고력 구성요소, 활동내용, 활동유형으로 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체계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체계

Ⅲ.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적용효과

1. 연구대상

서울시 N구에 위치한 S유치원의 만 5세 유아 25명(남아 14명, 여아 11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서울시 J구에 위치한 Y유치원의 만 5세 25명(남아 12명, 여아 13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들의 평균월령은 각각

69.25개월과 68.80개월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사도구

최상훈(2000)의 역사적 사고력의 4가지 구성요소에서 18가지 수준별 내용을 선별하고 검사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이봉자(1998), Levstik 과 Barton(2005), Maxim(2004)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3. 적용과정

〈그림 2〉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4. 자료처리 및 분석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dows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5. 결과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연대기 파악력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9.92(SD=1.53),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14.08(SD=0.91)로 4.16점, 역사적 탐

구력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8.48(SD=1.61),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12.76(SD=1.36)로 4.28점, 역사적 상상력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5.32(SD=1.22),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10.16(SD=0.94)으로 4.84점, 역사적 판단력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5.28(SD=1.50),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9.64(SD=0.86)로 4.36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의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구성은 매우 적절하였으며 유아기 역사교육의 적용은 가능하다. 역사적 사실을 암기 하는데 치중했던 전통적인 역사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개념 중심의 역사교육 내용과 역사의 본질을 활용하여 유아가 자신의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역사자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doing history)를 통해 역사가의 탐구방법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아들의 선천적인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아교사의 안목과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아들이 역사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역사적 감각뿐만 아니라 유아 간 상호조정적인 협동이 일어나게 되어 학습에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게 되며 집단에 참여하기, 과제 지속하기, 작업수행을 위한 자료 조직하기 등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들이 증진될 수 있다. 이는 유아역사교육이 타 교과와의 유의한 관련성을 지닌 목표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유아기 역사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둘째, 역사하기와 역사가의 탐구방법의 교수전략은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에 효과적이다. 역사는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되고 연구된 정설일 뿐 역사가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수정되는 역동적인 지식이므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과 사물을 수집, 분석, 결론짓는 역사가의 탐구방법에 의해서만 실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의 본질을 역사교육 내용과 방법에

적용하는 역사가의 탐구과정을 적용하는 역사하기가 최근 역사교과의 교수・학습방법으로 현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 추구하고 누리과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유아역사교육은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토대로 발달수준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이에 따르는 다양한 활동유형들을 적용하여 유아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유아역사교육은 역사적 사고력 증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이는 유아교육의 한 부분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험집단 유아들의 역사사고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실험집단 교사의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교사의 변화를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상, 윤덕순(2008). 향토문화재 현장학습을 활용한 역사교육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379-400.

교육인적자원부(2005). 유아를 위한 역사교육 활동자료.

구난희(2006). 역사의 의미 내면화를 돕기 위한 도입단원의 구성방향. 역사교육 연구, 3, 100-142.

권경숙, 배지희, 곽승주(2009). 유아역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3), 315-339.

김경낭(2012). 동화를 활용한 역사교육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화, 류혜숙(2011). 극화활동을 통한 역사교육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5, 403-422.

김원수(2004). 현대사회와 사회과 교육. 포스트모던 역사학과 초등사회과 역사교육: 가정 이연복 교수 청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국학자료원.

김한종(2010). 역사교육 개념어의 용례 검토. 역사적 사고, 역사해석, 역사인식, 역사의식. 역사교육, 113, 1-36.

김혜진(2005). 의미탐색을 통한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혜숙, 김명화(2009). 위인동화를 활용한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3(5), 331-350

문혜련, 하경용(2009). 유아사회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한국교원교육연구, 3, 439-460.
양호환 (2003). 역사적 사고는 역사교육 이론연구의 최대 주제이다: 역사적 사고의 한계와 역사화의 가능성. 역사교육, 87, 187-211.
이명희(2006). 유아기의 역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실시현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주(2006). 유아 사회 교육의 교수 내용 지식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화, 김영옥(2011).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이봉자(1997). 연표학습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역사의식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봉자(2013).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림(2008). 역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혜자(2006).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국가 정체성형성과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아(1998). 유아사회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개념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현(2010). 자기 주도적 역사교육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희경(2007). 유아역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상훈 (2000). 역사적 사고력의 학습 및 평가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anks, J. A. (1974). *Teaching stretegies for the social sudies*. Masseachusetts : Addison-Wesley Publishng Co., 177
Barton, K. C. (2002). Oh, that's tricky piece ! Children, mediated action, and the tools of historical time. *Elementary School Jaurnal, 10*(2), 161-186.
Cooper, H. (1995). History in the early years. London: Routledge.
Dewey, J. (1996). *Lectures on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Archambault/ Random House.
Hallam, R. N. (1970). *Piaget and thinking in history in martin ballard*. New Movements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Hexter, F. J. (1979). On Historians ; Reappraisals of some of the Masters of Modem History Cambridge, Mass, University press.
Hoge, J. D. (1996). *Effective elementary social studies*. Belmont, CA: Wadsworth.
Levstik, L. S., & Barton, K. C. (2005). *Doing history*. Investigating With Children in Elementary and Milddle Schools (3th ed.)
Maxim. G. W. (2004). 살아있는 사회과 교육[Dynamic social studies for elementary classroom (7th ed.)]. 최용규, 외.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3년에 출판)
Melends, W. R, Beck, V., & Fletcherl, M. (2000). *Teaching social studies in early education*. Albany, NY: Delmar Thomson Learning.
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the School. (1994). *National standards: History for grades K-4*. Los Angeles,

CA: 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the Schools.

Seefeldt, C. (1997).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er-primary child(5nd ed.).* Upper Saddle River, NJ : Merrill.

Seefeldt, C. (2005).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

Seefeldt, C., Dastle, S., & Falconer, R. C. (2009).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Sunal, C. S. (1990). *Early childhood social studies*. Colunbus Ohio; Merrill.

VanSledright, B. A. (2002). Fifth garders investigating history in the classroom; Results from a researcher-practitioner design experiment.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2), 131-160.

Wineburg, S. S.(1991). Historical problem solving; A Study of the Cognitive Processes Used in the Evaluation of Documentary and Pictorial Evid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1), 73-87.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함영숙(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미술은 조상들의 생활감각과 시대정신 속에서 우리의 전통미를 찾아내도록 하여 현대문화 속에서 조상의 슬기와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이혜정, 2003). 또한 전통미술은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다수이며 자연을 재료로 사용하여 사실적 표현에서부터 기하학적 표현까지 여러 가지 미술적 특징으로 자연을 표현하였다(강해정, 2012). 따라서 전통미술을 유아기에 경험함으로써 조상들의 슬기와 정신을 배움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인지능력을 키우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자연은 유아에게 다양한 놀이의 기회를 제공한다(김세진, 2005). 자연에서의 놀이는 유아 간에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Rubin, 1982). 자연과의 지속적인 만남은 유아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함은 물론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이인숙, 2008). 한편 자연에는 다양한 미적 요소들이 발견되는데(이은선, 2002) 유아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연 속에 존재하는 선과 형, 색, 공간, 질감 등을 느낄 수 있다. 현대사회는 자연적 삶의 공간이 축소되어 유아가 자연을 접하고 친해 질 수 있는

---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ham2395@naver.com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박성혜, 2008).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전통미술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심미적 태도를 기르며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유아미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각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강릉시에 위치한 G유치원과 A유치원 만 5세반을 연구대상으로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 총 4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도구

1) 자연친화적 태도 검사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Musser와 Diamond(1999)가 제작한 CATES-PV를 허윤정(2001)이 번안・수정하고 소경희(2007), 이은형(2012)이 일부 보완한 자연친화적 태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2)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 검사

전통문화에 대한 인지와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경화(2002)가 제작하고 백희숙(2006)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 검사를 본 연구자가 질문내용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헌연구, 요구분석, 프로그램 시안개발, 예비연구의 단계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시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협의와 예비연구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SPSS/PC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연친화적 태도의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점수는 실험집단(M=4.32, SD=.85)이 통제집단(M=3.49, SD=.8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t=4.66$, $p<.001$).

2.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전통문화 인지의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점수는 실험집단(M=3.50. SD=1.11)이 통제집단(M=1.97. SD=.9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t=6.21$, $p<.001$). 또한 전통문화 선호도의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점수에서 실험집단(M=3.77. SD=1.61)이 통제집단(M=1.96. SD=1.0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t=4.08$, $p<.001$).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연친화적 태도의 점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며 유아에게 전통과 자연을 연결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의 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전통문화의 경험이 유아의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감각을 기르게 하여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함으로써 유아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인지하고 선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2. 결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를 기초로 하여 전통문화를 인지하고 자연친화적 태도를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유아에게 전통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함으로써 자연친화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다.

둘째,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자연친화적 태도,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유아가 다양한 미술표현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및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세진(2005). 흙과 하늘에 대한 자연체험활동의 교육적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혜(2008). 생태 그림책을 활용한 자연친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희숙(2006). 전통문화소재를 활용한 통합미술교육활동이 유아의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 미적반응, 미술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소경희(2007). 자연체험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와 미술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선(2002). 자연의 조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형(2012). 유아를 위한 자연친화적 수학영역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인숙(2008). 숲 체험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정(2003). 민화를 통한 유아 전통미술지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화(2002). 의미탐색 전통문화교육과 유아의 국가 정체성 형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윤정(2001). 통합적 접근에 의한 동물 기르기가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Young Scholar Session (Ⅱ)

- ❑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해연(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 만 2세 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
  김민영(LG 이노텍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해연(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Ⅰ. 서 론

생애 초기 3년은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아는 성인의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이고 무력한 존재라 여겨졌으나, 최근 자신이 속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지식을 형성해 가는 유능한 존재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영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Gopnik, 2009). 영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발달속도가 빠르며 변화의 폭이 큰 시기이다(Wittmer & Petersen, 2011). 영아에게 있어 놀이는 삶 그 자체이고, 전인 발달을 이끄는 필수적인 활동이며(Dorothy, 2006), 영아의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다(Music, 2011). 또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이후 사회적 행동에 기초가 되므로 놀이와 더불어 영아기의 주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나양균, 2006). 사회정서적 유능성은 사회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것은 가정과 부모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핵가족화 현상, 맞벌이 가정 증가,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무상보육정책 시행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가 많아졌다(고세욱, 2012; 이기숙, 2013). 이렇듯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린이집으로 전이되면서, 영아기 보육의 질이

---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agathah3@hanmail.net

매우 중요해졌다. 영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하고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일과 중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사회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이 이를 충족시켜 주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영, 2011). 이를 위해 영아의 놀이와 사회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 변인들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질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단일 개념으로 정의될 수 없고,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 진다(Vandell & Wolfe, 2000). 일반적으로 기관의 질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구조적 질보다 과정적 질이 영유아 발달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hillipsen, Burchinal, Howes, & Cryer, 1997). 특히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Gandini & Edwards, 2001), 개별 영아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하며(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교사가 적절하게 상호작용 하는 것은(Howes & Smith, 1995) 기관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유아 대상 연구를 통해 기관 질의 중요성을 논의해 왔다. Li, Farkas, Duncan, Burchinal과 Vandell(2013)은 영아기에 질 높은 보육을 경험했을 경우, 유아기에 경험했을 때 보다 더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인들은 유아기와 유사한 변인들을 포함하지만, 강조되는 정도에 있어서 그 비중이 다르다(이영, 1999). 한편 놀이나 사회정서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유아기에 집중되었으나(김미경, 정희정, 김나래, 2006; 정설희, 2005; 황윤세, 2006), 최근 영아기의 중요성과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각되면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영아 대상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환경, 영아의 개별 특성, 교사 특성이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어(김숙령, 2010; 전홍주, 최유경, 최항준, 2013), 기관 질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영아의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며, 영아기 발달에 있어 주요한 과업이기도 한 놀이와 사회정서 행동이 기관의 질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아기가 발달에 민감한 시기이며, 이른 시기부터 보육을 경험하는 영아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의 질이 영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실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놀이행동 및 사회정서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유놀이 시간 동안 영아의 놀이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교사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대해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질이 영아의 놀이와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놀이행동 및 사회정서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물리적 환경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보육과정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집 2세 학급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14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세 영아 174명과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과 교사 상호작용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은해, 최혜영, 송혜린, 신혜영(2003)의 영아반 평가척도와 Arnett(1989)가 개발한 보육교사 상호작용 척도(Caregiver Interaction Scale: CIS)를 사용하였다. 영아의 놀이행동은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의 놀이행동 관찰범주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은 Carter, Briggs-Gowen, Jones와 Little(2003)의 영아 사회정서 측정도구 축약판(Brief 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BITSEA)을 사용하였다. 예비연구와 연구보조자 훈련을 통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찰자 간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Pearson's 상관분석, 단순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인 긍정, 엄격, 분리, 허용 간에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은 모든 영아 놀이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는 주의집중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낮으면, 영아들이 비놀이나 의존행동, 부정행동을 하고, 질이 높으면 개별 활동, 또래나 교사에 대한 긍정행동을 하고 있었다.

둘째, 물리적 환경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의 하위변인인 주의집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의 질은 영아의 비놀이, 개별 활동과 또래·교사에 대한 긍정행동, 의존행동, 부정행동,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발달에 적절하고 풍부한 환경에서 영아들이 비놀이, 의존행동, 부정행동을 적게 하고, 개별 활동, 교사나 또래에 대한 긍정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셋째, 보육과정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의 하위변인인 주의집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정의 질은 영아의 비놀이, 개별 활동과 또래·교사에 대한 긍정행동, 의존행동, 부정행동, 영아의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보육과정이 잘 운영되는 기관의 영아들이 놀이에 몰입해 활동하고 또래나 교사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의 하위변인인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사의 긍정적, 허용적인 상호작용은 영아의 놀이와 사회정서 행동의 하위변인인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엄격하고 분리된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들을 연구문제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2세 학급의 질과 영아 놀이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물리적

환경과 보육과정의 질이 우수하고, 교사가 긍정적, 허용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영아들이 개별 활동, 긍정행동을 많이 하였고, 비놀이, 의존행동, 부정행동을 적게 하였으며, 교사가 엄격, 분리된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영아들은 비놀이, 부정행동을 많이 하고 개별 활동, 긍정행동을 더 적게 하였다. 특히 영아의 비놀이 행동은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학급의 질이 낮을수록 영아들이 놀이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활동에 몰입하지 못하고, 놀잇감을 준비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영아들의 주의집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의 긍정적, 허용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내면적 문제행동, 조절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교사의 엄격과 분리된 상호작용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 외현적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내면적 문제행동, 조절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잘 구성된 학급에서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이 실행되고 있었고, 교사가 긍정적·허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 기관이 모두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이었음도 불구하고 질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질 향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제도의 지표나 인증 절차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단발적인 질 평가나 인증이 아닌 지속적인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갖춘 기관들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물리적 환경의 질은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의 하위변인인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풍부한 환경은 놀이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다양한 인지적 자극과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도록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기가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임을 감안할 때, 자유로운 탐색을 위한 안전한 환경, 혼자 쉴 수 있는 포근하고 안락한 공간,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과 직접 탐색 가능한 활동 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과정의 질은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의 하위변인인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과정의 질이 우수하면 영아들은 탐색과 놀이에 몰입하고, 또래나 교사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상호보완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형태의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반면 보육과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 학급의 영아들은 또래나 교사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며 주변을 맴돌거나 또래를 방해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영아보육과정의 경우 일상적인 경험이나 의미 있는 우연한 사건이 교육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영아보육과정을 잘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영아발달, 영아보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상호작용이 영아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의 하위변인인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긍정적, 허용적인 상호작용은 영아의 놀이와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엄격과 분리된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상호작용 습관을 단기간에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영아 발달을 위해 교사의 긍정적, 허용적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고, 영아의 놀이와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사가 영아의 현재 발달과 진행되는 놀이 상황을 고려해 실제 교수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나 동영상 제공, 조력 등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세욱(2012. 6. 3). 공짜 보육료의 그늘... 전업주부도 가정양육 포기.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에서 검색

김미경, 정희정, 김나래(2006). 1998-2004년 한국의 유아 사회·정서에 관한 동향 연구. 비교교육연구, 16(1), 181-204.

김숙령(2010).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과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1, 197-215.

나양균(2006). 영아의 사회·정서적 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영(2011). 영아의 발달과 보육. 서울: 신정.

이기숙(2013). 유아교육과정 제 3판. 파주: 교문사.

이영(1999). 발달에 적합한 영아 프로그램. 삼성복지재단 제 7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올바른 교육은 요람에서부터, 7-32.

이은해, 최혜영, 송혜린, 신혜영(2003). 어린이집 프로그램 관찰척도: 사용지침. 서울: 다음세대.

전홍주, 최유경, 최항준(201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7(3), 365-384.

정설희(2005). 유아 놀이 관련 학위논문 경향분석(1964-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윤세(2006). 유아놀이에 관한 학술지 연구논문(1995-2004)의 경향 분석. 아동교육, 15(2), 21-36.

Arnett, J. (1989). Caregivers in day-care centers: Does training matte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541-552.

Carter, S. A., Briggs-Gowen, J. M., Jones, S. M., & Little, T. D. (2003). The infant-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ITSEA):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5), 495-514.

Dorothy, J. S. (2006). 놀이의 이해와 지도: 출생에서부터 8세까지(김미숙, 박숙영, 최민숙, 최은미 공역). 서울: 박학사. (원서 2005 출판).

Gandini, L., & Edwards, C. P. (Eds.). (2001). *Bambini: The Italian approach to infant/toddler care*.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Gopnik, A. (2009). *The philosophical babies: What children's minds tell us about truth, love, and the meaning of life*. New York, NY: Picador.

Holloway, S. D., & Reic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1), 39-53.

Howes, C., & Smith, E. W. (1995). Relation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y,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381-404.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2), 449-460.

Li, W., Farkas, G., Duncan, G. J., Burchinal, M. R., & Vandell, D. L. (2013). Timing of high-quality child care and cognitive, language, and preacademic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9*(8), 1440-1451.

Music, G. (2011). *Naturing natures: Attachment and children's emotional, sociocultural and brain development*. East Sussex, UK: Psychology Press.

Phillipsen, L. C., Burchinal, M. R., Howes, C., & Cryer, D. (1997). The prediction of process quality from structural features of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281-303.

Vandell, D. L., & Wolfe, B. (2000). Child care quality: Does it matter and does it need to be improved?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Special Report,* 78.

Wittmer, D. S., & Petersen, S. H. (2011).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 관계중심 접근법(이승연, 김은영, 강재희, 문혜련, 이성희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 2006 출판)

만 2세 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

김민영(LG 이노텍 어린이집 원장)**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내외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안전행정부(2012)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는 116,696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약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가정의 부모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 교육과 적응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함께 살면서 식습관 차이(53%), 가족행사나 가족의례의 차이(12.0%),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11.5%) 등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50.7%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한국사회로의 적응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가족구성원의 기초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기 자녀의 생활과 교육, 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과 발달, 교육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신체, 언어, 인지, 정서 발달과 초기 사회화 과정을 돕는 놀이(play)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자 심리적 구인인 놀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강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tnddn1@hanmail.net

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는 개인마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반응, 놀잇감 선택이나 활동선호도가 다르며,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놀이형태(이숙재, 2004)를 보이는데, 이는 영유아가 지닌 고유한 놀이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실, 2004; Rogers & Sawyer, 1988). 이러한 놀이성은 영유아의 놀이를 최대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내재적 동기이자 사회, 정서, 인지, 성격적인 측면을 지지하는 잠재적 성향으로, 영유아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김영희, 1995; 우수경, 2008; 이재은, 2006; Barnett, 1990; Lieberman, 1977). 이는 놀이가 자발적이고 흥미롭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놀잇감을 사용해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경험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주어, 기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명주, 2011; 최미숙, 송순옥, 2013),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이용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으나(이선주, 2008),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자, 2010).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입학초기 기관적응과정에서 또래친구들과 생김새와 언어의 차이, 학습과 발달의 격차, 또래와의 놀이경험 부족, 주변의 시선과 편견 등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2006).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잘하는 영유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면서 생기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안정적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모든 영유아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성공적인 기관적응은 영유아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감 형성을 도와 추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안선희, 2002).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놀이성과 기관적응이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놀이성이 기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통합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기관적응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가정

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문화가정 영아가 어린이집 입학 초기 적응과정에서 나타내는 놀이성과 기관적응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 수립과 기관적응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기관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이 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78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다문화 통합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2013년 3월말부터 4월말까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 210명(다문화가정 영아 91명, 일반가정 영아 119명)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을 관찰하고, 이를 측정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영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nett(1990)가 제작한 아동의 놀이성 척도 CPS를 번역하여 김영희(1995)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영아의 어린이집의 초기기관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Luster와 Kostelink (1992)가 개발한 유아교육기관 적응 설문지 PAQ를 오종은(2001)이 번역하여 다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처리는 SPSS / window for 18.0 program을 사용하였고, 다문화가정과 일반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일반가정의 영아가 다문화가정의 영아에 비해 놀이성의 하위요소 중 인지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의 여아가 다문화가정의 남아와 일반가정의 남아보다 놀이성이 높게 나타났고, 월령이 높은 영아가 월령이 낮은 다문화가정 영아와 일반가정의 영아보다 놀이성이 발달한 것으로 드러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기관적응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관적응에서는 일반가정의 여아가 다문화가정 남아와 일반가정 남아에 비해 기관적응에서 높은 평균을 보여 기관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은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영아나 일반가정 영아의 경우 동일하게 놀이성의 하위요소 중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어린이집의 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놀이성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그들의 놀이성이 기관적응에 설명력을 높이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놀이성과 기관적응이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놀이성이 기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일반가정의 영아가 다문화가정의 영아에 비해 놀이성 중 인지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의 영아가 자신의 흥미와 발달에 따라 놀잇감을 선택하고,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놀이형태를 보이며, 놀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놀이적인 성향인 놀이성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가정의 여아가 다문화가정의 남아와 일반가정의 남아보다 놀이성이 높게 나타났고, 월령이 높은 영아가 월령이 낮은 다문화가정 영아와 일반가정 영아보다 놀이성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전체 기관적응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영아가 자신의 기분과 건강상태, 식습관이나 수면습관, 놀이 선호도, 또래놀이경험 등의 개인적 특성과 놀이경험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에 적응하면서, 기관적응에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가정의 여아가 다문화가정 남아와 일반가정 남아에 비해 기관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놀이성에 차이를 보였다.

셋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은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이 일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영아가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 놀이성을 지닌 경우 기관적응을 잘하고, 기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영아의 경우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놀이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아의 기관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사귀며, 나누고, 협동하는 놀이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영아의 놀이성 발달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영아가 기관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유사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과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영아의 심리적 불

안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지지와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놀이성 변인과의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영아의 놀이성이 입학초기 기관적응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이 기관적응을 돕는 결정적인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영아가 놀이 활동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사귀면서, 상황에 맞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놀이성을 발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 발달을 도와 그들의 원활한 기관적응을 돕는 것이 추후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학교적응, 사회적응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가정의 영아가 놀이성의 일부 하위요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기관적응에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영아의 놀이성과 기관적응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놀이성이 기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놀이성이 기관적응을 설명하는 결정적 변인임이 증명되었다.

참고문헌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자(2010). 일반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 영유아교육연구, 13, 83-100.

안선희(2002). 유아의 유치원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201-219.

안전행정부(2013). 2012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http:www.mospa.go.kr에서 2013. 04. 15 인출.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오종은(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수경(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59-280.

이경실(2004). 유아의 놀이성 관련 연구 분석. 논문집, 24, 13-20.

이명주(2011).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재원경험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 어린이집 적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주(2008).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숙재(201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제3판. 서울: 창지사.
이재은(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숙, 송순옥(2013). 유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교육연구, 22(2), 277-292.
Barnett, L. A. (1990). Developmental benefit of play for childr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38-153.
Jewsuwan, R., Luster, T., & Kostelink, m. (1992).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 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51.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Rogers, C. S., & Sawyer, J. K (1988).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Young Scholar Session (Ⅲ)

❑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문원선(수원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장)

❑ 미국 0세아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의 수면/의식 패턴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

김윤희(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문원선(수원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장)**

Ⅰ. 서 론

영아기는 급격한 성장발달과 두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경험의 질은 전 생애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병희, 2000;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Bruer, 1999; Shore, 1997). 영아의 발달과 학습은 그들이 속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적합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Gestwicki, 2008). 영아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변 사물과 세상에 대한 경험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영아가 가진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유전적 요소, 이전 경험의 내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뇌는 자신에게 유의미한 교육내용을 경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므로(Smith, 1986) 뇌가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미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Caine & Caine, 1994). 사회문화적 적합성 측면에서 전래놀이는 민족고유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잘 반영된 놀이이므로 영아들에게 보다 의미 있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 1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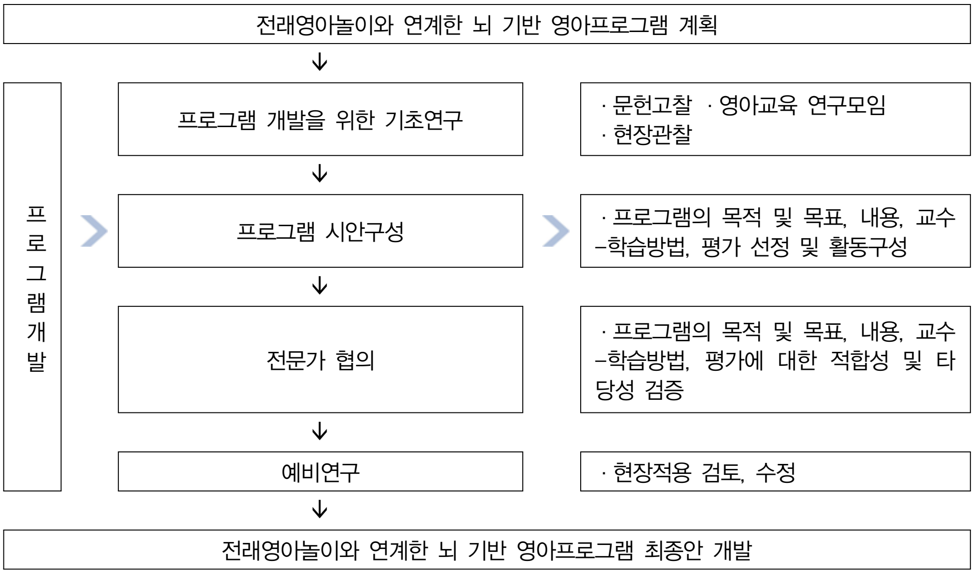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가천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pupmoon@hanmail.net

Ⅱ. 전래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절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시안구성, 전문가협의, 예비연구, 프로그램 최종안 개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개발 절차

2. 프로그램 구성체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1)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목적은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을 통해 영아의 두뇌를 자극하고 이완시키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만 1세 영아의 전인발달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뇌의 운동피질을 활성화시키고 기본적인 신체운동능력을 기른다. 둘째,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 사회・정서능력을 기른다. 셋째, 개별적이고 반응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넷째, 주도적인 탐색활동을 경험하고 기초적인 사고력을 갖는 감각인지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긍정적 정서교류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을 통해 기본생활능력을 기른다.

2)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내용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로 하여 전이를 위한 전래영아놀이 24개가 연계된 기관활동 72개(신체운동 12개 활동, 사회・정서 12개 활동, 의사소통 12개 활동, 감각인지 12개 활동, 기본생활영역 24개)와 가정연계 24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수준별 활동의 내용은 활동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반복, 확장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은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원리와 교수-학습과정, 교수-학습 지원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첫째, 교수-학습원리는 뇌 발달 영아교육 교수-학습원리인 '개별화', '주도성', '오감', '정서', '움직임', '반복', '통합'의 원리(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이방실, 2012)를 적용하였다.

둘째,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교수-학습원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교수-학습과정은 전이-탐색-자율-모방-반복-확장의 6단계로 구성하였다.

셋째, 교사의 실천적 지식 형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지원은 다음과 같이 4단계 교수-학습지원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 4단계 교수-학습지원과정

4)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평가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평가 방향은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가 충분히 습득되었는지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한 실행과정평가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교사자기 평가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총괄평가의 방식의 내용으로 평가하였다.

Ⅲ. 전래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효과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경기도에 위치한 7개 어린이집 실험집단 어린이집 3개원의 만 1세반 영아 37명, 교사 8명과 비교집단 어린이집 중 4개원의 만 1세반 영아 42명, 교사 7명을 대상으로 총 24주간 프로그램을 실시 후 효과를 측정하였다.

1. 연구방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도구로 교사용 1, 2세 영아발달평가도구(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욱, 2002)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에 대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보완하였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영아들을 대상으로 영아발달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4주간 프로그램 적용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이 영아의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정서, 감각인지, 기본생활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험집단에는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일반 영아프로그램을 실험처치 하고, 두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이 일반 영아프로그램 보다 영아발달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Ⅵ. 논의 및 결론

뇌를 이완시키는 활동은 긴장감을 해소하고 학습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영아의 뇌를 이완시키고 영아와 교사의 긍정적인 정서교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전래영아놀이를 전이단계 활동으로 연계하였다. 또한 영아와 교사의 1:1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뇌의 이완활동을 위한 전래영아놀이를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제시하였으므로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래영아놀이는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 뿐 아니라 일반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매우 높으므로 영아와 교사의 충분한 신체접촉과 긍정적 정서교류를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들의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교사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김유미, 2002; Jensen, 1998) 반영하여, 교사는 활동을 진행하며 매 활동마다 뇌 기반 영아교수-학습방법을 평가하고 전문가와 연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뇌 기반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며 습득된 뇌 기반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은 집단별 결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영아의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정서, 감각인지, 기본생활발달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은 뇌 기반 영아교육원리에 기초하여 영아의 통합발달을 지원하는 뇌 기반 영아프로그램과 영아와 교사의 1:1 상호작용을 통한 뇌를 이완시키는 전래영아놀이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래영아놀이와 연계한 뇌 기반 영아 프로그램은 신경생리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추출된 뇌 기반 영아교육원리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였으므로 향 후 뇌 기반 영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며, 뇌 기반 영아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실천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유미 (2006). 뇌 발달 접근에서 본 유아교육의 방향. 유아교육연구, 26(4), 31-49.

박병희 (2000). 두뇌 연구결과와 영아기 교육. 계명연구논집, 18, 115-134.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욱 (2001). 탐색 및 놀이 활동 중심의 1 , 2 세 영아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2), 133-154.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영유아 관련 뇌 기반 연구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31(2). 207-231.

정미라, 박수경, 권정윤, 이방실 (2012). 뇌 발달 이론에 기초한 걸음마기 영아-부모 프로그램이 영아발달 및 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6), 467-488.

Bruer, J. T. (1999). *The myth of the first three years: A new understanding of early brain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NY: The Free Press.

Caine, R, N., & Caine, G. (1994). *Making connections: Teaching and the human brain*. NJ: Dale Seymour Publication.

Gestwicki, C. (2008).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임부연, 장영숙, 최미숙, 최윤정 역. 서울: 정민사. (원저 출판 2007)

Jensen, E. (1998). *Teaching with the brain in mind*, Virginia: ASCD

Shore, R. (1997). *Rethinking the brain : New insights into early development*. New York : Families and Work Institute.

Smith, F. (1986). *Insult to Intelligence*. The bureaucratic of our classrooms. NY: Arbor House.

미국 0세아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의 수면/의식 패턴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

김윤희(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들의 행동(Behavioral cues)과 필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양육자의 민감성(Caregiver sensitivity)이 0세 보육시설에서 교사와 영아의 관계적 상호작용의 질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주요 용어로 정의, 개념화되었다. 그런데, 영아-교사 상호작용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영아의 수면/의식상태(Sleep-wake states) 그리고 그 패턴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질 혹은 교사의 민감성을 관찰하고 특성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Thoman, 1990). 영아의 의식 상태(Infant states)는 생리적 혹은 신체・행동적 상태로서, 그 자체로서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형태와 질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Brazelton, 1990; Korner, 1971).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영아들의 수면/의식 패턴을 고려하였을 때 0세아 보육 현장에서 영아들의 경험이 어떠하며, 교사의 민감성은 어떻게 특성화되는지 탐색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영아들과의 상호작용 시, 교사의 민감성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하면서, 교사가 어떻게 영아들의 수면/의식 패턴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루 일정과 활동들을 조절해 나가는지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0세 영아들의 수면/의식상태 패턴은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들의 보육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1. 본 연구의 영아반에서 관찰되어진 영아들의 일반적인 수면/의식상태 패턴은 어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emvision04@gmail.com

떠한가?

2. 본 연구의 영아반에서 관찰되어진 영아들의 수면/의식상태 패턴에 대한 담당교사(Primary caregiver) 및 팀 교사들의 반응과 행동양식은 어떠한가?
3. 교사의 지식, 신념, 경험은 영아들의 수면/의식상태 패턴에 대한 그들의 민감한 반응 및 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질적 · 양적 통합 사례연구 (Mixed-method case studies)

최근 일부 사상가들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의 영역을 패러다임의 차이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Symonds와 Corard(2010)은 질적・양적 연구를 패러다임으로 구분해 놓는 것은 연구자들이 보다 새롭고 발전된 연구 설계 및 기술을 고안해 내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며,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은 단순히 방법의 차이이고 과정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질적인 연구 자료와 양적인 연구 자료들을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각 연구 방법이 배경으로 두고 있는 철학적 기반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양적 통합 연구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Feilzer(2010)가 주장하듯이, 실용주의 철학은 연구의 객관성 및 주관성의 분쟁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보다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연구를 위해 질적 양적 연구의 통합에 긍정적인 해석을 허용한다.

본 연구에서 질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양적 통계 분석 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아의 의식 상태 이론(Infant state theory)은 일반적으로 양적이고 실험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영유아 행동 및 수면 과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헌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시설에서 성인이 영아들에게 민감한 반응과 양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영아들의 수면/의식 상태와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세아 보육시설에서 질적 연구 중심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적 분석 방법이 함께 사용됨으로서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의 질을 높이고 주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2. 연구 맥락

1) 사전 연구지 선택 기준

연구지 선정에 앞서서 두 가지 기준이 사전에 계획되어 졌다. 첫 번째 기준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영아가 4명이상 있는 0세반 교실이 있는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었고, 두 번째 기준은 질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받은 시설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었다. 질이 높은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영아의 수면/의식 패턴과 관련된 영아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데 있어서, 시설 자체의 낮은 질적 수준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질적 수준이 높은 기관에서의 교사 행동의 관찰은 또한 모범이 되는 보육 실제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강점이 될 것임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보육시설은 미국 중서부 대학 관련 시설로 해당 주에서 실시하는 보육평가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NAEYC 의 평가 승인을 받은 기관이었다.

2) 연구 참여자

이틀간 0세반 교실을 관찰하고 비디오 촬영을 분석한 후에, 한 명의 정교사와 그 교사의 담당 영아들인 생후 3개월에서 7개월 사이의 4명의 영아들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교사 참여자는 인도인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지 15년이 되었으며, 15년 동안 영유아 교사로 생활하며, 유아교육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겸하고 있었다.

4명의 연구 참여 영아들과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이 비디오 관찰되었으며 각각 약 10주에서 11주 동안 보육 현장에서 직접 촬영이 이루어졌다. 0세반의 정원은 총 8명으로, 2명의 정교사와 1명의 풀타임, 2명의 파트타임 보조교사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4명의 영아들 중 하루 한명씩 4시간에서 6시간의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매주 모든 영아들을 촬영하기 위해 4일간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영아들을 위해 10주 이상의 촬영 분을 만들기 위해 13주가량 영아반에 머물렀다.

연구자는 교사들과 영아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교사들에게 비형식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였으나, 두 대의 비디오를 관리하고 관찰노트를 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촬영 중인 영아의 수면시간동안에 영아의 침대 옆에 머무르며 촬영과 더불어

직접 관찰노트를 작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동안, 연구자는 두 명의 주교사들과 외부에서 만나 각각 1시간가량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자료 분석

1) 영아의 수면/의식 상태(Infant States) 분석을 위한 질적 · 양적자료 분석

각 영아들의 비디오 촬영 자료는 InqScribe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컴퓨터 패달을 사용하여 전사되었다. 두 명의 영아는 10주 나머지 두 명은 11주의 촬영분이 전사되었는데, 매주 첫 번째 낮잠부터 두 번째 낮잠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약 3시간에서 5시간 분량의 촬영분이 전사되었다. 두 명의 주교사 인터뷰 전사본까지 합하여 총 500 페이지 분량의 전사본이 완성되었다(마이크로소프트 워드, 9 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연구자는 이 전사본을 여러번 읽으며 영아들의 주요 수면/의식 상태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Brazelton (1990)과 Thoman (1990)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영아의 상태는 6가지 였으나, 기저기 갈아주기, 우유먹이기, 안아서 재우기의 3가지 코딩 범주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6가지 주요 수면/의식 상태는 깊은 잠(Quiet/NREM Sleep), 얕은 잠(Active/REM Sleep), 몽롱함(Drowsy), 활발하게 깨어있음(Alert), 칭얼대며 깨어있음(Fussy Alert), 우는 상태(Crying)이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6가지 수면/의식 상태와 3가지 기본적 돌봄의 상태가 전사본에 표시되었다. 전사본에 번호를 부가한 후 무작위로 10% 가량의 전사본을 선택한 후, 훈련된 코더에게 코딩을 하도록 한 후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신뢰도 점수를 얻었다($ICC = .97$, $F(14, 14)$, $p < .001$).

2) 교사의 행동 주제 범주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영아의 수면/의식 상태와 변화에 어떻게 구별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민감성의 특성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아의 수면/의식 상태의 범주가 모두 표시된 후에,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 칭얼대며 깨어있는 상태, 몽롱한 상태만을 선택하여 교사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였다. Chi(1997)의 "언어적 내용에 중점을 두지 않는 (non-content) 행동" 코딩의 정의를 참조하여 교사의 행동을 엑셀에 기록하였다. 모든 기록이 마치고, 엑셀의 정렬(sort) 기능을 사용하여 교사의 모든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을 분류하여 귀납적으로 6가지의

최종 범주 코드를 도출하였다. 훈련된 코더가 약 10% 분량의 엑셀에 기록된 교사행동을 코딩하여 비교하였을 때 94.3%의 신뢰도를 얻었다.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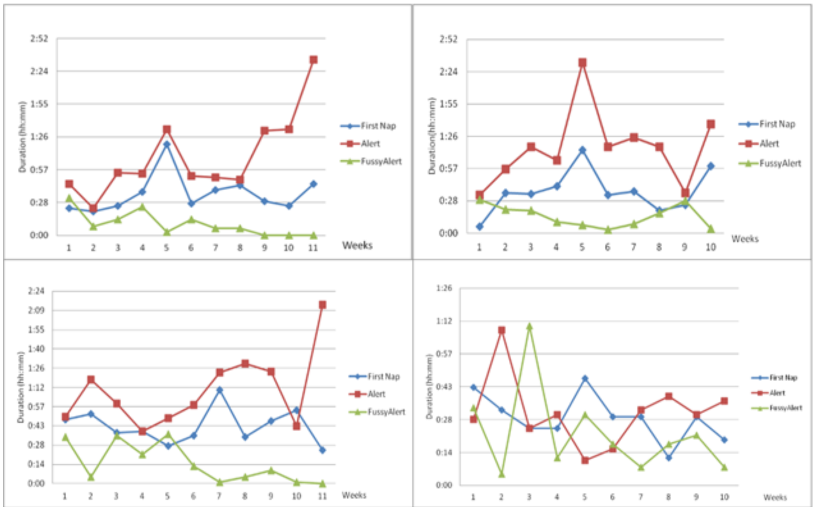
1. 사례연구(Four case studies)

1) 네 명의 영아들의 수면/의식상태(Infant States) 패턴

첫 번째, 4명의 영아들은 각각 다른 패턴의 수면/의식상태의 주기와 변화를 보였다. 세 명의 영아들은 낮잠의 양과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 사이에 다소 평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낮잠을 짧게 잤을 경우에는 기분이 좋게, 활발하게 깨어있는 시간의 길이도 짧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두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아들의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의 시간이 늘어났다. 수면시간과 상관없이 10주 전후로 해서 영아들의 활발하게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세 번째, 영아들의 낮잠,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 칭얼대며 깨어있는 상태의 시간은 교사의 개입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림 1〉 연구 참여 영아들의 첫 번째 낮잠,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 칭얼대는 상태의 주기적인 변화(10–11주간)

2. 질적 양적 통합 연구 분석

본 연구는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6 가지의 교사 행동주제들과 관련된 핵심적인 민감성 요인의 종류와 특성들을 탐색하는데 포커스를 두었다.

〈표 1〉 귀납적으로 도출된 교사행동 주제

행동 주제 범주	주요 용어들	행동 양식 분석표
기본적 돌봄 (Physical caretaking)	우유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손씻기기, 코 닦아주기 등	교사의 행동양식은 우유먹이기와 기저귀 갈기 등과 같이 기본적인 돌봄으로 제한된다.
그룹 활동 (Group activity)	영아들에게 책읽기, 손유희, 몸동작, 노래부르기 등	교사는 노래 부르기, 말하기, 읽기 등의 활동을 한다. 교사가 말하기 상호작용에서 노래 부르기로 행동 양식을 바꾸었을 때마다 코딩되었다. 그룹 활동 중에는 일대일의 상호작용과 다방향적(multi-directed)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대일 상호작용(One-on-one interaction)	아이 컨택, 말하기, 노래부르기, 즐겁게 해주기 등	교사는 말하기, 아이 컨택, 간지럽힘 등과 같은 의사소통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돌봄(Physical contact)	안아주기, 쓰다듬기, 토닥이기, 기대어주기, 속싸개해서 안기, 안아서 흔들어주기 등	우는 아이들은 안아주기와 같은 신체적인 돌봄을 제공해주었을 때 가장 신속하게 울음을 그쳤다.
자세 바꾸어주기(Reposition)	새로운 장소로 이동시켜주기, 엎드린 상태의 영아 눕혀주기, 곧게 앉은 자세로 바꿔주기, 바운서 등에 앉혀주기 등	스스로 앉거나 기지 못하는 영아들은 교사들에 의해 자주 자세가 바꾸어졌다. 어린 영아들일수로 오랜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에 의해 자주 이동되거나 자세가 바뀌어졌다.
순간적인 개입(Short intervention)	영아의 이름 부르기, 새로운 놀잇감 제공해주기, 아이 근처에 앉기 등	영아가 칭얼대거나 울 때, 교사가 개입하나 그 길이가 매우 짧을 때가 많다. 교사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짧게 대답함, 새로운 놀잇감을 제공해 주는 등 잠시 개입해줌으로서 교사가 영아의 울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영아에게 언어적으로 혹은 행동적으로 반응하여 주었다.

통계분석 결과 교사들은 영아들이 "칭얼대는 상태" (Fussy Alert states) 일 때,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특히 "기본적 돌봄"(Physical caretaking), "일대일 상호작용" (One-on-one interaction), 그리고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돌봄" (Physical contact) 의 행

동 주제로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 (Alert States)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영아들은 칭얼대는 상태에서 보다 민감한 관심과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기분 좋은 (affectionate responses) 상호작용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양육행동은 영아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거나 칭얼대는 상태가 기분 좋은 상태 (alert states) 혹은 수면 (sleep states)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아들의 수면/의식상태(Infant States) 패턴과 주기는 교실 소음과 교사의 행동양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영아반은 매우 크고 대체로 조용한 교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수면시간은 교실의 활동과 소음에 의해 자주 방해를 받았다. 대부분의 영아들은 20-30 분 내외의 짧은 낮잠을 잤다. 어린 영아들의 경우 수면 초반에 소음에 방해를 많이 받았고, 6개월 전후의 영아들은 수면 시작 후 약 30분 전후에 소음에 방해를 많이 받았다. 이는 영아들의 깊은 잠(Quiet/NREM Sleep)과 얕은 잠(Active/REM Sleep)의 주기에 의한 영향이었고, 영아들이 얕은 잠의 주기에 있을 때에 대부분 크고 작은 소음에 의해 잠을 중단하였다.

두 번째, 교사의 민감성은 영아의 수면/의식 상태를 해석해내는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민감한 교사의 경우, 영아들의 수면/의식 상태를 잘 분별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였으나, 일부 교사들은 영아의 칭얼대는 상태를 졸린 상태로 잘못 해석하고 일찍 잠을 재워 활발하게 깨어있는 주기가 짧아지곤 하였다. 잠에서 막 깨어나 몽롱한 상태에 있는 영아들의 경우 교사의 따뜻한 신체접촉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놀이장소에 내려놓았을 때, 영아들의 울음과 칭얼대는 상태가 자주 목격되어졌다.

세 번째, 교사들은 영아들이 칭얼대거나 우는 상태일 때 훨씬 자주 또 빠르게 반응하였다. 영아의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는 교사의 개입이 적었으나, 영아들의 탐색활동, 주시, 교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 등이 오래 지속되었다.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

의 영아들은 작은 자극에도 웃음, 기쁨, 옹알이 등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영아를 돌보는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 양육의 계획 및 실제가 교사의 민감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다수의 영아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기록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영아들의 상태를 바르게 해석하고 영아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본 연구 결과, 영아들의 수면 의식 패턴은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조화에 있어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세아 보육 실제에 많은 제안점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영아 보육 과정의 설계시 영아의 수면/의식 패턴과 같이 생리적, 행동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교육 및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위한 과목 설계에도 영아의 발달과 더불어 수면/의식 패턴 이론, 수면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보육실제와 건강안전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razelton, B. (1990). Saving the bathwater. *Child Development, 61,* 1661-1671.

Chi (1997). Quantifying qualitative analyses of verbal data: A practical guide.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6*(3), 271-315.

Feilzer, M. Y. (2010). Doing mixed methods research pragmatically: Implications for the rediscovery of pragmatism as a research paradigm.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4*(1), 6-16.

Korner, A. F. (1971, February). State as Variable, as obstacle and as mediator of stimulation in infant research, *The Concept of state: Its relevance to infant behavior.*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Merrill-Palmer Institute Conference on Research and Teaching of Infant Development, Detroit, Michigan.

Symonds, J. E., & Gorard, S. (2010). Death of mixed methods? Or the rebirth of research as a craft. *Evaluation & Research in Education, 23*(2). 121-136.

Thoman, E. B. (1990). Sleeping and waking states in infants: A functional perspective.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4,* 93-107.

포스터 발표

1.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이 유아의 유머 이해, 또래 유능성,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보람(푸르니 우리은행 어린이집 교사)

   정가윤(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 소집단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사립 유치원장의 경험과 의미

   이성희(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미선(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윤자(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종심(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3.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석성경(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영아 무상보육 정책 이후 강원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

   김민희(서울의료원 어린이집 교사)

   정가윤(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5.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김은하(사랑의 어린이집 교사)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 만 5세 누리과정 담당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직무만족도 비교

   이수영(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장영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7.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 1학년 사회과 교육의 연계성 연구

   김은미(용인시청상록어린이집 원장)

   이순례(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8.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자녀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분석

   서지원(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민선옥(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0. 영아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어머니의 만족도와 요구도

박정미(강남어린이집 前교사)

이순례(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 SCAMPER 기법을 적용한 동화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송규운(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안나(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2.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영실(시립한보라 어린이집 원장)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이 유아의 유머 이해, 또래 유능성,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Drama Activities with Humor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Humor Appreciation, Peer-Competence, and Playfulness

한보람(푸르니 우리은행 어린이집 교사)**
정가윤(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Ⅰ. 서 론

오늘날 유머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박선희, 이혜경, 2006), 이러한 유머는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나타난다. 유머의 상당한 기능 및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아교육・보육에서는 유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어 왔으며, 특히 유머 활동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을 개발하고 그것이 유아의 유머 이해, 또래 유능성,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유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전형적인 극놀이 방법이 아닌 웃음과 관련된 어휘인 익살, 해학, 풍자, 농담, 장난, 재치, 기지, 엉뚱함, 코미디 등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유머의 특성(박지애, 2004)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나름의 독특한 극놀이 방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유머를 전달하여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교수매체이면서(박성희, 이혜경), 수업 분위기를 창조적이고 실험적으로 만들어 유아로 하여금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재미의 정신으로 창안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머 그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hanbolam88@gmail.com

림책(임영심, 2005)을 선정한 후 기존의 동극 형태를 취한 극놀이에 비해 덜 정형화되고 자유로운 개념으로서 역할극, 즉흥극, 막대 인형극을 포함하는 극화 활동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의 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D어린이집의 만 4세 유아 20명은 실험집단으로, K어린이집의 만 4세 유아 2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한 후 실험집단에는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은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유머 그림책 중 만 4세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극화 활동에 좋은 이야기의 조건이 되는 그림책을 선정한 후 특정 장면을 선택하여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게 표정과 몸짓, 간단한 대사 등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극으로 표현하는 역할극, 그림책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역할에 맞게 자신이 스스로 그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 움직임 등을 상상한 후 극으로 표현하는 즉흥극, 배경 상황과 등장인물의 성격 특징에 맞게 움직임이나 말투나 목소리 등에 변화를 주면서 막대 인형을 가지고 극으로 표현하는 막대 인형극,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극화 활동을 구성하였다.

유아의 유머 이해, 또래 유능성,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양승희(2006)가 김재숙(1984)와 Willis(1997)의 연구를 기초로 고안한 유머 이해 검사를 사용하였고,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Barnett(1991)이 개발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를 유애열(1994)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김미숙(200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머 이해, 또래 유능성, 놀이성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사전검사를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은 유아의 유머 이해, 또래 유능성, 놀이성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첫째,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 비해 유아의 유머 이해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동화책에서 찾은 재미있는 부분이 왜 재미있는지 설명하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 비해 유아의 또래 유능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친사회성, 사교성, 주도성 세 가지 중에서 사교성, 주도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 비해 유아의 놀이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은 유아의 유머 이해, 또래 유능성, 놀이성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가 그림책의 유머러스한 장면을 극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유머를 언어로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구현해 보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웃음을 자연스럽게 또래와 공유함으로써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하고, 또래 간의 더욱 친밀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입증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극화 활동이라는 하나의 놀이를 유머러스하게 전개해 나가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여 유아가 사회적·인지적으로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머 활동의 다양화에 기여하였고,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또래 유능성, 놀이성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유머의 효과를 밝혔으며, 유머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 활동을 대집단 활동에서 자유선택활동시간의 역할 놀이로까지 확장하였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집단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사립 유치원장의 경험과 의미

Experience and Meaning of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s Participating in Small Group Empowerment Program

이성희(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미선(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윤자(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종심(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Ⅰ. 연구의 배경

사립유치원 원장의 업무는 다양하다. 다양한 운영전략을 가지고 교육과정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하며 교사 및 교직원들과 바람직한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부모님을 상담하고 교육해야 하며 최고 행정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원장들은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아모집, 안전사고, 학부모와 교직원 관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 결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 유치원평가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변 선배원장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인근 대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도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면서 유치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조혜진, 김수연, 2013; 황해익, 2010), 원장의 직무능력이 교사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장선영, 2013; 허수윤, 서현아, 최남정 2012; 권경숙, 2012; 김정림, 조혜진, 2012). 본 연구는 사립원장들의 어려움에 동감한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그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소집단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원장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얻어

*shi@pcu.ac.kr

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문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소집단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경험한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

연구자는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장학사 경력 6년의 현직 장학사 1인과 교사와 유치원 원장 경력이 있으며 박사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현직 교사 2인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개별적인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컨설팅 과정을 경험한 원장들로 유치원 원장 역량강화에 대한 자발적 욕구가 있는 D시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7명이다.

3. 연구절차

사전 면담을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장 7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특성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결과 원장들이 역량 강화 지원을 원하는 분야는 유치원 사무행정관리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이었다. 소집단 역량강화 교육은 2013년 3월 18 일부터 2013년 5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총 8회기의 소집단 역량강화 교육주제는 자유선택활동의 실제, 이야기 나누기, 동극지도, 게임지도, 신체표현, 음률활동, 교안작성, 공문 작성, 예결산서 작성 등이다. 또한 각 유치원 별로 1회씩 유치원 현장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유치원 상황에 따라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협의하였다.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사례회의를 하고 원장과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교사들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경험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절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자료 분석

위와 같은 연구절차를 거치면서 참여관찰, 심층면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반성적 저널쓰기, 문서탐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첫째, 참여관찰을 위하여 유치원 현장을 방문하여 원장의 반응이나 이야기를 관찰하여 기록하거나 사건이나 상황을 메모하였다. 연구자의 메모, 녹화, 녹음, 자료와 전사본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심층면담을 하였다. 교육을 진행하기 전과 진행한 후 2회에 걸쳐 연구자가 메모, 녹음, 전사, 기록 하였다. 셋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반성적 저널쓰기이다. 교육이 매회 진행될 때마다 연구자와 참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반성적 저널로 작성하여 활동안과 함께 총 8회 수집하였다. 넷째, 문서탐색이다. 연구 참여자 개인 파일, 연구자의 관찰일지, 연구 참여자와 진행되었던 면담자료, 연구자의 사례회의 3회에 걸친 회의 일지 등의 문서를 탐색하였다. 다섯째, 녹음자료, 전사자료, 면담자료, 원장의 교육참여 및 평가 저널, 현장노트 등을 수집하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지속적인 분석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1. 사립원장들의 소집단 역량강화를 통한 경험

사립원장들은 소집단 역량강화를 통해 소집단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와 실제로 진행된 소집단 역량강화 경험의 과정 그리고 소집단 역량강화 경험을 통한 원장들의 변화로 나타났다. 사립원장들은 유치원 운영전반에 걸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공문 작성과 예결산서 작성 및 실제적인 일과 운영과 교사의 수업장학을 위한 수업기술 전반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였다. 소집단 역량강화 경험은 개인적인 원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변화과정과 더불어 원과 원의 교류 및 원과 지역교육청과의 교류를 확장시키는 변화과정을 드러내 주고 있었다.

2. 사립원장들의 소집단 역량강화 경험의 의미

사립원장들은 역량강화 경험을 통해 우선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초기에는 소집단 역량강화 과정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역량강화 지원의 중첩으로 시간 및 정서적인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장학사 및 연구교사들의 지원을 받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이를 보완하며 원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도전과 도움을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역량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소집단을 활용한 역량강화 경험의 과정은 개인적인 원장의 원 운영 전반에 걸친 지식과 실제의 역량강화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려움과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지지역량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원장 자신의 역량강화 형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유아교육기관들의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체제로 나아가는 발전적 모형의 기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Mother's Recognition about the Effects of Smart Phone Use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석성경(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과다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어머니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하고,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지도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논문은 2013학년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suk-s-k@hanmail.net

Ⅱ.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K구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의 어머니 300명이다. 연구도구는 이원석, 성영화(2012)의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어머니의 인식조사 설문지를 연구자가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총23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와 Vineland(1997)의 사회성숙도 검사 외 Jiao와 Ji(1986)의 사회성 능력 검사를 김숙경(1988)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배경 변인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을 살펴보기 위해서 One Way ANOVA와 사후검증인 Scheffe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은 Pearson의 Correlation을 사용 분석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들은 부모를 통하여 5세 이하에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였고, 일주일에 1~3회, 평균10~30분 정도를 대부분 부모와 함께 주말에 많이 사용하였고, 또한 유아는 스마트폰을 재미있어서 사용하며 무료한 시간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서는 긍정적 측면의 영향으로 다양한 교육적 콘텐츠에 편리하게 접속하여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학습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의 영향으로 시력저하, 전자파 노출, 중독성,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사회성 발달에 문제, 절제력 부족, 가족과의 대화 단절 등이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어머니 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협동성을 제외하고 자주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주성은 30세 이하 어머니가 46세 이상 어머니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자주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 직업과 가정의 월수입 배경 변인에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평균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협동성, 자주성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성 발달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사용이 협동성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녀가 일주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협동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주성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주성이 떨어지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을 사용한 기간이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이 아니며 스마트폰 소유가 아직은 유아가 아닌 부모들이므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관리통제 되고 있으나 이른 나이부터 시작하여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 저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횟수와 이용 시간 등의 적극적인 지도를 통한 부모의 올바른 인식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꾸준한 부모교육 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겠다. 셋째, 유아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자주성이 낮아 자기조절능력 등이 결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계획 및 제공하여 실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과 검증을 통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아 무상보육 정책 이후 강원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Infant Child Care Centers in Kangwon Province after Implementation of Free Infant Care Policy :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 Care Center Directors

김민희(서울의료원 어린이집 교사)**
정가윤(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시행된 영아 무상보육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해 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의(국공립, 민간, 가정) 입장에서 느끼는 영아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실제적인 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지역적으로 열악한 강원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재정 보육실태의 파악과 지방어린이집 원장의 만족도와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실태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영아 무상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과 원장들이 생각하는 극복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기관 유형별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원장님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기관의 관찰을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고찰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kimmh1988@naver.com

Ⅱ. 연구문제

1. 영아 무상보육 정책 이후 강원지역 어린이집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2. 영아 무상보육 정책 이후 강원지역 3명의 원장들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하는가?(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
   2-1. 무상보육 정책 이후 원장들이 겪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2. 무상보육 정책 이후 원장들이 생각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연구 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의 두 가지 연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정미양(2012), 이지영(2003), 명순희(2013), 이미화, 임양미, 이진경(2012)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카이검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는 영아 무상보육정책 시행 이후 현장에서 실행해 내고 있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의 원장 3명을 선정하여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실제적인 운영의 어려움, 무상보육 정책 이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지 심층면담을 통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형식적, 비형식적 면담과 연구자의 기관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어린이집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강

원지역 어린이집의 영아정원수는 과반수가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상보육의 필요성 인식과 무상보육의 만족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무상보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은 52.8%가 나왔으며 이 의견에 대해 기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상보육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어린이집 원장이 3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무상보육 만족도에 대한 원장들의 인식에서는 41.7%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대해 기관 유형별 차이가 없었다. 불만족의 이유는 전 계층의 보육료 지원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원장이 42.3%였다. 보육료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육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63.8%로 많았으나 기관 유형별로 의견에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준에 보통이라는 의견과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한 사람들은 보육료가 10~30%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 가장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견이 63%로 높게 나왔다.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대우는 무상보육 정책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의견에 대해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사례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과 운영 개선을 위한 극복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상보육정책 이후 겪는 어려움은 3년째 동결된 보육료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영아교사 채용의 어려움, 평가인증제에 따른 어려움이 대표적이었다. 원장들이 생각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보육료와 상관없이 교사인건비의 지원이다. 즉 원아모집과 상관없이 교사인건비가 지급될 때 교사가 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일하고 영아의 보육료가 영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원장들의 입장을 고려한 평가인증제의 시행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업무를 가중 시킬 뿐 아니라 일회성의 평가로 그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원장들의 의견이 수렴된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무상보육 정책 시행 이후 어린이집, 즉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의 진정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The Perception of Parents and Teachers on the Installation and Application of CCTV at Child Care Center

김은하(사랑의 어린이집 교사)**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최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교사와 부모 간에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이해와 타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활용에 있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부모와 교사 간에 신뢰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여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교육 환경의 방향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린이집 CCTV의 필요성 및 선호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어린이집 CCTV의 관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어린이집 CCTV의 효과적 활용방법과 개선점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논문은 2013학년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eunhasu019@hanmail.net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활용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22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110명과 부모 210명, 총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 총 320부를 배부하여 총 290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한 교사용 설문지 103부, 부모용 설문지 183부 총 28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현옥(2011)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도구의 타당성은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주요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T-test, ANOVA, 다중응답분석, 교차분석(카이제곱분석), 백분율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의 필요성 및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와 교사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즉 교사는 출·퇴근길이 조금 멀어도 CCTV가 미설치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고, 부모는 어린이집이 거리상 조금 멀어도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길 원하는 등 교사보다는 부모가 CCTV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부모가 교사보다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유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해서도 부모와 교사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CCTV 관리를 해주기 원하였던 반면 부모는 관할 시 구청 등 좀 더 권위 있는 집단의 통제를 선호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교사는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꼽았고, 부모는 관리자에 의한 악용을 염려하며 어린이집 외의 기관에서 CCTV를 관리해주기를 원하였다. 한편 부모는 어린

이집 CCTV설치가 교사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사는 침해 정도를 부모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CCTV활용에 있어 안심보육이라는 목적 외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CCTV 촬영을 통해 교사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교사의 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유아 행동관찰 자료로 수집하여 부모상담시 자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활용방법들이 언급되었다.

어린이집 CCTV 활용에 있어 정보유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자기 정보결정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등의 부정적인 면들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CCTV의 긍정적 활용방법을 숙지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CCTV 관리 운용 지침을 작성하고 법적 체계를 마련 한다면 오히려 CCTV의 활용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CCTV 의 상시적 이상 유무 점검, 녹화된 테이프 관리, 주기적 A/S실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어린이집에서 CCTV는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CCTV는 감시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증거확보의 용도로만 쓰이는 시작 단계이지만 어린이집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냄으로써 교사와 부모의 어린이집 CCTV활용에 관한 인식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CCTV 활용에 있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봄으로써 부모와 교사 간에 신뢰성을 높이고, 교사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등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포스터 발표 6-

만 5세 누리과정 담당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직무만족도 비교*

Comparis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Daycare and Kindergarten Teachers in Charge of the Nuri Curriculum for Children at the Age of Five

이수영(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장영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본 연구는 '만 5세 누리과정'이 제정되고 교육과정이 일원화 되는 시점에서 만 5세 누리과정 담당 유아교사의 기관유형별 전문성 인식 및 직무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전문성 인식과 직무 만족도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만 5세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교사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5세 누리과정 담당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어떠한가?
2. 만 5세 누리과정 담당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어떠한가?
3. 만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soopang@sungshin.ac.kr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의 만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99명과 어린이집의 만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유아교사에 대한 전문성 인식척도, 직무만족도 척도, 누리과정에 대한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로 처리했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 t검증, F검증,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중 유치원교사(M=3.97)가 어린이집교사(M=3.9) 보다 전문성 인식(t=1.985, p 〈.0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전문성 인식에서는 누리과정 담당교사 모두 가장 낮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만 5세 단일연령 학급을 담당할 때 보다 혼합연령학급을 담당할 때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중 유치원 교사(M=3.31)가 어린이집 교사(M=3.12) 보다 직무만족도(t=3.819, p 〈.001)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근무환경과 업무량에서 만족도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교사 모두 인간관계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보수와 보상관련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셋째, 만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r=.539,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만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중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교사 보다 전문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아교사 전반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누리과정 담당 유아교사 간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재 교육체계 구축과 교육제도 개발, 사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문 연구로, 결과가 질문지에 나타난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요인에 대한 해석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현장에서의 만 5세 누리과정 담당 유아교사로써 누리과정 시행 후 직무만족도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함께 사용하여 해석 하였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문성 인식 정도나 직무만족도를 파악에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만 5세 누리담당교사에 대한 다각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 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 1학년 사회과 교육의 연계성 연구*

A Study of Curriculum Articulation Analysis between the Domain of Social relationship of Nuri Curriculum for Five Year Olds and the First Grad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s

김은미(용인시청상록어린이집 원장)**
이순례(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만 5세 누리과정은 다양한 일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교육·보육과정을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만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통합과정이 아동의 발달적 특징과 교육과정의 효율성에 비추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기초하여,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와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연계성을 비교 ·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 1학년 사회과 교육목표 면에서 연계성은 어떠한가?
둘째,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 1학년 사회과 교육내용 면에서 연계성은 어떠한가?
셋째,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 1학년 사회과 교육방법 면에서 연계성은 어떠한가?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lim350@hanmail.net

넷째,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 1학년 사회과 교육평가 면에서 연계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만5세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 영역'과 「만5세 누리과정 지도서」 가운데 사회관계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공통 교육과정 인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의 통합교과에 따른 「통합교과 지도서」 가운데 사회교육과 연관된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를 총론과 해설서, 「만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초등학교 1학년 통합교과를 위한 「통합교과 지도서」 를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교육 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점과 자신의 일상생활 주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해를 넓힌다는 점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교육 내용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의 내용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통합교과의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거의 모든 활동의 내용체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일상생활 경험 중심이라는 동일한 내용 선정을 제시함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만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통합교과의 교육방법은 활동중심, 놀이중심, 생활중심, 주제중심의 통합적 교육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평가방법을 살펴본 결과, 만5세 누리과정은 유아의 일상생활에 걸쳐 평가를 강조하며 자기평가, 반성적 저널쓰기, 수업 모닝터링, 체크리스트, 일화기록, 포토폴리오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초등학교 1학년 통합교과에서도 통합교과 전반에 걸친 다면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며 선택형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서술형 평가, 관찰, 면담, 포트폴리오, 실연법, 토론 등의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할 때,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통합교육은 비교적 연계성을 띄고 구성 되어있다. 만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사회관계 활동을 선별하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교실에서의 지도 방법 면에서도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만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1학년의 사회과 교육이 보다 연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유아 사회관계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포스터 발표 8-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자녀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분석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Temperament on Depressio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n Mother's Parenting Stress

서지원(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Ⅰ. 서 론

현재 정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의식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이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후속 출산을 꺼려하는 현상으로 까지 이어지고 추세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기초하고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요인, 부부관계와 같은 환경적 특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포괄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Abidin, 199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부부갈등,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문제로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가설모델로 설정해 알아보고자 한다.

*lin042@hanmail.net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3차년도(2010)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조사한 1차 한국아동패널의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영아 2,078명과 그의 어머니이다. 1차 연구(2008년)를 기반으로 하여, 1년 후인 2009년에 2차 연구가 이루어졌다. 1차 연구 후 조사를 원하지 않은 226가구는 탈락되었으며,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52가구가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아동패널 2차 년도는 총 1,904가구의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의 3차년도(2010)의 연구도구인 어머니의 부부갈등, 영아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우울을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회귀추정법으로 본 데이터의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경로 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부부갈등,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우울 변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이론을 근거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제안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제안모델의 적합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최종모델은 어머니 부부갈등→어머니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우울, 영아 기질→어머니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최종모델에서 각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어머니 부부갈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부부갈등이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 기질이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부부갈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6%였으며 어머니 부부갈등이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2%로 나타났다. 어머니 부부갈등→어머니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우울에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부분 매개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 부부갈등이 어머니 우울에 직접 미치는 효과보다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로 하였을 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0%였으며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0%로 나타났다. 영아 기질→어머니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우울에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변인이 부분매개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36%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반

영하여 가설모델을 설정해 분석한 결과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부갈등 경우 어머니의 우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우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부갈등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우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부부가 화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기를 둔 부모들의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상담 등 을 지원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의 기질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터 발표 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Mothers' Perceptions of and Experiences about

Children's Private Education

민선옥(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이 영유아기 자녀들의 사교육 경험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요구는 무엇인가?

*childqueen@nate.com

Ⅲ.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5명,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5명 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어머니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 사교육에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취업모보다 전업주부가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의 사교육 수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업주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대다수가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모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영아기 자녀와 유아기 자녀의 사교육 관련 경험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얻고 2013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개별 면담 10회와 포커스 그룹 면담 2회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면담자료를 면담 후 1일 이내에 전사하였으며 면담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목적의 적합성과 범주 간의 상호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협력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상보육·교육비 지원과 주변의 권유, 가정에서의 지도 한계로 사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요구와 초등학교 생활의 적응, 가정에서 어머니의 지도 한계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변의 권유, 자녀 양육의 책임감으로 사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나

타났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두 집단의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사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영유아기 자녀들과 어머니들이 사교육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녀들은 사교육을 통하여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내용으로 인해 사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와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사교육 경험을 통해서 인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육현장의 지원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먼저,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욕심과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 사교육을 시키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염려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녀의 올바른 전인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에는 어머니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실시,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 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바라는 지원에는 입시 제도의 안정화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예체능 교육 재정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영아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어머니의 만족도와 요구도*

The Satisfaction Level and Needs of Mothers Receiving Free Infant Support at Day Care Centers

박정미(강남어린이집 前교사)**
이순례(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 론

보육정책의 발달로 영아무상보육이 보편화·일반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아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어머니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를 여러 변인별로 조사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육지원·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영아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어머니의 어린이집 만족도는 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셋째, 영아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어머니의 어린이집 요구도는 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영아들의 어머니 26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전기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happyafrica@naver.com

이용 실태 및 만족도와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별 차이 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어린이집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구도의 각 항목별·변인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변인에 따라 어린이집의 이용실태와 영아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만족도와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이용실태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다수가 보육대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입소이유는 취업모는 '맞벌이'라서, 비취업모는 '또래와의 사회성발달과 교육'을 위해서라고 나타났다. 재원시간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는 '9시간 이상 12시간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선택이유로 취업모는 '시설이 잘 갖춰져서', 비취업모는 '거리상 이용하기 편해서'가 가장 높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질병감염의 노출'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지원 외 필요경비로 취업모는 '5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고, 비취업모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사용이 가장 높았다. 양육부담에 대한 해소인식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평균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월 소득에 따른 변인에서는 월 소득이 적은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의하면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어린이집 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정의 월 소득, 기관 유형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들은 보육대행자가 없어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기관보육 시 자녀들의 질병감염 노출에 대한 염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재원시간의 유연성을 갖춘 어린이집 형태가 필요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높은 비율로 무상보육으로 인해 양육부담의 해소를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취업모뿐 아니라 비취업모도 양육과 육아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양육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영아 무상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들의 어린이집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비취업모가 취업모의 어린이집 만족도보다 다소 낮은 점은 비취업모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함을 알려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어린이집 요구도를 살펴보면 변인에 따라 어린이집 요구사항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머니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자녀교육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유형별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이용실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 어머니들은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무상보육으로 인해 양육부담의 해소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무상보육정책은 보편성을 가지고 취업모 뿐 아니라 비취업모를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SCAMPER 기법을 적용한 동화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tory-Remaking Activity Through SCAMPER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송규운(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안나(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본 연구는 SCAMPER 기법을 활용한 동화 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적절한 동화를 선정한 후 SCAMPER기법과 관련된 동화 재구성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박이심(2005)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의 생활주제별 SCAMPER 프로그램 실행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CAMPER를 활용한 여러 선행연구들(김은영, 2009; 이경숙, 2007)은 SCAMPER기법을 교실 활동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검증하였다. 즉, SCAMPER 기법에 익숙해진 유아들은 또래 관계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자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수준에 맞게 SCAMPER 기법을 적용한 동화 재구성 활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유아들의 반응변화를 관찰하여 유아의 창의성 변화를 알아보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annacho@stu.ac.kr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사립유치원 만4세 유아 51명을 대상으로 유아들의 대집단활동을 통한 ‘동화듣기’와 소집단 활동의 ‘동화 재구성’을 총 8회기 동안 진행하고 관찰하였다. 동화의 재구성 활동 시 동화에 대한 내용을 회상해보고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야기 나누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재구성 활동 시 비밀그림 그리기, 지점토로 만들기, 색 찰흙으로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SCAMPER 발문을 통한 동화재구성 활동을 하였다. 매 활동 관찰 시 상호작용장면을 촬영한 녹화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관찰일시, 관찰대상, SCAMPER 적용기법, 발문,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유아관찰, 창의성의 분석을 포함한 참여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참여관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찰일지와 녹화자료를 토대로 일정별로 정리하고 수집된 자료들은 창의성의 하위 요소인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SCAMPER를 적용한 동화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유창성 측면에서는 유아들이 불합리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수용해 주는 분위기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서 SCAMPER 중 A(응용하기)기법을 사용했을 때(예. 만약 내가 과자 집을 만든 마녀라면 과자를 이용해 집 이외에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유아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집이 아닌 다른 것 (예. 달팽이 집)을 만드는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SCAMPER를 적용한 동화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융통성 측면에서는 유아에게 다른 사건을 제시해줌으로써 그 사건을 통해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본적이 없는 현실을 구조화 하거나 전통적인 개념 ‘위-아래를 바꾸어 놓는 것’과 같은 융통성의 요소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독창성의 측면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을 통하여 색다른 것을 생각하는 능력과 성향을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관찰 결과에 의하면 SCAMPER 기법에 기초한 사고 활동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소별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그리고 전체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CAMPER를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동화 재구성 활동은 유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유용하며 가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사와 또래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SCAMPER 기법의 적용은 21세기 '창조화'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의 창의적 성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실제적 활용을 위한 계획과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her's Separation Anxiety and Attachment to the Infant on Infant’s Adjustment to Day-Care Center

김영실(시립한보라 어린이집 원장)**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영아들은 보육시설의 초기적응과정에서 새로운 환경, 낯선 교사 및 또래 영아들과의 만남, 주 양육자와의 분리 등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신현정, 2003, 2005; 전미경, 2004). 한편 영아와 마찬가지로 주 양육자도 자녀와의 격리로 인해 심리적인 박탈감, 기관에 대한 불신, 자녀의 적응에 대한 불확신 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지수, 2008; 이선주, 2008). 따라서 신입원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주 양육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돕는 적응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 1~2세 영아 어머니의 분리 불안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haha6363@naver.com

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경기도 Y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만 1~2세 영아들의 담임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326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로는 어머니의 분리불안 검사는 Hock(1989)이 개발한 MSAS(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중 일반적 어머니 분리불안 영역의 문항을 번안한 안지영과 도현심(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검사 도구는 황현주(2006)가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한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측정을 위해 Jewsuwan, Luster, Kostelink(1992)이 개발한 PAQ(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오종은(2001)이 번역하여 만 1, 2세 영아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 window for 1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t-test와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첫째,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의 분리 불안은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 상태로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지원을 위해 영아뿐만 아니라 부모의 적응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분리불안의 감정이 완화되도록 부모 참여수업, 부모 참관, 부모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교사의 직무환경,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등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어머니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되겠다.

둘째, 어머니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 정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근접추구를 제외한 나머지 애착의 하위요소들은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접추구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분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서 아이와 떨어져 있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접 추구가 높을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위한 체계적인 적응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적응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애착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분리불안정도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정도보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부모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 정도를 두고 적응과정을 돕기 보다는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즉 자녀와 분리될 때 느끼는 분리불안에 초점을 두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관련 학문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의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제6조(입회 절차)

본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권리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④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2. 학생회원의 권리
   ①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②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수석 부회장 1명, 권역 부회장 4명)
3. 상임이사 1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

제11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 5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결석회원의 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2.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5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임기는 회칙 발효일부터 2007년 2월말로 종료된다.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모집 분야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가능 논문

(1) 학문적인 연구 목적과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논문 또는 문헌연구논문으로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게재 예정 포함)되지 않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2) 학위논문의 요약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이를 명시한다.

3. 발간 시기

'육아지원연구'의 2013년까지의 발간 시기는 연간 2회(4월 30일, 10월 31일)이며, 2014년부터의 발간 시기는 연간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4. 접수 시기

(1)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1월 발간 학회지는 전년도 11월 15일, 4월 발간 학회지는 2월 15일, 7월 발간 학회지는 5월 15일, 10월 발간 학회지는 8월 15일에 접수 마감한다(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15일 마감).
(2) 논문 접수 시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3) 원고가 게재되는 순서는 원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접수 및 확인 방법

(1) 논문 접수는 편집부 메일 ksecec2@hanmail.net로 받는다.
(2) 논문이 접수되면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투고 논문 접수 안내' 공문을 메일로 발송하고, 이를 통해 논문 접수를 확인한다.
(3) 논문 접수와 관련된 문의는 편집부 메일(ksecec2@hanmail.net)을 이용한다.

6. 투고요령

(1) 원고 제출시 논문명, 저자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교신저자의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반드시 표기) 등을 기재한 '논문 투고서'(서식)를 작성하여 논문과 분리된 문서로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2) 한글 2000 이상의 환경에서 '육아지원연구 투고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3) 국문과 영문초록, 주제어(국문, 영문/ 2-4개 내외)를 반드시 명시한다.

예 주제어 :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4) 저자가 같은 2편의 논문이 동일 호에 게재될 수 없으며(공동연구의 경우도 포함됨), 한 저자당 연 2회를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다.

7.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게재 요청자는 투고 시에 1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논문 재심사 - 편집위원회 결정 20,000원, 심사위원 결정 60,000원 / 영문초록 재심사 – 20,000원).

납부계좌 : 신한은행 110-393-920284 예금주 이승연

(2)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 중에서,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30만원,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은 편당 20만원이며, 소정의 원고분량(17쪽)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2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징수한다.

(3) 별쇄본은 20부를 무료로 제공한다.

8. 윤리규정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 기관에 알린다.

(3)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5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2013.5 ~ 2015. 4)

고 문(전임회장)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장영희(성신여자대학교) 정미라(가천대학교)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회 장	문연심(강남대학교)	
수석 부회장	이윤경(서원대학교)	
권역별 부회장		
경기 · 인천권	권용은(안산대학교)	
충청 · 대전 · 강원권	김신영(백석대학교)	
경상 · 대구 · 부산권	한미라(경남대학교)	
전라 · 광주 · 제주권	조순옥(원광보건대)	
상임이사	박희숙(강남대학교)	
학술이사	박정선(명지전문대학교)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연구이사	조경자(호서대학교)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편집이사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출판이사	곽아정(연성대학교)	정가윤(명지대학교)
홍보이사	김난실(명지전문대학교)	이진화(숭의여자대학교)
교육이사	이명희(중부대학교)	권정윤(성신여자대학교)
사업이사	오은순(공주대학교)	이현숙(경복대학교)
서기이사	김현자(두원공과대학교)	
감 사	김향자(명지전문대학교)	김수영(대구가톨릭대학교)
이 사	곽향림(호원대학교)	김정례 (시화단설유치원)
	김진선(한라대학교)	김현지(우송정보대학교)
	김희진(이화여자대학교)	류지후(나랑유치원)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박선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순호(대구보건대학교)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박혜경(동덕여자대학교)	박혜경(신성대학교)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백영애(전남과학대학교)
	부성숙(경기대학교)	성소영(안양대학교)
	성원경(우송대학교)	신건호(강남대학교)
	신상인(국공립유치원대표)	심성경(원광대학교)
	오연주(대림대학교)	유수옥(우석대학교)
	유영의(순천향대학교)	이경화(성결대학교)
	이소현(이화여자대학교)	이지현(건국대학교)
	이차숙(가천대학교)	이춘자(침례신학대학교)
	이학선(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이현옥(성결대학교)
	이희경(부천대학교)	임원신(남서울대학교)
	임은숙(인천재능대학교)	전선옥(한림성심대학교)
	정영희(수원여자대학교)	정혜손(장충유치원)
	조은진(서울여자대학교)	조인경(혜천대학교)
	조화연(혜전대학교)	지옥정(한국교통대학교)
	진명희(광주대학교)	최석란(서울여자대학교)
	최윤정(원주대학교)	홍순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 사	강경민(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최수랑(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연 수 이 수 증

성 명 :

소 속 :

위의 사람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주최한 2014년도 춘계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주제 : 현대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영 · 유아의 역량강화
○ 일시 : 2014년 4월 26일 (토) 9:30 ~ 16:00
○ 장소 : 강남대학교 샬롬관 B1 108호

2014년 4월 26일

한 국 육 아 지 원 학 회 장

Memo

Memo